

한 영 옥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시를 통한 상상력 교수법 연구

- 서정주의 『질마재신화』를 중심으로 -

2005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신 혜 정

시를 통한 상상력 교수법 연구

- 서정주의 『질마재신화』를 중심으로 -

한 영 옥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신 혜 정

인 준 서

신혜정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2005년 6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김 명 석 교수지도

사학위청구논문

백석 서술시의 교수방법 연구

20 5년

성신여자대 육 원

국어 전공

은

논문개요

본 연구는 『질마재신화』의 구성원리를 통해 서술시로서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질마재신화』에서 보여준 시인의 상상력에 주목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더불어 이러한 상상력이 학습자들의 시쓰기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수행평가를 통해 학습자들의 시쓰기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제시해 보고자 시도 되었다.

상상력은 추상적이다.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을 통해 다양하게 이야기 되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상상력은 교사들에게나 학습자들에게나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7차 교육과정에서는 무엇보다도 학습자들의 창의적인 상상력을 중요하게 여긴다. 학습자들이 상상력을 왕성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문학교육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문학교육은 작품 감상을 통해서도 작가의 상상력을 경험하고 직접 창작하는 활동을 통해서도 학습자들의 내면화된 상상력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소설’에 비해 ‘시’는 호흡도 짧고 여러 의미들을 간결한 단어 속에 함축하고 있기에 그 속에서 시인의 상상력을 경험하고 학습자들이 상상력을 유발하여 새로운 ‘시’를 창작하는 일은 훨씬 어렵다. 실제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들도 ‘시’ 수업은 어렵고 힘들다고 여긴다. 때문에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습자가 직접 시를 창작하는 것은 교내 사생대회에서나 가능한 일이 되어버렸다.

지금까지 시 교육을 통한 상상력 연구는 상상력 계발이라는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상상력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모호하게 그대로 교육 현장에 적용시키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작가의 상상력이 실제로 어떻게 발현되고 적용되었는지를 II장 『질마재신화』의 서술성과 주제를 통해 살펴보고, III장에서 시인이

보여준 신화적 상상력을 학습자들의 시쓰기 실재를 통해 적용해보고자 하였다. 그 방법으로 여러 단계를 통한 상상력 유발 방법을 제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가 있는 『질마재신화』를 통해 학습자들과 소통을 시도했다. 시인이 『질마재신화』에서 보여준 가치는 원형적인 보편성을 띤 신화적 상상력이다. 이는 학습자들이 상상력을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야기가 있는 시를 직접 창작함으로써 학습자들은 옆에서 살아 숨쉬는 상상력을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상상력은 더 이상 손에 잡히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학습자들 옆에서 살아 숨쉬는 생생한 것이 되었다. 학습자들은 상상력 유발단계에 따라 신화를 통한 시쓰기를 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수행평가와 학생 상호평가를 통해 받았다.

수행평가는 7차 교육과정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행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생 상호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학습자들의 수업 참여도와 흥미도가 높아지고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2. 연구사	4
3. 연구방법	10
II. 『질마재신화』의 서술성과 주제	14
1. 구성원리	14
1) 설화의 재창조	14
2) 구술성의 활용	29
2. 인물유형의 다양성	40
1) 유학과	41
2) 자연주의 파	44
3) 심미파	48
3. 삶의 영원성과 신비	53
III. 상상력 교수법의 실제	56
1. 신화적 상상력의 교육적 가치	56
1) 상상력의 개념	56
2) 신화적 상상력의 중요성	59
2. 신화적 상상력을 통한 시쓰기 연습	71
1) 상상력의 환기와 확장	73
2) 시쓰기의 실제	86
IV. 결론	103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시의 주제나 형식적 균제미 등이 주는 감동과는 별도로 학습자들에게 감동 깊게 읽히는 시들 가운데는 서사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개의 비평가나 분석가들은 학습자가 소박한 감상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시인이 무엇을 노래했는가' 즉 주제나 이데올로기에만 집착한다. 그러나 학습자는 시의 주제나 사상보다 시적 정조가 주는 소박한 감상성에 더 쉽게 감동 받는다. 그러한 감상성은 서사적 구조를 가진 시를 통해 얻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까닭은 우선 소설에 있어서와 같은 감정이입은 시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데 있다. 막연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즐거리를 포착할 수 있을 때 학습자는 시에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심리적 동화작용 속에 빨려들어 가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동화작용 속에 빨려들어 가게 되었을 때 학습자들은 시를 재미있어하고 시에서 드러난 이야기의 즐거리를 포착하며 그에 따른 상상력의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인간의 심리 속에서 열림의 경험 자체이자 새로움의 경험 그 자체로 하나의 상태가 아닌 인간의 실존 그 자체이다. 상상력을 기초로 한 여러 가지 감성을 표현하는 것은 예술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이며 인간 내면세계의 신비로 가득찬 상상의 세계를 보다 확장된 이미지의 확대를 가져다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잠재의식 안에 있는 인간 사고에서 표출된 감성의 이미지들은 상상력을 통해 자기 정신의 극복과정을 추구한다.¹⁾

1) 박진열, 「신화적 상징체계를 통한 서술적 표현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1996, p.7.

인간의 탄생과 때를 같이하여 상상력을 기저로 한 신화가 탄생한다. 신화 이미지는 아득한 옛날부터 앞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거의 무의식상태에서 전수 되었다. 신화는 인간에게 내면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 준다.²⁾ 그렇기 때문에 신화는 인간 내면의 본질을 밝히는 중요한 토대가 되며 상상력의 근원을 보여주는 모체가 된다.

7차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이 '학습자의 개인차와 다양성을 전제로 한 수준별 교육과정이고 수준별 교육과정이 학습자 중심과 창의적 사고의 신장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³⁾는 점은 학습자 개개인의 개성과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학습자 주도적인 교육으로의 전환을 모색케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노력인 창의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창의력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가 바로 상상력이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문학 교육 특히 시교육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⁴⁾를 살펴보면 시교육에서 창의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상상력 계발이 가장 핵심적이고 필수적이며 중요하다는 사실을 대부분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 창의적인 상상력은 학습자들 모두가 추구해야하는 공통의 목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는 문학교육 특히 시교육에 있어서 상상력의 계발이라는 측면보다는 '시'내용의 이해와 감상에 중점을 두고 교수

2) 조셉캠벨, 빌 모이어스, 이윤기 역, 『신화의 힘』(고려원, 1992) p.36.

3) 정구향, 「제7차교육과정에서 국어과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방안 및 교수 학습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세미나 자료집』, 1998. 12. p.55

4) 시교육의 목적은 상상력 신장에 있다. 한귀은, 「상상력 신장을 위한 시 교육 연구」,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6. p.7.

시교육의 가장 궁극적 목적은 상상력의 계발 혹은 세련이라고 볼 수 있다. 양왕용, 『현대시교육론』(삼지원, 1997) p.19.

문학 작품 감상을 통하여 즐거움을 느끼고 삶의 다양한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게 하며, 풍부한 상상력을 길러 주고자 하였다. 교육부,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1997 15호, 1997. p.59. 문학 교육의 의의 중의 하나가 문학적 상상력의 세련이다.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삼지원, 1999) p.65.

문학교육을 통해 상상력을 세련하고 삶을 총체적으로 체험하며, 문학적 문화를 고양하는 것이 문학교육의 의의이다. 우한용, 「문학교육과 문화론」(서울대출판부, 1999) p.175.

- 학습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시'라는 문학 장르가 학습자들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상상력을 교수 - 학습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상상력이라는 추상성을 효과적으로 학습자들에게 교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시를 통한 상상력을 학습자들에게 지도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시를 통해 작가의 상상력의 세계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밝히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과정이다. 그러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서술시를 통해서라면 추상적인 상상력도 학습자들에게 보다 더 쉽고 구체적으로 접근 될 수 있다. 그 접근이 학습자들에게 친숙한 설화나 신화의 이야기를 통한 서술시라면 그 속에 재창조된 이야기들을 통해 작가의 상상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상상력의 토대가 마련된다면 학습자들은 이를 발판삼아 더 큰 상상의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그 상상의 공간에서 학습자들은 시를 창작하고 또 그 안에서 새로운 상상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그 상상은 학습자들의 경험과 맞물려 구체적이고 살아있는 것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첫째, 서정주의 서술시 『질마재신화』를 통해 상상력의 근원의 모체가 되는 설화와 신화의 원형을 밝히고 재창조된 원형을 통해 작가의 신화적 상상력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둘째, 신화적 상상력이 시인의 구체화된 현실경험과 만나 새로운 신화로 발현되는 과정을 고찰하고 상상력이 그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 되는 지를 밝혀 학습자들에게 신화를 통한 시적 변용이 가능함을 알게 하고자 한다. 이는 신화와 학습자들의 경험과 동일시된 이야기를 창작하게 하고 그것을 다시 서술시로 재구성하는 활동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

5) 『질마재신화』는 서술시의 형식을 취하면서 구어체의 어조를 구사하고 있어서 마치 어느 노인에게서 옛날 이야기를 듣는 듯한 친숙감을 불러일으킨다. 말하자면 과도한 시적 수사 의장을 거치지 않고 시인의 육성이 생생하게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시인 특유의 자유로운 상상을 통하여 인간 정신의 신비로운 내면세계를 펼쳐 보이고 있다. 이승원, 『한국현대시 감상론』(집문당, 1996) p.240.

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현실화된 구체적인 상상의 세계를 학습자들 스스로가 창작할 수 있음을 파악하게 하고, 상상의 세계는 손에 잡히지 않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는 구체적인 것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2. 연구사

서정주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풍성하게 시도되어 왔다. 그러나 서정주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초기시에 집중되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서정주의 여섯 번째 시집인 『질마재신화』⁶⁾는 중대한 시적 변모를 지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시에 비해 양적인 면에 있어서나 질적인 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약한 편이다.⁷⁾ 지금까지 『질마재신화』에 대한 연구를 크게 살펴보면 서정주의 시 전체를 논하면서 부분적으로 『질마재신화』를 다룬 논의들과 『질마재신화』를 주요 대상으로 다룬 논의들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서정주 시 전체를 논하면서 부분적으로 『질마재신화』를 다룬 주된 논의의 흐름은 시 · 공간의 측면⁸⁾, 이미지 연구⁹⁾, 신화비평 내지 원형비평적 접근¹⁰⁾,

6) 서정주, 『未堂 徐廷柱 詩全集 1』(민음사, 1991)

7) 이순옥, 「서정주의 『질마재신화』 연구」, 영남대 박사논문, 1992. p.3.

8) 정신재, 「미당시의 공간의식」, 동국대 박사논문, 1983.

김은자, 「한국 현대시의 공간의식에 관한 연구 : 김소월·이상·서정주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논문, 1986.

김선화, 「한국 현대시의 시적 공간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1990.

손진은, 「서정주 시의 시간성 연구」, 경북대 박사 논문, 1996.

9) 유혜숙, 「서정주 시 연구 : 자기실현 과정을 중심으로」, 서강대 박사논문, 1986.

이진홍, 「서정주 시의 심상연구」, 영남대 박사논문, 1989.

10) 강우식, 「서정주 시의 상징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1984.

서정주 시의 어휘 형태론적 연구¹¹⁾, 설화와의 관련성¹²⁾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논의들은 『질마재신화』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것이 아니고 서정주 초기시들과 관련된 분석들이다. 그렇기에 『질마재신화』에서 드러나는 시·공간적 특성과 이미지적인 면, 신화와의 관련성 등 시집 전체를 아우르는 특질적인 면모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고 있기 보다는 서정주의 시적 변화와 특성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

『질마재신화』만을 대상으로 다룬 작품론은 주로 서술시적 접근과 설화수용 측면에서 이론을 전개해 나간다. 『질마재신화』는 기존의 서정주 시가 보여주는 모습에서 많이 변모되었다. 우선 천상으로 향하던 그의 시세계는 지상으로 급 하강했고 형식면에서도 설화를 수용한 이야기로 구성된 서술시로 전환되었다. 이것은 『질마재신화』의 논의에서 서술시적 접근과 설화수용적 접근이 빠지지 않고 논의하게 되는 구실을 마련한다. 『질마재신화』의 서술시적 접근에서 기존의 논의들은 산문성 혹은 이야기성 등을 논의하면서 혹평과 호평사이를 오간다.

조창환은 시집 『질마재신화』가 ‘시에 대한 재래의 합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비시(非詩)의 형태를 지녀서 시와 잡문과의 구별을 무색케 하고 있다¹³⁾’고 혹평한다.

황동규도 『질마재신화』에 대해 ‘언어의 긴장감이 없고 시편 전체가 상이나 리듬이나 짜임새에 있어 너무 정적으로 진전이 없다¹⁴⁾’고 언급하여, 역시

김홍진, 「서정주 시의 원형 이미지 연구」, 한남대 석사논문, 1993.

김미숙, 「『질마재신화』에 나타난 신화적 삶의 양상 연구」, 원광대 석사논문, 1995.

11) 조규미, 「서정주 시의 병렬법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5.

정유화, 「서정주 시의 기호론적 연구」, 중앙대 박사논문, 1997.

12) 임문혁, 「한국 현대시의 전통 연구 : 설화의 수용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박사논문, 1993.

윤재웅, 「서정주 시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1996.

13) 조창환, 「산문시의 양상」, 『현대시학』, 1975. 2월, p.107.

14) 황동규, 「두 시인의 시선」, 『문학과 지성』, 1975. 겨울호. pp.949~951.

시로서의 미적 자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질마재신화』에서 기존의 서정주 시가 보여주던 압축미, 응결미, 언어의 긴장성이 없어진 것만을 지적하고 시인이 시적인 효과를 버리면서까지 추구하려고 했던 서술성의 의미는 고려하지 않은 논의들이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정효구는 ‘시를 압축과 응결의 정수로 생각해오던 독자들에게는 당혹스러움과 함께 이 시가 비시(非詩)적으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 시집은 시로서의 자격을 확보할 수 있는 내적 비밀을 시의 행간 속에 감추어 두고 있다’¹⁵⁾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유종호는 『질마재신화』가 ‘가난한 문화와 낡은 인습 속에 담겨있는 긍정적 대목을 산문의 형태를 통해 깊이 있게 그려내고 있다’¹⁶⁾고 평가한다.

이들 논의의 핵심은 시집 『질마재신화』가 전통적으로 시의 특성이라고 여겨 왔던 압축미나 응결미를 지니지 않고 있어 미학적인 자질은 의심스러우나 이 시집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의미 있는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논의들은 『질마재신화』가 지닌 서술시로서의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질마재신화』의 이야기 전달의 의미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한계를 보인다.

『질마재신화』의 설화수용측면에서는 여러 논의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임문혁은 김소월 · 전봉건 · 서정주의 설화수용 양상을 연구하면서 서정주의 설화수용 방법이 ‘자기 체험화, 비교와 대조, 상징화, 변형, 인유 패러디, 재구술 등 가장 다양한 양상으로 설화를 시화하였다’¹⁷⁾고 평가한다.

주옥은 서정주의 시가 ‘설화의 구조를 수용했는지 또는 설화의 내용 전체를

15) 정효구, 「이야기시의 가능성 존재의 전환을 위하여」(청하, 1980) pp.51~54.

16) 유종호, 「소리지향과 산문지향」, 『작가세계』, 1994. 봄호. pp.85~98.

17) 임문혁, 앞의 책

염두에 두었는지¹⁸⁾를 통해서 서정주의 시와 설화의 관련 양상 및 의미를 밝히고 있다.

김선학은 『질마재신화』의 분석을 통해 설화의 시적 수용과 설화의 시적 변용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논자는 서정주의 시가 ‘구전설화와 관련을 맺을 때는 설화의 시적 수용이 발생하고 문헌설화와 관련을 맺을 때는 설화의 시적 변용이 발생한다’¹⁹⁾고 보았다.

나희덕은 ‘『질마재신화』가 시에 설화를 도입함으로써 내용과 양식에 있어 전통적 서정시와는 매우 다른 서술성을 강하게 지니게 되었고 기록문학의 관습과 한계를 설화의 구비성을 통해 넘어섬으로써 새로운 양식화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한다.²⁰⁾

장창영은 ‘서정주의 설화 수용은 과거의 복원이나 전통 정서 재현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그가 전통 소재와 설화들을 소재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형화된 인물들의 개성화를 시도함으로써 그들 특유의 독자성을 확보하게 만들고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보았다.²¹⁾

그러나 이 논의들의 문제점은 『질마재신화』에 수록된 시들이 어떠한 설화와 관련되었는지는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질마재신화』를 통해 어떻게 재창조되고 형상화 되었는지는 밝히지 못했다. 『질마재신화』는 설화의 세계를 수용하면서 신화의 세계에로 까지 나아가고 있다. 때문에 『질마재신화』의 무의식 층에 침전된 작가 의식이 경험화된 현실세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상상력을 통해 신화로 어떻게 구현되고 재창조되었는지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논의들은 설화수용적 측면에만 집중되고 있다. 『질

18) 주 옥, 「서정주 시의 설화 수용양상 연구」, 서강대 석사논문, 1982.

19) 김선학, 「설화의 시적 수용 : 『질마재신화』를 중심으로」, 『질마재신화』, 제 3집, pp.241~252.

20) 나희덕, 「서정주의 『질마재신화』 연구 서술시적 특성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논문, 2000.

21) 장창영, 「서정주 시 연구 - 형상화 방식과 의식세계를 중심으로 -」, 전북대 박사논문, 2002.

『마재신화』는 서정주가 독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서술성’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보여준 시집이다. 그의 기존의 시에서 보여주던 압축미나 응결미를 ‘서술성’으로 대체한 것은 독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이다. 때문에 그 서술성은 단지 설화적 수용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단순한 이야기의 차용인 설화적 수용을 뛰어넘어 독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화로서의 면모를 『질마재신화』는 보여주기 때문이다. 앞으로 『질마재신화』에서 보여주는 시인의 상상력이 현실세계를 바탕으로 어떻게 승화되었고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재창조되어 하나의 신화로서 독자들과 소통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시 교육을 통한 상상력에 대한 연구는 상상력의 계발이라는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모호하게 상상력의 개념을 그대로 교육의 현장에 적용시키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김주향은 상상력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교사 중심의 분석적인 시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학생들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감상 지도 과정으로 상상력의 환기 - 상상력의 조정 - 상상공간의 확장이라는 단계적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²²⁾

한귀은은 시 교육의 목적이 상상력의 신장에 있다는 논의를 전개하면서 해체적 읽기와 놀이 이론을 적용하였다. 낭송 - 해체적 읽기 - 해체 릴레이 - 상호 텍스트성 활용하기라는 단계를 통해 상상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시감상과 시교육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²³⁾ 그러나 독자 중심의 릴레이식 토론은 학습자들에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오히려 학습자의 다양한 사고를 저해할 수 있는 요지가 있게 된다.

윤영선은 시적 상상력 계발을 위한 지도방안으로 텍스트에 대한 느낌 형성

22) 김주향, 「시교육 방법 연구」, 서울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1.

23) 한귀은, 「상상력 신장을 위한 시 교육 연구」,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6.

단계 - 텍스트에 대한 해석 단계 - 텍스트의 의미 확장 단계 - 텍스트의 내면화 단계의 모형을 제안하고 학생들이 시적 사고방식을 익힐 수 있도록 학습 과정이 조직될 때 비로소 시적 상상력이 계발될 수 있다는 논의를 전개하면서 시교육을 사고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²⁴⁾ 그러나 수업의 과정만 나타나 있고 구체적인 실천 사례가 없어 시 수업의 흐름을 파악하기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전인석은 기존의 강의 위주의 획일적 시수업이 학생들의 상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상상력을 확장시키고 상상력의 확장에 따르는 시적 감동을 학생들이 삶 속에서 이해하고 체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수업 지도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시 교육의 수업 지도 모형을 시의 일반적 지도 모형 가운데 상상력의 향상과 이를 내면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구체화 세분화하여 상상력의 환기 - 상상력의 확장 - 상상력의 내면화의 3단계로 나누어 실제 수업에 있어 교사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과정으로 제시하였다.²⁵⁾

최영란은 기존의 시교육 방식이 상상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지도 방법이 되지 못함을 지적하고, 창의적 사고 활동들을 시지도 과정에 효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실천적인 지도 형식을 설계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²⁶⁾

이상과 같이 그 동안 시교육을 통한 상상력에 대한 연구는 여러 학자들에게서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물들이 시교육의 목적으로 상상력을 들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그 상상력이 어떠한 형태로 발현되었으며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

24) 윤영선, 「시적 상상력 계발을 위한 학습 지도방안 연구」, 강원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6.

25) 전인석, 「상상력 향상을 위한 시 수업 모형 연구」, 관동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8.

26) 최영란, 「상상력 신장을 위한 시 지도 연구」, 대구교육대 석사논문, 1999.

한 편이다. 앞으로는 시인의 상상력이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되었고 적용 되었는지에 관한 실제적인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첫째로 『질마재신화』 27가 서술시로서 갖는 의의를 구성원리를 통해 밝히고 주제와 인물들이 입체적으로 구현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질마재신화』는 설화를 단순히 시의 소재로서만 채용한 것이 아니라 문체나 형식의 원리로 끌어들이면서 전통적 시 양식을 탈피하고 있다. 『질마재신화』의 서술성은 70년대 이후 가속화되기 시작한 시의 장르 해체 현상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70년대 이후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장시와 산문시의 시도는 서정주에게 있어서는 전통의 창조적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나타나게 된다. 전통의 창조적 계승이라는 범주에서 그의 시가 지닌 가장 큰 의의는 상상력의 영역을 확대하여 시의 새로운 경지를 열어보였다²⁸⁾는 데 있다.

『질마재신화』는 일차적으로 설화유형을 통한 서술성을 들 수 있다. 구비전승과 문헌 전승의 재구술로 재창조된 설화유형들을 통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접근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새로운 창조 과정을 거침으로써 학습자들에게 참신하게 접근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차적으로 구술성의 활용으로 발현된 구비문화적인 특질인 장면의 현장성과 독자성, 연행성

27) 『질마재신화』는 제 1부 「질마재신화」 33편의 시와 제 2부 「노래」 12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다. 2부 「노래」 시편들은 동시와 자유시가 결합된 형태로 제 1부 「질마재 신화」의 시편들과 형식과 내용 면에서 상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제 1부 「질마재신화」의 시편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28) 그의 시가 지닌 가장 큰 의의는 우리 시에서 시어 사용의 폭을 넓히고 상상력의 영역을 확대하여 시의 새로운 경지를 열어보였다는 데 있다. 이승원, 앞의 책, p.225.

을 고찰하여 현대문학에서 발휘되는 구비문학의 의의에 대해 새롭게 모색해보고자 한다. 『질마재신화』에서 판소리 장르와도 밀접하게 연결되는 이러한 서술적인 특징은 이야기가 시가 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질마재신화』의 주제 분석을 통해서 서정주가 『질마재신화』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중심생각을 밝히고 다양한 인물유형 들을 통해 그 주제가 어떻게 입체적으로 형상화되는 지를 주목해보고자 한다. 인물의 유형분석은 서정주 스스로가 분류한 방식에 따르고자 한다. 유학과와 자연주의파, 심미주의파의 분류가 그것이다. 인물의 유형분석을 통하여 그들의 삶과 사고방식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드러난 신화의 흔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둘째로 『질마재신화』에 나타난 신화적 의미²⁹⁾를 고찰해보고 신화를 통해 드러난 상상력의 세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 결과로 신화의 시적 변용양상과 시를 통한 상상력 교수법의 실재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신화는 창조의 여명 태초의 그 순간에 일어난 초인적 계시, 진실하고 성스럽기 때문에 신화는 전형이 되었고 따라서 반복적인 것이 되었다.³⁰⁾ 신화는 신성하고 신비스러운 이야기의 전형이다. 초월적인 힘을 구사하고 삶의 영원성을 갖는 존재들에 대한 신비스러운 이야기가 신화인 것이다.

『질마재신화』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신화는 ‘질마재’라는 일상적인 공간, 서정주 자신이 경험했던 현실적인 시간, ‘질마재’라는 마을에서 직접 살았던 현실적인 인물들을 통해 드러난 신화이다. 가상의 공간에서 가상의 시간 속에서 일어난 신들의 이야기가 아닌 현실에서 직접 경험했던 이야기가 신화로서 의의를 갖는 것은, 서정주 자신의 상상력의 세계로 재창조되어 현실적으로 가능

29) 『질마재신화』에 나타난 이야기는 확실히 미당 자신의 신화다 그는 이 신화를 통해 일상적 시간이 가져다 주는 공간의 의미를 떠나 새로운 창조의 의미를 열기 시작한다. 그가 겪은 경험을 새롭게 그의 시 속에 빚어 놓음으로써 창조의 신화는 시작되는 것이다. 정신재, 「미당신화에 나타난 신화적 의미」, 『시문학』, 1983. 1월. p.104.

30) 정신재, 「미당시의 공간의식」, 동국대 박사논문, 1983. p.104. 재인용

하면서도 불가능한 이야기, 신비스럽지 않으면서도 신비스러운 이야기가 되고 그 속에서 신성성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질마재신화』에서 드러난 상상력은 허황되지도 구태의연한 모습을 지니지도 않는다.³¹⁾ 또한 전통 속에서 재창조된 상상력이기에 학습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난해하지 않으면서 많은 이미지들과 상징을 내포하고 있고 그 속에 원형적인 보편성을 지니고 있기에 학습자들에게 상상력을 교수 - 학습할 수 있는 좋은 학습자료가 된다.

『질마재신화』에서는 시인의 신화적 상상력이 가장 중심이 된다. 7차 교육 과정에 있는 학습자들에게 상상력은 매우 중요한 문학교육 요소가 된다. 먼저 상상력의 교육적 가치를 상상력의 개념과 신화적 상상력의 중요성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상상력의 개념은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그 속에서 신화적 상상력이 교육적으로 왜 필요한지를 고찰해보며 신화적 상상력이 어떻게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신화적 상상력은 원형적인 보편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학습자들이 보다 쉽게 상상력에 접근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된다.

『질마재신화』에서 시인의 독창적인 신화적 상상력이 구체화되는 양상으로 신화적 상상력의 시적변용양상을 알아보려고 한다. 학습자들에게 신화적 상상력이 시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밝혀 신화적 상상력의 학습에 도움이 되고자 함이다.

『질마재신화』의 신화적 상상력의 사례 익히기를 통해서 시인의 상상력의

31) 미당의 시에서 보편적 특질이란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문화를 체험한 사람이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런 보편성은 자칫하면 단순함이나 권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나, 그의 시에서는 단조로움보다는 생명의식이 충일해 있다. 미당은 고향에 있을 법한 순박한 사람들의 이미지를 잊지 않았고, 저마다의 정신세계에 잠재하는 현상을 드러냄으로써 그 유희를 즐기게 한다. 그리고 인간 본래의 정서로 자기 동일화를 시도하고 선한 아름다움으로 음모의 껍질을 벗겨낸다. 이것이 그의 시가 가지는 저력이고 신화라 할 만하다. 정신재, 「시의 신화적 구조와 상상력」, 『시문학』, 1994. 2월. p.124.

기법을 체험한 학습자들에게 신화적 상상력의 실재를 적용해본다. 이는 신화를 새로운 시로 창작하는 과정을 통해 드러내려고 한다. 학습자들이 직접 시를 창작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므로 전인석³²⁾의 (상상력의 환기-상상력의 확장-상상력의 내면화) 상상력 교수방법을 따르고자 한다.

학습자들에게 시가 어렵지 않다고 인식될 때 일차적인 상상력의 발현을 기대해볼 수 있다. 『질마재신화』는 이야기가 담긴 서술시로 학습자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다. 학습자들과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질마재신화』의 서술성은 학습자들의 일차적인 흥미와 상상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좋은 문학작품은 그 안에 빈 공간이 많이 있어서 학습자들이 풍부한 상상력으로 그 빈 공간을 채우게 한다. 『질마재신화』는 이야기 속에 많은 빈 공간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상상력을 교수 - 학습할 수 있는 좋은 학습자료로서 의의를 지닌다. 시인이 『질마재신화』에서 보여주는 상상력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요소들 이지만 구태의 연한 상상력이 아니다. 가장 구체적인 모습을 띠고 있으면서도 구체성을 벗어나 여러 의미를 지닌 상징성을 지닌 것이다. 이에 학습자는 시인의 구체적 경험이 상상력으로 신화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상상력이 현실에서 멀리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가까이 쉽게 눈에 보이는 것임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질마재신화』의 서술성 속에서 학습자들의 상상력을 교수 학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의를 지닌 『질마재신화』를 서술시로서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분석하고 재창조된 신화를 통해 서정주의 상상력이 구체화되는 양상을 밝혀보고자 한다. 더불어 시 속에서 구현된 작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상상력 교수법의 실재를 미흡하게나마 모색해보고자 한다.

32) 전인석, 앞의 책

II. 질마재 신화의 서술성과 주제

1. 구성원리

시에서 서술은 시인이 청자와의 의사소통을 전제로 한 발언 행위로 볼 수 있다. 서술의 주체는 시인의 대리인인 시적 화자이며, 사건은 그의 발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전개된다. 서술에서는 화자의 내면의식을 초점화 하는 서정과 달리 사건 및 상황 요소들이 깊숙하게 개입됨으로써 이야기적인 요소들이 시 전반에 걸쳐 포진한다.³³⁾ 『질마재신화』는 이야기꾼을 전면에 내세워 신화적인 질마재의 이야기들을 풀어나간다. 신화는 구전되어 오던 신비한 이야기이다. 신화는 한 집단이나 민족의 기원 우주와 인간과의 관계, 민족이 살아남기 위한 투쟁, 지도이념, 삶과 죽음, 인간의 미래 등 한 민족 내지 인류전체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³⁴⁾ 그렇기 때문에 신화적 세계는 이야기로 풀어쓸 수밖에 없다. 『질마재신화』가 서술시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1) 설화의 재창조

『질마재신화』의 구성원리는 설화의 재창조이다. 『질마재신화』에서 이야기꾼 화자에 의해서 이야기되는 세계는 신화의 세계이며 이야기의 세계이다. 그렇기에 현대적인 시적장치는 의도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다. 『질마재신

33) 장창영, 「서정주 시 연구 : 형상화 방식과 의식세계를 중심으로」, 전북대 박사논문, 2002. p.135.

34) 이상섭, 『비평용어사전』(민음사, 1995) p.173.

화』에서는 이미지를 비롯한 시적 조형성은 사라지고 이야기의 중심인 인물을 통한 사건의 전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질마재신화』에서 사건의 전개는 주로 설화의 재구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설화의 재구술이라 함은 시인이 이야기꾼처럼 독자에게 설화를 전수하는 듯한 시작태도를 말한다.³⁵⁾ 『질마재신화』는 속신, 전설, 세시풍속, 문헌설화 등 다양한 민간전승을 원텍스트로 하여 재구술 하고 있다. 이들 중 구비전승을 모태로 한 작품들은 대부분 원텍스트를 재구술 하는 형태를 취한다. 이때 시인은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전승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설화는 어느 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이 거쳐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라고 규정할 때 이야기들이 결코 의식의 소산만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설화는 특수정보보다는 보편적이고 반복적인 성격을 나타내기 때문이다.³⁶⁾ 설화의 이러한 무의식성, 보편성, 반복성으로 인해 설화가 인간의 삶의 원형을 제시한다는 근거가 되어 왔다. 또한 설화는 이야기되고 있는 지역의 문화적 특수성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며 그 집단 특유의 전통 · 인습적 관념 혹은 행위를 통틀어 말한다는 점에서 한 민족의 정체성을 반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설화는 개인적 무의식의 세계를 넘어 인류 공동의 시 · 공으로 향하고 문화 종족의 차이를 넘어 원초적 요소 즉 원형으로서 구성된 집단무의식과 연관된다. 『질마재신화』는 이러한 원초적 요소를 원형이미지로 하여 한국인의 의식을 넘어 인류의 의식 속으로 파고들 수 있으며 시공을 초월할 수 있고 그들의 영혼과 교류 할 수 있는 신화의 세계를 드러낸다.

『질마재신화』는 신화나 설화 또는 민담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의 신화적 삶을 나타낸다. 또한 인간이 우주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그 구성원인 것도

35) 김경희, 「미당시에 나타난 설화적 모티브 연구」, 동아대 석사논문, 1981. p. 84.

36) 김미숙, 「『질마재신화』에 나타난 신화적 삶의 양상 연구」, 원광대 석사논문, 1995. p.78

나타낸다. 『질마재신화』에서는 인간들과 사물들이 신은 아니지만 시인에 의해서 신비스럽고 신격화되어 드러난다. 신화적 세계는 신화적으로 밖에 기술되지 않으며 『질마재신화』가 이야기되는 방식은 질마재적 신화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질마재신화』의 세계는 신화이면서 곧 이야기가 될 수 있으며 이 이야기를 시인이 자신의 개성으로 재창조함으로써 이야기가 이야기만이 아닌, 곧 시가 된다. 때문에 『질마재신화』에서 드러내는 세계는 인간과 자연, 무생물과 생물, 성스러움과 속물스러움이 같은 등급으로 질마재라는 단일한 세계 안에 어우러져 함께 있는 세계로 표현되는데 이를 위해 시인은 설화의 재창조라는 구성원리를 택한다. 서정주의 서사에 의한 형상화 방식은 전래 설화의 도입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시인이 작가적 상상력을 매개로 이야기의 진행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기존에 전해오던 내용을 새롭게 재구성 함으로써 현재와 대비시킨 우리 삶의 진정성과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위력을 발휘함과 더불어 독자들에게 사건을 추론하여 시에 생동감과 역동성을 부여할 수 있는 힘을 마련한다.

(1) 구비전승의 재구술

구비전승된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전달할 때 시인은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전승하는 구비전승자의 역할을 취한다. 이때의 시인은 끊임없이 반복하는 구술 형태를 취하는데 이는 구비전승이라는 문학 형태의 특질에서 기인한다. 구비문학에서 일단 획득된 이야기는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반복 재구술 하는 형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구비전승된 이야기를 재구술 할 때 시인은 그대로의 이야기를 전달하지는 않는다. 시인의 의도에 따라 내용에 첨가·삭제를 해서 변용을 가하기 때문에 원텍스트와 동일하지는 않다. 이는 구비전승된 이야기로 창작된 시가 단순한 이야기의 모방이 아닌 ‘시’가 되는 근거

를 마련한다. 『질마재신화』에서 구비전승된 이야기를 재구술한 텍스트로는 <李三晩이라는 神>, <秋史와 白坡와 石顛>, <분지리 버린 불칼>, <박꽃 時間>, <마당房>, <來蘇寺 大雄殿 丹青>, <沈香> 등이 있다.

① 옛날 옛적에 中國이 꽤나 점잖았던 시절에는 <수염 쓰다듬는 時間>이라는 時間單位가 다 사내들한테 있었듯이, 우리 질마재 여자들에겐 <박꽃 때>라는 時間單位가 언젠가부터 생겨나서 시방도 잘 쓰여져 오고 있습니다.

「박꽃 핀다 저녁밥 지어야지 물길러 가자」 말 하는 걸로 보아 박꽃 때는 하로낫 내내 오물었던 박꽃이 새로 피기 시작하는 여름 해으스름이니, 어느 가난한 집에도 이때는 아직 보리쌀이라도 바닥 나진 안해서, 먼 우물물을 동이로 여나르는 연인네들의 눈에서도 肝臟에서도 그 그득한 純白의 박꽃 時間을 우그러뜨릴 힘은 하늘에도 땅에도 전연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혹 興夫네같이 그 걸보리 쌀마저 동나버린 집안이 있어 그 박꽃 時間의 한 귀통이가 허전하게 되면, 江南서 온 제비가 들어 그 허전한 데서 파다거리기도 하고 그 파다거리는 춤에 부쳐 「그리 말어, 興夫네. 五穀百果도 常平通寶도 金銀寶貨도 다 그 박꽃 열매 바가지에 담을 수 있는 것 아 닌갑네」 잘 타일러 알아듣게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꽃 時間은 아직 우구러지는 일도 뒤틀리는 일도, 덜어지는 일도 더하는 일도 없이 꼭 그 純白의 金質量 그대로를 잘 지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꽃 時間> 전문³⁷⁾

②우리 都市 사람들은 거의 시방 두 가지의 房---溫突房하고 마루房만 쓰고 있지만, 질마재나 그 비슷한 村마을에 가면 그 土房도 여전히 잘 쓰여 집니다. 옛날엔 마당 말고 土房이 또 따로 있었지만, 요즘은 번거로워 그 따로 하는 대신 그 土房이 그리워 마당을 갖다가 代用으로 쓰고 있지요. 그리고 거기 들이는 정성이사 예나 이제나 매한가지지요....

.... 廣寒樓의 石鐘 속의 春香이 낮바닥 못지않게 반드럽고 향기로운 이 마

37) 서정주, 『未堂 徐廷柱 詩全集 1』 (민음사, 1991) p.359.

당 土房. 왜 아니야. 우리가 일년 내내 먹고 마시는 飲食들 중에서도 제일 맛있는 풋고추 넣은 칼국수 같은 것은 으레 여기 모여 앉아 먹기 망정인 이 하늘 온전히 두루 잘 비치는 房.... 不淨한 곳을 지내온 食口가 있으면, 여리 더럽이 타지 말라고 할머니들은 하얗고도 짠 소금을 여기 뿌리지만, 그건 그저 그만큼한 마음인 것이지 迷信이고 뭐고 그럴려는 것도 아니지요.

〈마당房〉 일부³⁸⁾

③ 여름 하늘 쏘내기 속의 천둥 번개나 벼락을 많은 질마재 사람들은 언제부터가 무서워하지 않는 버릇이 생겨 있습니다...

邊山의 逆賊 具蟾百이가 그 벼락의 불칼을 분지러 버렸다고도 하고, 甲午年 東學亂 때 古부 全琫準이가 그랬다고도 하는데, 그건 똑똑히는 알 수 없지만 罰도 罰도 웬 놈의 罰이 百姓들한테 그리도 많은지, 逆賊具蟾百이와 全琫準 그 둘 중에 누가 번개치는 날 일부러 우물 옆에서 똥을 누고 앉았다가, 벼락의 불칼이 내리치는 걸 쥘싸게 붙잡아서 몽땅 분지러 버렸기 때문이라는 이야깁니다....

<분지러 버린 불칼> 일부³⁹⁾

④ 沈香을 만들려는 이들은, 山골 물이 바다를 만나러 흘러내려 가다가 바로 따약 그 바닷물과 만나는 언저리에 굵직 굵직한 참나무 토막들을 잠겨 넣어 둡니다. 沈香은, 물론 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이 잠근 참나무 토막들을 다시 건려 말려서 빼개여 쓰는 겁니다만, 아무리 짧아도 2-3百年은 水底에 가라앉아 있는 것이라야 香내가 제대로 나기 비롯한다 합니다. 千年쯤 썩 잠긴 것은 냄새가 더 좋습시요....

... 훨씬 더 먼 未來의 누군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後代들을 위해섭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은 이와 꺼내 쓰는 사람 사이의 數百 數千年은 이 沈香 내음새 攸육 그대로 바짝 가까이 그리운 것일 뿐, 따분할 것도 아득할 것도, 너절할 것도 허전할 것도 없습니다.

38) 서정주, 앞의 책, pp.364~365.

39) 서정주, 앞의 책, pp.357~358.

①의 〈박꽃 時間〉은 질마재 마을에서 통용되는 시간단위인 ‘박꽃 때’라는 구비전승된 관용구를 구술하고 있다. 박꽃이 피고 오그라드는 모양의 변화를 통해 시간을 파악하는 질마재 사람들의 사고는 그들의 시간관이 자연의 법칙에 근거한 시간관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이러한 시간관은 그대로 일상의 자잘한 일들 속에 흡수되어 실질적으로 활용된다. 이야기꾼 화자에 의해 담담하게 일상적인 목소리로 구술되던 이야기는 ‘박꽃 時間’의 ‘박꽃’과 홍부전의 ‘박’을 결합시킨 시인에 의해 재창조된 목소리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저녁밥을 지을 시간인 ‘박꽃 時間’이 되어도 양식이 떨어져 저녁밥을 지을 수 없는 가난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착한 본성을 지키며 산 홍부에게 제비가 금은보화와 오곡백과를 가져다주었듯이 ‘박꽃 時間’을 지키며 자연의 순리를 따라 살아가면 질마재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홍부네와 같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시인의 자기 위안이 녹아있는 것이다. 시인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박꽃이 필 때만큼은 먹을 것이 있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는 극도의 곤궁함을 체념하고 비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과 호흡함으로써 삶을 긍정하며 살아가는 질마재 사람들의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보여준다.

②에서 〈마당방〉은 질마재 전통가옥구조인 ‘마당방’과 그곳에 관련된 습속을 구술하고 있다. ‘마당방’은 서술의 태도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뉜다. ‘마당방’에 대한 기억은 이야기꾼 화자의 어조 변화에 의해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의 공간으로 회귀해 가는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현재의 시점으로 이야기되어지는 부분은 ‘마당방’을 이야기하기 위한 구실을 담당한다. 화자의 어조는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화자의 내밀한 정

40) 서정주, 앞의 책, p.385.

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데 초점이 맞추어 진다. 이것은 청자와 보다 더 친밀한 대화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보다 더 궁극적인 화자의 의도는 지금은 사라져버린 ‘마당방’ 이라는 공간에 대한 회상을 이끌어내려는 의도적인 서술인 것이다. 과거의 공간으로 회귀해 가는 부분에서는 ‘마당방’의 공간적 위치와 특징을 서술한다. 이 역시 화자의 감정이 직접 개입되는 이야기방식을 피하고 ‘마당방’의 풍경을 묘사함으로써 ‘마당방’이 예사로운 장소가 아님을 청자들이 알아차리게 한다. 이러한 서술에 대해 화자는 ‘여기 더럽이 타지 말라고 할머니들은 하얗고도 짙 소금을 여기 뿌리지만, 그건 그저 그만큼한 마음인 것이지 미신이고 뭐고 그럴려는 것도 아니지요’라고 인물의 행위에 대해 시적 화자의 주관적인 의미해석을 덧붙이고 있다. 이것은 독자와의 거리를 밀착시키려는 시인의 의도로 보인다. 화자는 이야기의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의미해석에 독자가 자연스럽게 동화되기를 유도하면서 독자들 스스로가 동화됨을 넘어서는 새로운 의미해석을 내려보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③에서 보이는 문장 종결형의 ‘~다고도 하고’, ‘~다고도 하는데’ 구문에서 알 수 있듯이 질마재에 전해 내려오는 구전설화를 재구술 하고 있다. 이 시에서는 백성을 바라보는 시인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다. ‘별도 별도 웬놈의 별이 백성들한테 그리도 많은지’ 구문을 통해 늘 백성들 에게만 가혹한 통치제도의 모순을 비꼬며 지배층에겐 역적인 구섬백과 전봉준에게 신성을 부여해 신격화 하고 있다. 이는 질마재라는 공간에서는 당연한 일일 것이다. 지배층의 횡포를 상징하는 불같은 우주와 조화하는 질마재 안에서는 신성을 부여받은 구섬백과 전봉준에 의해 단숨에 분질러지는 시늉뿐인 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시인은 질마재 사람들이 억압적인 제도와 법칙에 대응하는 모습을 구술설화를 통해 독자들에게 보여준다.

④의 <沈香> 이야기는 천년이라는 시간동안 이어진다. 천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동안 마을 사람들은 훨씬 더 후대 사람들을 위해 침향을 만든다. 시인은 침향을 만드는 사람과 꺼내는 사람 사이의 조화를 드러낸다. 그들은 '꼬옥 그대로 바짝 가까이 그리운 것일 뿐'이다. 미래의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사람들, 미래에도 과거의 그들과 소통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미 시간을 초월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를 구술하고 있다.

<박꽃 時間>이나 <마당房>의 시들을 보면 전통적인 생활의 실상을 이야기를 통해 사실적으로 드러내면서 가난하지만 인간과 세계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삶의 정신적인 여유를 잃지 않았던 질마재 사람들의 삶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한 긍정적인 시각은 하층민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각인 <분지러버린 불칼>에서도 드러난다. <沈香>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한 시간의식을 통해 영원한 시간의식을 가지고 있는 질마재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다.

민간전승의 재구술은 개인적인 체험의 첨가가 위의 시들처럼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인 체험의 첨가가 텍스트 전면에 걸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이 유형의 시는 민간전승을 개인적인 체험으로 재문맥화한 것으로 이야기된다. 이런 경우 원텍스트 속의 3인칭 인물 대신 시적 자아가 주인공이 되어 1인칭으로 발화함으로써 내면의식의 덧붙임이 가능해지고, 또한 하나의 목소리 안에 설화와 시, 과거와 현재의 시 · 공적 격차가 융해되고, 민간전승의 집단무의식과 개인의 개성적인 내면의식이 융합될 수 있게 된다.⁴¹⁾ 이처럼 시간의식이 융해되고 한 목소리로 개인의 내면의식이 융합됨을 통해 시인은 자신의 개인적 해석을 시 전체를 위한 더 큰 시각으로 채운 다음 개인적인 경험을 그 해석의 연장선상에 놓게 된다. 그러므로 독자들에게 시인의 개인적 체험은 질마재 사람들의 전체의 체험과 동일하게 여겨지게 된다.

41) 주 옥, 「서정주 시의 설화수용양상 연구」, 서강대 석사논문, 1982. p.44.

개인적 체험의 결과가 시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작품들로는 〈海溢〉, 〈그애가 물동이의 물을 한 방울도 안 엮지르고 걸어왔을 때〉, 〈외할머니의 뒤안 뒷마루〉, 〈내가 여름 학질에 여러 직 앓아 영 못 쓰게 되면〉, 〈꽃〉, 〈大凶年〉 등이 있다.

① 바닷물이 넘쳐서 개울을 타고 올라와서 삼대 울타리 틈으로 새어 옥수수밭 속을 지나서 마당에 흥건히 고이는 날이 우리 외할머니네 집에는 있었습니다...항시 누에가 실을 뽑듯이 나만 보면 옛날이야기만 무진장하시던 외할머니는, 이때에는 웬일인지 한 마디도 말을 앓고 벌써 많이 늙은 얼굴이 옅은 노을빛처럼 불그레해져 바다쪽만 멍하니 넘어다보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 외할아버지는 배를 타고 먼 바다로 고기잡이 다니시던 漁夫로, 내가 생겨나긴 전 어느 해 겨울의 모진 바람에 어느 바다에 선지 휘말려 빠져 버리곤 영영 돌아오지 못한 채로 있는 것이라 하니, 아마 외할머니는 그 남편의 바닷물이 자기집 마당에 몰려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도 못하고 얼굴만 붉어져 있었던 것이겠지요.

〈海溢〉 일부⁴²⁾

② 내가 여름 학질에 여러 직 앓아 영 못 쓰게 되면 아버지는 나를 업어다가 산과 바다와 들녘과 마을로 통하는 외진 네 갈림길에 놓인 널찍한 바위 위에다 엮어 버려 두었습니다. ...

누가 그 눈을 깜짝깜짝 몇천 번쯤 깜짝거릴 동안쯤 나는 그 뜨겁고도 오슬오슬 추운 바위와 하늘 사이에 다붙어 엮드려서 우아랫니를 이어 맞부딪치며 들들들떨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게 땀할 때쯤 되어 아버지는 다시 나타나서 훌이불에 나를 들들 말아 업어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고스란히 성하게 산 아이가 되었습니다.

〈내가 여름 학질에 여러 직 앓아 영 못쓰게 되면〉 일부⁴³⁾

42) 서정주, 앞의 책, p.343.

43) 서정주, 앞의 책, p.350.

③ 동이갓의 물방울이 그 애의 이마에 들어 그 애 눈썹을 적시고 있을 때는 그 애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갔지만, 그 동이의 물을 한 방울도 안 엮지르고 조심해 걸어와서 내 앞을 지날 때는 그 애는 내게 눈을 보내 나와 눈을 맞추고 빙그레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그 애가 물둥이의 물을 한 방울도 안 엮지르고 걸어왔을 때> 일부44)

④ ..그래, 나는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되게 들어 따로 어디 갈 곳이 없던 날은, 이 외할머니네 때거울 뒷마루를 찾아와, 외할머니가 장독대 옆 뽕나무에서 따다 주는 오디 열매를 약으로 먹어 숨을 바로 합니다. 외할머니의 얼굴과 내 얼굴이 나란히 비치어 있는 이 뒷마루에까지는 어머니도 그네 꾸지람을 가지고 올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할머니의 뒤안 뒷마루> 일부45)

①의 <海溢>은 ‘사람이 바닷물에 빠져 죽으면 그 영혼이 바닷물을 타고 육지로 들어온다’는 반혼속신(返魂俗信)⁴⁶⁾을 원텍스트로 해서, 속신에 이야기와 사건을 시인의 개인적 체험과 결합시켜 서사적으로 확장하여 시화한 것이다. 외할머니와 죽은 외할아버지의 만남은 시의 전반부에서 화자의 과거시제로 이루어져 있다. 화자는 ‘망둥이 새우 새끼를 거기서 찾노라고’ 즐거워할 뿐 외할머니가 보이는 행동의 변화에는 무관심하다. 어린 모습의 화자로서는 해일로 인한 외할머니의 변화는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기에 단순한 관찰자로서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후반부에서는 어린 화자에서 어른 화자로 바뀌며 시점도 과거시점에서 현재시점으로 과거의 시간을 회상하는 어조를 취한다. 이때 서야 비로소 화자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던 과거의 추억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재해석의 힘으로 유년기에 단순한 놀이공간에 불과

44) 서정주, 앞의 책, p.346.

45) 서정주, 앞의 책, p.348.

46) 주 옥, 앞의 책, p.15.

했던 외할머니네 집 마당에 밀려온 해일은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의 해후라는 신비적인 의미를 지닌 사건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 시는 반혼속신을 시적 화자가 질마재에서 경험한 개인적 체험과 결합시켜 재구술함으로써 속신에서 보이는 신비성을 한층 더 증가시키고 그 신비성을 현실에서 있음직한 경험적 진실로 탈바꿈해 독자들에게 진실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②의 시 <내가 여름 학질에 여러 직 앓아 영 못쓰게 되면>은 복숭아 잎사귀를 붙이고서 네 갈래 길의 넓은 돌 위에 엮드려 있으면 학질이 낫는다는 속신⁴⁷⁾을 시적 화자의 유년기 체험으로 확장하여 시화한 것이다. 질마재 사람들은 학질을 질병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잡귀로 인식한다. 따라서 무속에서 척사(斥邪)의 신물(神物)로 여기는 복숭아나무의 잎을 환자의 몸에 붙여 놓음으로써 잡귀를 몰아내고자 한다. 또한 수평적 세계⁴⁸⁾와 수직적 세계⁴⁹⁾가 교차하고 조용하는 우주의 중심축⁵⁰⁾이라 할 수 있는 성스러운 장소에 환자를 데려다놓으면 그 신비한 힘에 의해 학질이 치료된다고 믿고 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전혀 터무니 없는 논리이지만 그 속신을 공유하는 질마재에서는 분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⁵¹⁾ 이러한 표면적인 진술 이면에는 자식의 학질을 치료하기 위해 약 한 첩 먹이지 못하고 저절로 낫기만을 기대하며 마을 밖에 방치해 두어야 하는 질마재 사람들의 곤궁함이 드러난다. 이러한 비극적 상황은 그러나 비극 속으로 침잠해 들어가지 않는다. 속신에 대한 질마재 사람들의 믿음은 오히려 신비화 된다. 이것은 시인이 『질마재신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의 힘이다. 비극적인 조건 속에서도

47) 주 옥, 앞의 책, p.15.

48) 들녘과 마을

49) 산과 바다

50) 엘리야데, 이동하역, 『성과 속』(학민사, 1987) p.35.

51) 황숙희, 「서정주의 질마재신화 연구 : 패러디 양상을 중심으로」, 강원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1. pp.25~35.

낙관적인 힘을 발견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질마재 사람들의 삶에 대한 긍정, 이러한 긍정의 힘은 화자를 통한 재구술로 시화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③과 ④의 시는 시인의 유년기 체험이 시적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일화로 재문맥화한 작품이다. 시인에게 어린 시절의 한 추억으로 남아있는 그 아이는 시인이 좋아하던 아이였을 것이다. 그 아이는 물동이의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을 때만 시적 화자에게 눈을 맞추고 소리 없이 빙그레 웃는다. 그 웃음은 시인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는 통로의 기능을 한다. 텃마루는 시적 화자에게 있어 놀이 공간만이 아니라 은신처의 기능을 담당한다. '어디 따로 갈 곳이 없이 된 날'에 화자는 외할머니 뒤편 텃마루를 찾아간다. 그곳은 어머니의 꾸지람도 미치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텃마루는 어느 집이나 있는 공간이지만 이 시에서의 텃마루는 외할머니가 지니는 자애로운 사랑이 깃든 공간이 된다. 시인의 유년기 체험이 결부된 공간은 시인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는 통로가 되는데 <그 애가 물동이의 물을 한 방울도 안 옆지르고 걸어왔을 때>에서는 웃음이 <외할머니의 뒤편 텃마루>에서는 텃마루가 이 소통의 기능을 담당한다.

위의 ①, ②, ③, ④에서 보이는 시들은 모두 시인의 개인적 체험의 결과이다. 그 결과물들은 질마재 마을의 전승된 이야기와 하나가 되어 개인의 체험물 이상인 질마재 마을사람들의 이야기가 되어 버린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시적 화자의 이야기를 통해 한 개인의 경험만을 엿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긍정적인 질마재 마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엿보게 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2) 문헌전승의 재구술

문헌전승을 재구술한다는 것은 시인이 기록으로 전승된 이야기에 새롭게 의미를 해석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해석이란 원텍스트와 텍스트가 유사성을 기반으로 결합하면서 의미적 확장을 통해 텍스트가 생성되는 것을 말한다.⁵²⁾ 이 유형에서는 원텍스트의 인물의 행위와 재창조된 인물의 행위 사이에 등가성이 성립됨을 전제로 한다. 등가성이 성립되면 시인이 자신의 해석을 통해 자신의 시각으로 새롭게 원텍스트의 비어진 공간을 채운 다음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그 해석의 연장선상에 가져다 놓는다. 그래서 시에서는 일부분에 원텍스트를 간단히 언급하고 시의 대부분을 개인적인 체험으로 채워넣게 된다. 『질마재신화』에서 원텍스트인 문헌설화는 개인적 체험 혹은 질마재 사람들의 체험 속으로 전이시켜 보여주게 된다. 대표적인 시로는 〈까치 마늘〉, 〈金庾信風〉, 〈竹窓〉, 〈小者 李 생원네 마누라님의 오줌 기운〉 등이 있다.

① 옛날 옛적에 하늘님의 아들 환웅님이 新婦잠을 고르려고 白頭山 중턱에 내려와서 어쩡거리고 있을 적에, 곰하고 호랑이만 그 新婦잠 노릇을 志望한게 아니라, 사실은, 까치도 그걸 志望했던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곰하고 호랑이가 쑥하고 마늘을 먹으면서, 쓰고 아린 것 잘 견디는 사람되는 연습을 하고 있을 때, 사실은 까치도 그 옆에 따로 한 자리 벌이고 그걸 해 보기로 하고 있긴 있었지만, 쑥은 그대로 먹을 수가 있었어도, 진짜 마늘은 너무나 아려서 차마 먹지를 못하고 안 아린 까치 마늘이라는 걸로 代用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까치 마늘은 陰三月 보리밭 속에 겨우 끼어 꽃이 피는데, 하늘빛은 어느 만큼 하늘빛이지만, 아주 웃기게 가느다란 분홍줄이 거기 그어져 있습니다. 이걸 물론 까치하고 아이들것이지요만 무엇이 보고싶기사 女中二學年짜리만큼 무척은 무척은 보고 싶은 것이지요.

〈까치 마늘〉 일부⁵³⁾

52) 정형근, 「질마재신화 연구 : 상호텍스트와 텍스트의 충돌」, 서강대 석사논문, 1999. p.39.

② ...옛날에 新羅 적에 智度路大王은 연장이 너무 커서 짝이 없다가 겨울
늪은 나무 밑에 長鼓만한 똥을 눈색시를 만나서 같이 살았는데, 여기 이 마
누라님의 오줌 속에도 長鼓만큼 무우밭까지 鼓舞시키는 무슨 그런 신바람도
있었는지 모르지. 마을의 아이들이 길을 빨리 가려고 이 댁 무우밭을 밟아
질러가다가 이뎁 마누라님한테 들키는 때는 그 오줌의 힘이 얼마나 센가를
아이들도 할수없이 알게 되었읍니다....

〈小者 李生원네 마누라님의 오줌 기운〉 일부⁵⁴⁾

①의 〈까치 마늘〉은 단군신화를 원텍스트로 하고 있지만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일반적인 단군신화의 이야기가 아니다. 시인의 재해석으로
인해 새로운 이야기로 탈바꿈되어 독자들에게 구술되기 때문이다. 환웅의 신
부감 후보로 곰과 호랑이만이 아니라 까치를 추가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
운 인물의 등장은 '까치 마늘'이라는 식물의 이름 때문이다. 까치 마늘과 단군
신화는 인과관계가 없다. 그러나 시인은 작가적인 상상력으로 곰을 웅녀가 되
게 한 식물이 마늘이었다면, 까치가 먹었던 마늘이 '까치 마늘'이었을 것이라
고 추측하여, 단군신화에서 까치도 까치마늘을 먹으면서 환웅의 신부가 되기
를 원했을 것이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하게 된다. 이 시에서 '마늘'이라는
식물을 매개로 원텍스트와 새롭게 구술된 이야기 사이에 등가성을 생성하고
까치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이유를 마늘처럼 독성이 강
해 쓰고 아리지는 않지만 나뉘대로 까치마늘을 먹으면서 견뎌내었기 때문에
상냥한 본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이야기는 행간 속에 삶
이라는 것은 단순하고 쉬운 것만이 아님을 드러낸다. 마늘을 먹으며 쓰고 아
린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것처럼 삶에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
려움을 극복하는 것에 대한 긍정을 담고 있는 것이다.

53) 서정주, 앞의 책, pp.355~356.

54) 서정주, 앞의 책, p.345.

②의 경우 원텍스트인 『삼국유사』 권이 기이(奇異) 제1 <지철로왕 설화>에서 지철로왕의 색시가 눈 뚱이 장고만 했듯이 질마재 마을의 이 생원네 마누라님의 오줌 기운은 무밭을 고무시킬 만큼 세다는 것이다. 배설은 땅을 비옥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삶의 생명력이나 창조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바흐친은 성기와 배설행위를 ‘물질적인 육체적 원칙’에 기초한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여기서 ‘물질적인 육체적 원칙’이란 인간의 구체적인 신체와 그 기능에 관한 원칙을 가리킨다. 바흐친은 라블레가 인간의 신체와 그 이미지를 작품 속에 형상화할 때에 육체의 하위층위만을 강조하는 점에 주목하고 이것은 그동안 부정적으로 여겨졌던 육체의 하위층위에 대한 긍정화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았다.⁵⁵⁾

『삼국유사』 설화속의 장구만한 뚱이나, <小者 李 생원네 마누라님의 오줌 기운>에서 의 오줌은 모두 생산력, 생명력, 창조력 등과 관련을 맺고 있다. 그리고 성기 역시 인간의 창조적 행위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제일로 무성하고 밀둥거리가 굵은 마누라님의 무밭은 바로 이와 같은 풍요와 생명력의 상징으로 설화속의 지철로왕의 연장과 등가물이 된다. 이 시에서 시인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비어나 속어를 시어의 차원으로 격상시킴과 동시에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주변적인 것에 대한 긍정이다. 이러한 긍정은 화자가 새롭게 의미를 해석한 무우밭에서 극대화 된다. 보통사람의 눈으로는 그냥 평범한 무우밭에 지나지 않지만 시인의 눈으로 재해석되어 긍정의 의미가 덧칠해진 무우밭은 풍요와 생명력의 상징으로 탈바꿈되는 것이다. 화자는 여기에 ‘그 오줌의 힘이 얼마나 더울까를 똑똑히 잘 알 밖에 없었습니다’라는 주관적인 어조를 덧붙여 독자들에게 풍요와 생명력의 상징인 무우밭의 근원이 되는 ‘오줌’의 기운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마음껏 긍정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하는 힘을 마련한다.

55) 김육동, 『대화적 상상력』 (문학과 지성사, 1999) pp.249~250.

설화 속에 봉인된 의미들을 새롭게 재구술하여 그것을 시인 자신이 어린 시절에 살았던 마을의 삶의 이야기들과 결합시킴으로써 『질마재신화』의 이야기들은 제한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동일성을 획득함과 동시에 항구성을 갖게 된다. 시인에 의하여 새롭게 재구술된 이야기들은 독자들에게 상상력의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 비어있는 공간을 독자들 스스로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남아있게 된다. 시인은 이러한 재구술을 아름다운 어조로 형상화된 시어를 사용하지 않고 투박하면서도 거친 지역 방언을 직설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바흐친에 의하면 패러디에는 카니발화 된 언어가 사용되는데 이는 민중들의 일상적 구어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지배계급에 의해 사용되는 언어가 공식적인 언어라고 한다면 일반대중에 의해 사용되는 욕설이나 상소리 등의 일상어는 비공식언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비공식적 언어는 공식적인 언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습이나 형식 혹은 품위와 같은 규범을 의식적으로 깨뜨리고자 한다.⁵⁶⁾ 『질마재신화』에서 시인이 거칠고 투박한 지역 방언을 직설적으로 사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질마재신화』에서 드러나는 소박한 사람들의 삶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그들의 긍정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전략으로 시인은 가장 질마재 사람들다운 언어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새롭게 덧칠해 재구술하는 것이다.

2) 구술성의 활용

『질마재신화』의 또 하나의 구성원리는 구비문학적인 특질인 구술성의 활용에서 드러난다. 『질마재신화』에서 서술되는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방식은 전통의 방식을 그대로 빌려왔기에 의의가 있다. 『질마재신화』는 구비문학적인 특질을 많이 담고 있다. 장면의 현장성이나 독자성, 연행성 등이 그것이다.

56) 김옥동, 앞의 책, p.256.

이들 모두는 판소리의 특징이며 동시에 구술성의 활용으로 볼 수 있다. 판소리는 창자에 의해 청중들과 소통의 행위를 한다. 소통의 과정에서 창자의 개성이나 청중들의 흥미에 따라 판소리의 내용은 적절하게 변용을 거치게 된다. 이는 구비전승 되던 판소리가 청중들에게 끊임없이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현대에서 시는 독자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왔다. 물론 그것은 70년대 이후에서 비롯된 장르의 해체문제와도 관련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시가 더 이상 독자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서정주가 『질마재신화』에서 구비적 설화를 도입한 이유도 독자와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각한데서 비롯된다. 독자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서정주는 ‘액션’이라고 그 스스로가 칭하는 이야기를 도입한다. 그가 말하는 시의 액션은 이야기, 그것도 작가의 체험과 관련된 가족적인 자연 이야기이다. 그는 그 이야기에 신화적인 세계를 새롭게 재창조해서 입히고 서정주 자신으로 대변되는 이야기꾼 화자를 통해 신비스럽게 이야기를 이끌어 가고 있다. 그렇기에 김준오는 『질마재신화』의 산문성은 독자를 끌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시의 소외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말한다.⁵⁷⁾ 시의 소외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산문성을 하나의 축으로 택한 서정주는 독자와의 소통을 위해 전통의 구비문학적인 특질인 장면의 현장성과 독자성, 연행성을 선택하여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관심을 끌며 독자들과의 소통을 시도한다. 그와 더불어 이야기에 시적변용인 주관적인 정서와, 어휘의 반복, 대화체의 도입을 통해 드러나는 리듬감을 덧붙임으로써 『질마재신화』가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가 됨을 보여준다.

(1) 장면의 현장성과 독자성

강희근은 『질마재신화』는 시가 구어체에 가깝고, ‘나’, ‘너’, ‘자네’, ‘그대’,

57) 김준오, 『시론』(문장사, 1982) p.301.

‘우리’ 등의 인칭대명사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말의 호흡이 길어지고 있으며, 서술격 조사나 어미, 연결어미 그리고 접속부사 등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고⁵⁸⁾ 말하며 서술성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 이러한 서술성은 장면의 현장성과 그대로 연결된다. 『질마재신화』는 시를 통한 이야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보다도 서술성에 많은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야기이기에 자칫하면 단조롭고 지루할 수가 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질마재신화』는 ‘~입니다. ~겠지요.’와 같은 구어체 문장을 사용하는데 이는 이야기꾼 화자가 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느껴진다. 구어체를 통해 표현되는 이야기의 서술성은 대화를 부분부분 삽입하여 호흡이 긴 산문문장이 갖는 단조로움을 극복하고 현장감 있는 생동감을 준다. 그래서 독자들은 직접 시적 화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장면을 상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 애가 샘에서 물동이에 물을 길어 머리 위에 이고 오는 것을 나는 항용 모시밭 사잇길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동이갓의 물방울이 그 애의 이마에 들어 그 애 눈썹을 적시고 있을 때는 그 애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갔지만, 그 동이의 물을 한 방울도 안 엇지르고 조심해 걸어와서 내 앞을 지날 때는 그 애는 내게 눈을 보내 나와 눈을 맞추고 빙그레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아마 그 애는 그 물동이의 물을 한방울도 안 엇지르고 걸을 수 있을 때만 나하고 눈을 맞추기로 작정했던 것이겠지요.

〈그 애가 물동이의 물을 한 방울도 안 엇지르고 걸어왔을 때〉 전문⁵⁹⁾

시적 화자는 구어체로 담담히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그 이야기가 전해주는 사건에 따라 독자들은 ‘그 애’와 그 애를 바라보는 이야기꾼 화자인 시적 화자의 시선을 눈으로 쫓게 된다. 그러면서 마치 광고의 한 장면을 보듯이 그대

58) 강희근, 「서정주시의 서술성에 대하여」, 『월간문학』, 1984. 1월. p.130.

59) 서정주, 앞의 책, p.346.

로 머릿속으로 그려 넣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장성은 〈姦通事件과 우물〉, <新婦>에서 극대화 된다.

① 姦通事件이 질마재 마을에 생기는 일은 물론 꿈에 떡 얻어먹기같이 드물었지만

... 「누구네 마누라하고 누구네 男丁네하고 붙었다네 !」 소문만 나는 날은 맨먼저 동네 나팔이란 나팔은 있는대로 다 나와서 <뚜왈랄랄 뚜왈랄랄> 막 불어자치고, 팽과리도, 징도, 小鼓도,북도 모조리 그대로 가만 있진 못하고, 통기쳐 나와 법석을 떨고, 男女老少, 심지어는 강아지 닭들까지지 풍겨져 나와 외치고 달리고, 하늘도 아플 밖에는 별 수가 없었습니다.

〈姦通事件과 우물〉 일부⁶⁰⁾

② 新婦는 초록 저고리 다홍치마로 겨우 귀밑머리만 풀리운 채 新郎하고 첫날밤을 아직 앉아 있었는데, 新郎이 그만 오줌이 급해져서 냉큼 일어나 달려가는 바람에 옷자락이 문 돌쩌귀에 걸렸습니다. 그것을 新郎은 생각이 또 급해서 제 新婦가 음탕해서 그 새를 못 참아서 뒤에서 손으로 잡아다리는 거라고, 그렇게만 알곤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 버렸습니다. 문 돌쩌귀에 걸린 옷자락이 찢어진 채로 오줌 누곤 못 쓰겠다며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四十年인가 五十年이 지나간 뒤에 뜻밖에 딴 불일이 생겨 이 新婦네 집 옆을 지나가다가 그래도 잠시 궁금해서 新婦방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新婦는 귀밑머리만 풀린 첫날밤 모양 그대로 초록 저고리 다홍치마로 아직도 고스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안스러운 생각이 들어 그 어깨를 가서 어루만지니 그때서야 매운재가 되어 폭삭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초록 재와 다홍 재로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新婦〉 전문⁶¹⁾

①의 〈姦通事件과 우물〉에서 간통사건이란 큰 사건이 벌어진 마을 풍경을

60) 서정주, 앞의 책, p.352.

61) 서정주, 앞의 책, p.342.

구어체와 대화를 통해 생생하게 드러낸다. 간통 사건은 말하자면 마을의 비극적인 사건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비극적인 풍경은 오히려 꿩과리와 징이 법석을 떠는 잔칫집 같은 분위기의 현장을 드러낸다. 오히려 이렇게 난리를 치니 하늘도 아플 수밖에 없다며 간통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온 마을이 시끄럽게 난리를 치는 그 상황 때문에 하늘이 아프다고 비극을 희화화 해서 드러낸다. 이처럼 『질마재신화』는 비극을 통해서 웃음을 자아내는 긴장과 이완을 반복한다. 이러한 긴장과 이완의 반복은 판소리의 특징인 장면의 현장성에서도 나타난다. 창과 아니리, 비장과 골계를 엮어 배치하여 청중들을 작중 현실에 몰입시켰다가 해방하는 방식으로 표현되는 장면의 현장성과, 판소리가 청중을 자유자재로 울렸다가 웃겼다가 한다⁶²⁾는 이러한 정서적 긴장과 이완의 반복을 지적한 것이다. 긴장과 이완의 반복을 통해 독자들은 시 속의 이야기에 몰입되었다가 웃음으로 풀어지게 된다. 몰입과 풀어짐, 긴장과 이완을 통해 독자들은 리듬을 형성하고 생동감을 느끼며 『질마재신화』가 이야기가 아니라 시임을 다시 한 번 자각하게 된다.

②의 〈新婦〉는 『질마재신화』 맨 앞편에 실린 작품으로 〈新婦〉는 황씨부인당 전설(黃氏婦人堂 傳說)을 소재로 한 것인데 이 전설은 원한을 품고 죽으면 주검이 삭을 수도 없고 눈도 감지 못한다는 속신을 담은 것으로 밀양 아랑각 전설(阿娘閣 傳說)이나 장화홍련전과 유사한 계열의 이야기이다.⁶³⁾ 김윤식은 이 작품을 두고 음탕한 것에 대한, 그리고 부도(婦道)에 대한 유교적 준거를 제거한다면 시적 장치 혹은 시적(詩的) 의미망(意味網)에 걸리는 것은 남녀(男女)의 색정적(色情的)인 것과 초록저고리 다홍치마의 감각성이라고 말하고 또한 이 시 전체를 문제삼을 때는 섬뜩함이 느껴지는데 그 섬뜩함은 주술적 차원에 접맥된 것에서 연유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⁶⁴⁾

62) 김홍규, 『한국문학의 이해』 (민음사, 1992) pp.78~79.

63) 김열규, 『韓國의 傳說』 (三省印刷株式會社, 1980) p.46.

그러나 이 시에는 한 신부의 비극적인 초야와 일생이 함축적으로 극화되어 있다. 이야기꾼에 의해서 서술되는 이야기는 비극적인 신부의 초야 장면을 극대화하며 보여주게 된다. 그 비극의 이면에는 신랑의 오해가 있다. 신부는 오해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억울한 초야를 지낸 세속적 인간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않고 인간신(人間神)의 모습으로 형상화 된다. 일생을 기다림이라는 인고의 생활을 보냄으로써 마침내는 남편으로 하여금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 그 어깨를 가서 어루만지게 하고 그때서야 초록재와 다홍재로 내려앉는 감동을 보여주는 것이다. 독자는 신부의 비극적인 삶의 장면에 긴장하게 되다가 오해로 인한 비극이 풀린 것에 대한 반동의 장면으로 이완을 겪게 된다.

『질마재신화』가 장면의 현장성으로 시의 이야기에 생동감을 불러 일으켰다면 독자적으로 연결된 각각의 독립적인 이야기로 독자들의 상상력은 자극받게 된다. 판소리 창자들은 전승적 이야기의 골격을 근간으로 삼되 그 중에서 특히 흥미로운 부분을 확장 부연하는 방식으로 사설과 음악을 발전시켜 나아갔기 때문에 판소리는 이야기 전체의 흥미나 구성의 긴박성 보다는 각 대목의 흥미와 감동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⁶⁴⁾ 이것은 판소리 장르가 갖고 있는 허점이 아니라 창자와 청중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고 창자의 개성과 청중들의 상상력이 함께 개입될 수 있는 주요한 특성이 된다. 고형진은 서사양식에서는 행위와 사건의 전개가 처음과 중간과 끝이 있는 완결된 플롯을 지니며 이러한 특성은 극의 본질과도 상통하는 것으로 서사양식은 부분부분이 독자성을 지니며 또 삽화적 구성을 지닌다는 점이 극 양식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점이라고 말한다.⁶⁵⁾

64) 김윤식, 「서정주의 『질마재신화』 고 - 거울화의 두 양상」, 『현대문학』 255호, 1976. 3월. p.252.

65) 김홍규, 앞의 책, pp.78~79.

『질마재신화』는 질마재 라는 마을의 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과 그 마을의 전설을 객관적이고도 주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 이야기꾼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이야기다. 그렇기에 질마재 라는 한 공간을 배경으로 하지만 각각의 이야기로 구성된다. 화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된 이야기들은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부분으로 부분부분 확장되어 독자들에게 전달되게 된다.

이러한 독자성은 구비적인 전통의 계승이라는 의의뿐만 아니라 독자와의 관계에서도 의미가 있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독자들은 각각으로 구성된 이야기들을 통해 각각의 세계에 알맞은 상상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시 한편 한편으로 독자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질마재신화』에서 스스로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보들레르가 산문시를 택한 이유와 일맥상통한다.⁶⁷⁾ 보들레르는 하나의 줄거리로 연결되지 않은 산문시를 통해 독자와 작가가 자유롭게 소통하는 방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개방성은 장애에 구애됨이 없는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부분부분 살아있는 각각의 시들은 고정된 하나의 이야기 틀을 가지지 않고 독자적으로 구성되어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질마재신화』는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독자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기본 틀로 독자적으로 이야기가 구성되는 방식을 취한다. 부분이 독자적으로 구성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각의 시편들이 모두 따로따로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질마재신화』라는 시집 제목 하에 하나로 묶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 독자적으로 살아있는 이야기들은 질마재

66) 고희진, 「서정주의 『질마재신화』의 ‘이야기 시’적 특성 연구」, 『예술논문집』, 예술원, 1995. 12. p.38.

67)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곳 아무데서나 중단할 수 있지요. 나는 나의 상념을. 당신은 당신의 원고를, 독자는 그의 독서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작품의 완강한 의지를 필요 없는 복잡한 줄거리의 끝없는 연속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골격 하나를 제거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내 이 구불구불한 환상의 두 조각은 무리없이 서로 연결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 보십시오. 그러면 그 조각들은 각자 따로 훌륭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나희덕, 「서정주의 『질마재신화』 연구 서술시적 특성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논문, 2000. p.31, 재인용

라는 하나의 공통된 이야기로서 전체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렇기에 각각의 시편들은 무리 없이 하나의 이미지 안에 묶이게 된다.

이러한 장면의 현장성과 각각의 이야기의 독자성은 연행성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역할한다. 연행성을 통해서 독자들과의 소통은 극대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연행성

『질마재신화』는 이야기꾼 화자를 전면에 내세워 시인 자신의 체험영역을 넘어서는 신비한 삶의 영역과 사실적인 삶의 영역을 그려내는 이중의 효과를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을 대변하는 이야기꾼 화자는 개인의 내면세계를 들려줄 뿐만 아니라 독자로 대변되는 청자를 그 세계에 포함시킴으로써 상호간의 소통을 교감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 이야기꾼 화자는 이야기를 구술하는데 구어체 어조를 통하여 청자를 시 속에 끌어당기는 힘을 발휘한다. 이러한 구술되는 힘은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여 연극적인 효과를 높이고, 생생한 언어를 구사함으로써 서민의 역동적인 힘을 느낄 수 있게 한다는 특성을 지닌다. 그런 점에서 이야기꾼 화자에 의한 구술성을 기반으로 하는 시들은 주체의 대화를 직접 인용한 말투와 전개 방식을 통해 읽는 이들에게 마치 눈으로 연극을 보는 듯한 부수적인 재미를 동반하게 한다.

아무리 집안이 가난하고 또 천덕구러기드래도, 조용하게 호젓이 앉아, 우리 가진 마지막껏--- 똥하고 오줌을 누어 드는 소망 향아리만은 그래도 서너 개씩은 가져야지. 上監녀석은 궁의 각장 장관房에서 白磁의 梅花를 타고 누지만, 예잇, 이것까지 그게 그 까진 程道여서야 쓰겠나. 집 안에서도 가장 하늘의 해와 달이 별이 잘 비치는 외따른 곳에 큼직하고 단단한 옹기 향아리 서너 개 포근하게 땅에 잘 묻어 놓고, 이 마지막 이거라도 실천 오붓하게 自由로이 누고 지내야지.

이것에다가는 지붕도 休紙도 두지 않는 것이 좋네. 여름 暴注하는 햇빛에 日射病이 몇 개 들어 있거나 말거나, 내리는 쏘내기에 벼락이 몇 萬 개 들어 있거나 말거나, 비 오면 머리에 샷샷 하나로 응텡이 드러내고 앉아 하는, 休紙 대신으로 손에 닿는 곳의 興夫 박잎사귀로나 밑 닥아 간추리는 ---- 이 韓國 <소망>의 이 마지막 用便 달갑지 않나?

「하늘의 별과 달은

소망에도 비친답네」

가람 李秉岐가 술만 거나하면 가끔 읊조려 찬양해 왔던, 그 별과 달이 늘 두루 잘 내리비치는 化粧室 --- 그런 데에 우리의 똥오줌을 마지막 잘 누며 지내는 것이 역시 아무래도 좋은 것 아니겠나? 마지막 것일라면야 이게 역시 좋은 것 아니겠나?

<소망(똥간)> 전문⁶⁸⁾

이 시에서 화자는 ‘않는 것이 좋네’, ‘달갑지 않나?’, ‘좋은 것 아니겠나?’, ‘이게 역시 좋은 것 아니겠나?’, ‘에잇, 이것까지 그게 그 까진 정도여서야 쓰겠나’ 등을 통하여 상황 전개에 전면적으로 개입한다. 이야기의 독창성은 새로운 이야기의 줄거리보다는 그때그때 청중들과 어떤 특별한 소통의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질마재신화』에서는 이를 화자의 개입 방식을 통해 구체화 시키고 있다. 이처럼 화자에 의해서 구술되는 구술어법은 화자와 상황사이의 객관적 거리 유지보다는 감정이입이나 참여적인 속성을 지닌다. 이는 판소리 창자가 사설을 엮어 나가는 것과 닮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꾼 화자의 전달 방식에 따라 내용의 성격이 달라지며, 생동감 있는 전개가 이루어진다. 『질마재신화』에서 이야기꾼으로서 화자 개입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작품으로 <上歌手의 소리>, <말피>, <金庾信風>, <風便의 소식> 등이 있다.

68) 서정주, 앞의 책, pp.368~369.

① ... 「아주 아름다운 바람이 북녘에서 불어와서 山골짜기 수풀의 나뭇잎들을 남쪽으로 아주 이쁘게 굽히면서 파다거리거던, 여보게, <機會 보아서!> 자네가 보고 싶어 내가 자네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줄로 알게」 이것은 <道通이나 해서>가 한 말이었습니다.

「아주 썩 좋은 南風이 불어서 山골짜기의 나뭇잎들을 북쪽으로 멋드러지게 굽히며 살랑거리거던 그건 또 내가 자네를 만나고 싶어 가는 信號니, 여보게 <道通이나 해서!> 그때는 자네가 그 어디쯤 마중나와 서있어도 좋으니」 이것은 <機會 보아서>의 말이었습니다.

...오래 이속하게 소식 없던 벗이 이 마을의 친구를 찾아들 때면 「거 자네 어딜 쪼다니다가 인제사 오나? 그렇지만 風便으론 소식 다 들었네」 이 마을의 친구는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이건 꺾끔인 대로 저 옛것의 꼬리이기사 꼬리입지요.

<風便의 소식> 일부⁶⁹⁾

② 그렇지만, 그 소리를 안 하는 어느 아침에 보니까 上歌手는 뒀간 똥오줌 항아리에서 똥오줌거름을 옮겨내고 있었는데요. 왜, 거, 있지 않아, 하늘의 별과 달도 인제나 잘 비치는 우리네 똥오줌 항아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붕도 맛세 작파해 버린 우리네 그 참 재미있는 똥오줌 항아리, 거길 明鏡으로 해 망건 밑에 염발질을 열심히 하고 서 있었습니다. 망건 밑으로 흘러내린 머리털들을 망건 속으로 보기 좋게 밀어넣어 올리는 쇠빨 염발질을 점잔하게 하고 있어요.

<上歌手의 소리> 일부⁷⁰⁾

③ ... 「그 고약한 별이 내려왔다 무서워서 다시 올라간다. 보아라! 」 ... 마을에서도 제일로 무얼 못먹어서 푹구녁이 마르다가 마르다가 찢어지게끔 생긴 가난한 늙은 寡婦의 외아들 黃떡보는 낫놓고 卍字 그릴 줄 모르는 無識꾼인 데가다 두 눈썹이 아조 찰싹 두 눈썹에 달라붙게스리는 미련하디 미련한 총각 녀석이라,....그만 혼자 相思病에 걸리고 말았겠다...

69) 서정주, 앞의 책, pp.377~378.

70) 서정주, 앞의 책, p.344.

「오매 나 매 한 마리만 구해다 주소」 해서, 논매주기 발매주기 품삯 앞당겨 간신히 그것 한 마리를 구해다가 주었더니 그건 방 아랫목 헛대에다 단단히 못 도망가게 매달아 놓고...

<金庾信風> 일부⁷¹⁾

①의 <風便의 소식>에서 이야기꾼으로서의 화자는 전지적 시점을 갖는다. 이 시의 서술자는 마치 판소리의 창자처럼 사건의 안과 밖에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며 그 이야기에 논평을 가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역할까지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야기를 설명·요약 전달하기도 하고, 독자에게 직접 말을 건네기도 하고, 등장인물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이 시의 서술자는 다양하게 시점을 변화시킴으로서 텍스트와 대화를 유지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여 독자를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 수 있도록 한다.

②의 <上歌手의 소리>에서는 화자가 청자들에게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하듯이 시를 전개해나간다. ‘~뵈셨습니다’에서는 사실을 전달하는 목소리로 ‘~왜, 거, 있지 않아’에서는 화자의 논평이 들어있는 목소리로 ‘~그 노랫 소리는 나온 것 아닐까요?’에서는 청중들의 동의를 구하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한다. 이것은 다양한 청중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다양한 청중들의 반응을 유도하여 청중으로 대변되는 독자들을 적극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시인의 ‘액션’이 시적 화자의 여러 목소리를 통해서도 드러나는 것이다.

③의 이 시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김유신의 이야기에 대한 패러디다.⁷²⁾ 마치 한 편의 판소리를 눈으로 듣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는 이 시는 『질마재신화』에서 연행적 요소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시라고 할 수 있다. ‘오매

71) 서정주, 앞의 책, pp.389~393.

72) 나희덕, 앞의 책, p.43.

오매'를 반복적으로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황떡보 대사의 향토적 방언은 해학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청자들의 웃음을 유발하게 한다. 판소리에서 주로 쓰이는 '잘랑 잘랑', '냉큼', '와르르르' '후다다딱' '번지르르' 등의 의성어와 의태어를 통해 극적 현장감을 높이고 청자들에게 그 장면을 직접 상상하게 하는 힘을 발휘한다. 청각적인 이미지를 시 속에 삽입하였을 때 청자들은 경쾌함과 발랄함을 동시에 느끼게 된다. 이는 『질마재신화』의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긍정적인 목소리와 같이 결합되어 시 하나하나에서 청자들의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처럼 『질마재신화』에서 이야기꾼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이야기꾼으로서의 서술자에 의해 텍스트와 독자간의 소통할 수 있는 거리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꾼 화자가 등장인물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노래함으로써 화자는 연기를 필요로 하게 된다. 시 속에 삽입된 대화의 기법은 이야기꾼 화자의 연기를 보는 듯한 생각을 독자들에게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시 속에 연극적인 요소를 개입시킨 것은 독자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그와 더불어 장면을 상상하게 함으로써 재미와 흥미를 일으키게 하려고 한 때문이다. 이러한 연행적인 기법은 자칫 지루해지기 쉬운 이야기시의 서술성에 역동적인 생동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인물유형의 다양성

『질마재신화』에는 설화 속의 인물들도 등장하지만 그들은 『질마재신화』의 주류가 아니다. 『질마재신화』에서의 주류는 어디까지나 지극히 평범한 질마재 라는 공간에서 살고 있는 마을사람들이다. 개피떡을 잘 만드는 알빚

때, 오줌밭이 센 이 생원의 마누라, 마른 명태를 귀신 같이 먹어치우는 눈들
영감, 똥 항아리에 뜬 똥물을 거울 삼아 머리를 빗질하는 두레패의 상가수들
이 그들인데 이러한 인물들은 『질마재신화』 속에서 주류로 등장하여 빛을
발하게 된다.

시인은 자신이 자란 질마재 라는 마을의 인적 구성을 유학과, 자연과, 심미
파로 분류하고 있다.⁷³⁾ 시인 스스로가 분류한 마을 구성원들은 저마다 각각의
인물 유형들에 알맞은 입체적인 모습으로 『질마재신화』 속에서 드러난다.

1) 유학과

유학파는 유교의 선비 의식이 남아 있는 인물군들로서 질마재 마을의 식자
층을 가리킨다. 눈들영감과 이삼만으로 대변되는 이 사람들은 위엄과 치산(治
山)의 능력으로 자손과 마을을 다져 내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며 한문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어 마을 사람으로부터 외형적인 존경을 받는 일을 담당한다.
이 인물들은 자연주의파나 심미파 인물들처럼 시인의 관심의 대상이 된 인물
들이 아니기 때문에 화자의 목소리에서는 약간의 조롱과 비판적인 목소리가
느껴진다.

① <눈들 영감 마른 명태 자시똥>이란 말이 또 질마재 마을에 있는데요.
참, 용해요. 그 딱딱히 마른 뼈다귀가 억센 명태를 어떻게 그렇게는 머리끝
에서 꼬리끝까지 쪼끔도 안 남기고 목구멍 속으로 모조리 다 우물거려 넘기
시는지, 우아렛니 하나도 없는 여든 살짜리 늙은 할아버지가 정말 참 용해

73) 가만 있자, 질마재 마을 사람들은 대개 무슨 마음, 무슨 마음으로 살고들 있었던가 - 이제와 풀
이해 보니 그 들의 정신을 대개 세 갈래의 유파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유자, 둘째는
자연주의, 셋째는 뭐라 이름을 붙였으면 좋을지 모르겠으나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소고장고팽과
리 잘 치고 멋 내길 좋아하고 또 건달 꽤이기도 했던 사람들 - 일종의 심미파라고 할까. 서정
주, <질마재리의 사상들>, 『내 영원은 물빛 라일락』(갑인 출판사, 1997) p.131.

요. 하루 몇십 리씩의 지게 소금장수인 이 집 손자가 꿈속의 어찌다가의 떡처럼 한 마리씩 사다 주는 거니가 맛도 무척 좋을 테지만 그 사나운 뼈다귀들을 다 어떻게 속에다 따 담는지 그건 용해요.

이것도 아마 이 하늘 밑에서는 거의 없는 일일 테니 불가불 할수없이 神話의 일종이겠읍죠? 그래서 그런지 아닌게 아니라 이 영감의 머리에는 꼭 귀신의 것 같은 낡고 낡은 탕건이 하나 없히어 있었습니다. 똥구녕께는 얼마나 많이 말라 쨌져 있었는지, 들여다보질 못해서 거 까지는 모르지만..... .

〈눈들 영감의 마른 명태〉 전문74)

② 질마재 사람들 중에 글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드물지마는, 사람이 무얼로 어떻게 神이 되는 가를 요량해 볼 줄 아는 사람은 찍으나 많습니다.

李朝 英祖 때 남몰래 붓글씨만 쓰며 살다 간 全州 사람 李三晩이도 질마재에선 시방도 꾸준히 神 노릇을 잘하고 있는데, 그건 묘하게도 여름에 징그러운 뱀을 쫓아내는 所任으로섭니다.

陰 正月 처음 뱀 날이 되면, 질마재 사람들은 떡글씨 쓸 줄 아는 이를 찾아가서 李三晩 석 字를 많이 많이 받아다가 집 안 기둥들의 밑둥마다 다다다다 붙여 두는데, 그러면 뱀들이 기어올라 서다가도 그 이상 더 넘어선 못올라온다는 信念 때문입니다. 李三晩이가 아무리 죽었기로서니 그 붓 기운을 뱀아 녀들 행여 잊었겠느냐는 것이지요.

글도 글씨도 모르는 사람들 투성이지만, 이 요량은 시방도 여전합니다.

〈李三晩이라는 神〉 전문75)

①의 주인공 눈들 영감은 마을 유생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유생은 점잖고 규율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물일 것이다. 그러나 이 인물을 바라보는 화자의 눈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시인은 이들이 어느 정도 위선적인 위치에서 마을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생각들은 화자의 목소리를 빌어 표현된다. 마을 사람들 보다 더 많은 공부를 했으나 그들은 마을의 다른

74) 서정주, 『未堂 徐廷柱 詩全集 1』 (민음사, 1991) p.349.

75) 서정주, 앞의 책, p.351.

사람들을 생각하는 데 있어 오히려 인색하다. 마을 아이들이 곁에서 바라보고 있는 데도 지느러미 하나 나눠주는 법 없이 사나운 뼈다귀 까지 다 삼키는 것이다. 이러한 불만의 목소리는 ‘귀신의 것 같이 낡고 낡은 탕건’, ‘똥구녕께는 얼마나 많이 말라 쨌져 있었는지, 들여다보질 못해서 거까지는 모르지만.....’의 구절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그러한 불만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눈들 영감의 행위는 신화적인 신비한 행위로 묘사된다. ‘이것도 아마 이 하늘 밑에서는 거의 없는 일일 테니 불가불 할수없이 신화의 일종이겠읍죠?’ 이 구절을 통해 눈들 영감의 행위는 신화의 행위가 된다. 전혀 신비스럽지 않은, 음식을 먹는 행위를 시인은 상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결국에는 신비스러운 신화의 행위로 등가시키게 된다.

②의 <李三晩이라는 神>에서의 경우는 <눈들 영감의 마른 명태>에서와는 달리 이삼만이라는 한 개인 전체를 신비화 내지 신격화 시키고 있다. 화자가 이삼만을 바라보고 느끼는 것은 그 인물에 대한 신비함과 경외감이다. 물론 앞의 시에서처럼 유자 계층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조롱의 의미도 같이 포함되고 있다. ‘李朝 英祖 때 남몰래 붓글씨만 쓰며 살다 간 全州 사람 李三晩이도 질마재에선 시방도 꾸준히 神 노릇을 잘하고 있는데, 그건 묘하게도 여름에 징그러운 뱀을 쫓아내는 所任으로섭니다.’ 라는 구절을 통해서 화자가 유자 계층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어느 정도 조롱과 비판의 시각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삼만이라는 인물은 화자의 조롱과 비판의 목소리를 넘어선 신비성을 획득하게 된다. 그것은 『질마재신화』 전체를 아우르는 시인의 긍정적인 목소리가 유자 계층에게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유자 계층은 질마재 사람들의 구성원으로서 뚜렷하고도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것은 시인 자신이 밝혔듯이 관심이 자연주의나 심미

주의에게 실려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유자 계층을 통해서도 시인 즉 화자는 긍정의 목소리를 내세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나 그들 자체는 신비스러움을 간직한 신화화된 인물로 재창조되어 존재한다.

2) 자연주의파

심미파들과 더불어 질마재 마을의 주 구성원을 이루는 이들은 질마재 안에서 평범하고 보편적인 인물들로 질마재에서 태어나 한 평생을 질마재 밖의 공간과는 유리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삶과 사고의 바탕에는 질마재 외의 것이 스며들 여지가 거의 없다. 그러한 점에서 이들의 언어, 표정, 몸짓 등은 시인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경험 속에 고스란히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있는 질마재 마을 그 자체의 삶의 현장이다. 자연주의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알핏택이다.

알피라는 마을에서 시집 와서 아무것도 없는 홀어미가 되어 버린 알핏택은 보름사리 그득한 바닷물 위에 보름달이 뜰 무렵이면 행실이 꺾어져서 서방질을 한다는 소문이 퍼져, 마을 사람들은 그네에게서 외면을 하고 지냈습니다만, 하늘에 달이 없는 그믐께에는 사정은 그와 아주 판판이 되었습니다.

陰 스무날 무렵부터 다음 달 열흘까지 그네가 만든 개피떡 광주리를 안고 마을을 돌며 팔러 다닐 때에는 「떡맛하고 떡 맵시사 역시 알핏집네를 당할 사람이 없지」 모두 다 흠족해서, 기름기로 번즈레한 그네 눈망울과 머리털과 손 끝을 보며 찬양하였습니다. 손가락을 식칼로 잘라 흐르는 피로 죽어가는 남편의 목을 추기었다는 이 마을 제일의 烈女 할머니도 그건 그랬었습니다.

달 좋은 보름 동안은 外面당했다가도 달 안 좋은 보름 동안은 또 그렇게 理解되는 것이었지요.

앞니가 분명히 한 개 빠져서까지 그네는 달 안 좋은 보름 동안을 떡 장사를 다녔는데, 그 동안엔 어떻게나 이빨을 희게 잘 닦는 것인지, 앞니 한 개

없는 것도 아무 상관없이 달 좋은 보름 동안의 戀愛의 소문은 여전히 마을에 파다하였습니다.

방 한 개 부엌 한 개의 그네 집을 마을 사람들을 속속들이 다 잘 알지만, 별다른 연장도 없었던 것인데, 무슨 판손이 있어서 그 개피떡은 누구 눈에나 들도록 그리도 이쁘게 만든 것인지, 빠진 이빨 사이를 사내들이 못 볼 정도로 그 이빨들은 그렇게도 이쁘게 했던 것인지, 머리털이나 눈은 또 어떻게 늘 그렇게 깨끗하게 번즈레하게 이쁘게 해낸 것인지 참 묘한 일이었습니다.

〈알뫼집 개피떡〉 전문⁷⁶⁾

알뫼떡은 과부이다. 알뫼떡은 달이 없는 그믐계부터 다음 달 열흘까지는 개피떡을 만들어 팔고, 보름사리 때가 되어 마을의 밤이 환해지면 바람을 피운다. 마을 사람들은 알뫼떡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도 결코 마을 구성원에서 제외시키는 법이 없다. 달이 기울어서 찰 때까지의 기간동안 그녀가 마을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개피떡 맛이 기가 막히게 좋기 때문이다. 달의 생성주기와 맞물린 그녀의 행위는 마을 사람들에게 질시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가 경외의 대상으로 환원하게 된다. 알뫼떡은 태어나 한 번 사라지면 그만인 일회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천계의 원형을 모방함으로써 천계의 위대한 시간에 주기적으로 돌아감으로써 영원한 시간을 살고 있다. 그녀는 구체적 시간, 즉 역사적 시간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태초의 신화적 시간으로 회귀하여 재생하는 신화적 인물인 것이다. 달은 분명히 차면 기운다. 그러나 기울다가는 다시 찬다. 알뫼떡은 이러한 소멸과 재생을 주기적으로 반복함으로써 모든 인간적 갈등과 대립을 풀고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여주는 알뫼떡이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화자는 줄곧 따뜻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알뫼집 개피떡〉 이외에도 〈小者 李생원네 마누라의 오줌 기운〉, 〈姦通

76) 서정주, 앞의 책, pp.366~367.

事件과 우물》, 〈그 애가 물동이의 물을 한 방울도 안 엮지르고 걸어 왔을 때〉의 인물들도 자연주의파에 속하는 인물군들이다.

① 小者 李 생원네 무우밭은요. 질마재 마을에서도 제일로 무성하고 밭둥 거리가 굵다고 소문이 났었는데요. 그건 이 小者 李 생원네 집 식구들 가운데서도 이 집 마누라님의 오줌 기운이 아주 센 때문이라고 모두들 말했읍니다...

〈小者 李 생원네 마누라님의 오줌 기운〉 일부77)

② ...그 동이의 물을 한 방울도 안 엮지르고 조심해 걸어와서 내 앞을 지날 때는 그 애는 내게 눈을 보내 나와 눈을 맞추고 빙그레 소리 없이 웃었읍니다....

〈그 애가 물동이의 물을 한 방울도 안 엮지르고 걸어왔 을 때〉 일부78)

③ 姦通事件이 질마재 마을에 생기는 일은 물론 꿈에 떡 얻어먹기같이 드물었지만 이것이 어찌다가 走馬炎 터지듯이 터지는 날은 먼저 하늘은 아파야만 하였읍니다. 한정없는 땡땡에 쏘이는 것처럼 하늘은 웨-- 하니 쏘여 몸썩리가 나아만 했던 건 사실입니다.

「누구네 마누라하고 누구네 男丁네하고 붙었다네 !」 소문만 나는 날은 맨먼저 동네 나팔이란 나팔은 있는대로 다 나와서 <뚜왈랄랄 뚜왈랄랄> 막 불어자치고, 팽과리도, 징도, 小鼓도,북도 모조리 그대로 가만 있진 못하고, 통기척 나와 범석을 떨고, 男女老少, 심지어는 강아지 닭들까지지 풍겨져 와 외치고 달리고, 하늘도 아플 밖에는 별 수가 없었읍니다...

〈姦通事件과 우물〉 일부79)

①의 경우 이생원네 마누라는 질마재에서 가장 풍요한 무우밭을 일구어 내는 생명력이 충만한 인물로 시인이 질마재에서 발견한 삶의 원동력이다.

77) 서정주, 앞의 책, p.345.

78) 서정주, 앞의 책, p.346.

79) 서정주, 앞의 책, p.352.

②의 〈그 애가 물둥이의 물을 한 방울도 안 엮지르고 걸어 왔을 때〉에서 화자는 그 자신이 자연주의의 한 인물로 동화되는 모습을 직접 그 애와의 눈 맞춤을 통해 보여준다. 제 3자적 입장에서 바라보고 관찰하는 것을 떠나 동화되고 있는 모습은 화자가 질마재의 자연주의의 인물들에 대해 지닌 애정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③의 〈姦通事件과 우물〉에는 인물이 묘사되는 것이 아니다. 마을 풍경이 간통사건을 일으킨 장본인들을 대신하여 혼란에 빠진 상황을 묘사할 뿐이다. 그러나 화자는 엄청난 사건의 현장을 어둠과 슬픔으로 이야기하는 대신 어떤 생동감 있는 난장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그 곳에 고통이나 위선으로 지칭될 수 있는 시간을 현명하게 처리해내는 질마재의 자연스러운 인물들의 모습이 이 시의 중심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자연주의 계열에 속하는 인물들의 모습은 질마재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범속한 부류에 속한다는 점에서 질마재 마을의 인물 원형과 가장 근접한 인물들이다. 유자 계층과 심미파의 중간자적 위치에 서있는 그들은 인간보다는 자연에, 특히 기능인으로서의 밭갈기, 낚시질 등에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부류이다. 그 유연한 태도는 생활전통에서 이어온 것이다.⁸⁰⁾ 자연과 동화되어 사는 이들을 바라보는 시인의 애정은 곳곳에서 드러나는 시적 화자의 긍정적인 목소리를 통해 보여지고 있다. 때문에 질마재 사람들은 비극적인 간통사건에서도 하늘과 같이 아파하면서도 즐기는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자연과 하나 되었을 때 아이가 눈 맞추는 행위는 의미가 있게 된다. 다른 아무 필요 없이 자연과 하나 된 인물의 배설 행위는 그 어떠한 비료보다도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다.

80) 김윤식, 앞의 책, p.123.

3) 심미과

심미과의 사람들은 질마재의 보편적인 속성을 지닌 사람들과 차별성을 지닌다. 이 사람들은 마을의 중심부 인물이 아닌 변두리의 인간으로 이른바 예인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늘 무엇을 숨기는 양 숨어 사는 어둠의 측면을 대표한다. 이 심미과는 대개 남의 집 머슴이나 혹은 생활력은 전무하여 빈둥거리거나 마누라가 없거나 있더라도 인간 축에 잘 들지 못하는 부류이다. 남색이라든가 기타 반풍속적인 짓이나 하고, 어린애들과 놀고, 몸치장 따위에 깊은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나 이러한 부류는 동네 초상이 난다든가 무슨 축제나 벌어지면 혼자 도맡아 신명을 떨친다. 소위 이들은 변두리 인간들인 것이다. 그러나 실상 이들에 의해 춤이나 농무나 무당굿, 상여의 요령 흔들기, 꽃상여의 치장 등등이 유지되었던 것이다. 여기 한국의 전통적인 예인의 의미가 놓인다.⁸¹⁾

질마재 上歌手의 노랫소리는 답답하면 열두 발 상무를 짓고, 따분하면 어깨에 고깔 쓴 중을 세우고, 또 喪輿면 喪輿머리에 띄약별 같은 늦쇠 요령 흔들며, 이승과 저승에 뻗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리를 안 하는 어느 아침에 보니까 上歌手는 뒀간 똥오줌 항아리에서 똥오줌거름을 옮겨 내고 있었는데요. 왜, 거, 있지 않아, 하늘의 별과 달도 언제나 잘 비치는 우리네 똥오줌 항아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붕도 앓세 작파해 버린 우리네 그 참 재미있는 똥오줌 항아리, 거길 明鏡으로 해 망건 밑에 엮발질을 열심히 하고 서 있었습니다. 망건 밑으로 흘러내린 머리털들을 망건 속으로 보기 좋게 밀어넣어 올리는 쇠뿔 엮발질을 점잔하게 하고 있어요.

明鏡도 이만큼은 특별나고 기름져서 이승 저승에 두루 무성하던 그 노랫소리는 나온 것 아닐 까요?

81) 김윤식, 앞의 책, pp.123~124.

상가수는 질마재 사람들 중 심미파를 대변하는 인물이다. 심미파는 시인의 눈에는 썩 곱고, 그립고, 다정한 것을 가지면서도 자연파와 같이 남 꺼릴 것 없이 의젓하지를 못하고 늘 무슨 일 숨기는 양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칭이다. 그들은 누구네 예쁜 마누라와 예쁜 서방이 그 남편이나 아내하고 눈을 마주 하는 것쯤은 문제가 안되게 스스로 눈을 맞출 법도 하고, 육자배기를 부르며 종이로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 명절날 그들의 머리에 씌우기도 하고, 남색을 하는가 하면, 잔칫날엔 무동을 어깨 위에 세우고 팽과리, 소고, 장구, 징 소리, 나팔 소리를 신나게 울려 대는 사람들이다.⁸³⁾ 질마재의 노래꾼인 상가수는 그러한 심미적 인간의 전형으로 그의 노래는 이승과 저승에 뻗칠 만큼 그 위력이 대단하다. 그런데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그의 노랫소리의 비결은 바로 ‘하늘의 별과 달도 언제나 잘 비치는 우리네 똥오줌 향아리’를 명경삼아 하는 염발질에 있다.⁸⁴⁾

질마재의 상가수는 소리가 없는 날 염발질을 하는데 그 때 사용하는 거울이 똥오줌 향아리이다. 똥오줌 향아리를 들여다보며 염발질을 하는 상가수의 모습은 속스러움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러한 속스러움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이미지가 똥오줌 향아리에 비친 ‘하늘의 별과 달’이다. 영원불변의 빛나는 존재로서의 별과 달은 내면적으로 거울의 이미지를 지닌다. 상가수는 평범한 거울이 아닌 영원성의 거울 앞에서 염발질을 한 셈이며 이 때의 행위는 외적으로 속스러운 것이지만 내적의 성스러움을 형성하며 하나의 신비스러운 행위를 이끌어내게 되는 것이다. 가장 비속함에서 성스러운 신비를 끌어내는 힘

82) 서정주, 앞의 책, p.344.

83) 서정주, 〈질마재리의 사상들〉, 『내 영원은 물빛 라일락』(갑인출판사, 1997) pp.142~144.

84) 나희덕, 앞의 책, p.19.

은 바로 시인의 상상력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 화자는 상가수의 염발
질과 신명을 통해 예술 창조에 대한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보이게 된다.

시인이 절마재 마을 어느 구성원보다도 사랑했던 심미파에는 상가수 외에
한물댁과 무당네 머슴아이가 있다.

① 아이를 낳지 못해 自進해서 남편에게 小室을 얻어 주고, 언덕 위 솔밭
옆에 홀로 살던 한물宅....그래, 바람부는 날 그네가 그득한 옥수수 광우리를
머리에 이고 모시밭 사이 길을 지날 때, 모시 잎들이 바람에 그 흰 배때기를
뒤집어 보이며 파닥거리면 그것도 「한물宅의 힘 때문이다」고 마을 사람들
은 웃으며 우겼습니다.....

그네 얼굴에서는 언제나 소리도 없는 옛비식한 웃음만이 玉 속에서 핀 꽃
같이 병그러져 나와서 그 어려움으론 듯 그 쉬움으론 듯 그걸 보는 男女老
少들의 웃 입술을 두루 위로 약간씩은 비끄러울리게 하고, 그속에 웃 이빨
들을 어쩔 수없이 잠깐씩 드러내놓게 하는 莫強한 힘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
걸 당하는 사람들은 힘에 겨워선지 그네의 그 웃음을 오래 보지는 못하고
이내 슬쩍 눈을 돌려 한눈들을 팔아야 했습니다. 사람들 뿐 아니라, 개나 고
양이도 보고는 그렇더라는 소문도 있어요. 「한물宅같이 웃기고나 살아라」
모두 그랬었지요.

그런데 그 웃음이 그만 마흔 몇 살쯤하여 무슨 지독한 熱病이라던가로 세
상을 뜨자, 마을에는 또 다른 소문 하나가 퍼져서 시방까지도 아직 이어 내
려오고 있습니다.. ..

그래 시방도 밝은 아침에 이는 솔바람 소리가 들리면 마을 사람들은 말해
오고 있습니다. 「하야 저런 ! 한물宅이 일지감치 일어나 한숨을 또 도맡아
서 쉬시는 구나 ! 오늘 하루도 그렇저렇 웃기는 웃고 지낼라는가부다」고.....

<石女 한물宅의 한숨> 일부⁸⁵⁾

② 세상에서도 제일로 싸디싼 아이가 세상세서도 제이를 천한 단골 巫堂
네 집 꼬마둥이 머슴이 되었습니다. .

85) 서정주, 『未堂 徐廷柱 詩全集 1』 (민음사, 1991) pp.373~374.

...사람마다 職業에 따라 이쿠는 눈웃음-그 눈웃음을 이 아이도 따로 하나 만들어 지니게는 되었습니다.

「그 아이 웃음 속엔 벌써 영감이 아흔 아홉 명은 들어앉았더라」고 마을 사람들은 말다허디만 「저 아이 웃음을 보니 오늘은 싸락눈이라도 한 줄금 잘 내리실라는가 보다」고 하는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

「...헤헤에이, 제밀힐 것! 켄스리는 씨될거려 썻능구만 그리여. 가만히 그만 있지나 못허고...」저의 집 主人-단골 巫堂 보고도 요렇게 어른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골 巫堂네 머슴아이> 일부⁸⁶⁾

①의 주인공 석녀 한물댁은 비극적인 여인의 전형으로 질마재의 마을 사람들과는 현저히 다른 인물이다.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해 남편의 사랑도 얻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열병 비슷한 것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 비극적인 여인이다. 그러나 한물댁은 한을 지니지 않는다. 시 속에서 그녀의 비극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은 '한물댁의 한숨'뿐이다. 그러나 그녀의 한숨은 신비롭다. 그 한숨은 병도 다스릴 수 있고, 사람들의 심화된 슬픔도 다스릴 수 있다. 그 한숨의 근원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녀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개인적인 결함 때문이기인하지만 그녀는 그 결함을 힘으로 보상받는다. 그 힘은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힘이기도 하다. 그녀의 정신적인 힘은 남편에게 자진해서 소실을 얻어주는 넉넉한 품성과 질마재 사람들에게 웃음을 생성하게 한다는 데서 엿볼 수 있다. 웃음은 기존의 질서를 뛰어넘으면서 그 질서까지 싸안는 중요한 방식이다. 웃음은 변화시키고 다르게 만드는 창조력이 있다.⁸⁷⁾ 한물댁의 웃음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 한물댁의 웃음은 자신의 비극성뿐만 아니라 질마재 사람들까지도 위로해주는 신비로운 행위로서 표현된다.

86) 서정주, 앞의 책, pp.353~354.

87) 차호일, 「미당시에 나타난 여인상 연구」, 경남대 박사논문, 1999. p.59.

질마재 사람들은 한물댁을 결합있는 인물로 치부하지 않는다. 화자가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은 신비로움과 경외감이다. 유자계층을 바라보면서 약간의 조롱과 비판의식을 통한 경외감을 드러냈다면 시인은 한물댁의 죽음이라는 불행한 사건을 통해 신비로움과 경외감을 보여준다. 이 신비스러움을 통해 한물댁은 한 인간이 아니라 여신의 모습으로 화자와 마을 사람들에게 인식된다. 한물댁의 이러한 신비스러운 능력은 한물댁의 웃음에 자연물 까지도 동화시키는 데서 보여지는 데 이러한 힘은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고 그것을 충만한 생명력으로 바꿀 줄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한물댁이 우주와 자연과 조화되는 신비스러운 힘은 바로 그것에서 나오는 것이다.

②의 무당집 머슴아이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인 '웃음'을 가지기 전에는 늘 무슨 일 숨기는 양 살아가야하는 질마재에서 가장 싸디 짠 아이이다. 그러나 이 아이는 '웃음'하나로 마을 사람들을 사로잡는 존재가 된다. 그 웃음은 평범한 웃음이 아니다. 신성을 부여받은 특별한 웃음이다. 이 웃음이 무당집 머슴아이가 질마재 안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며 마을에서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시인은 무당집 머슴아이에게 신성을 제공하여 마을에서 가장 천한 존재를 마을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로 승격시킨다. 이는 질마재가 신화의 공간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질마재신화』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평범한 듯 하면서도 어느 곳에서 볼 수 없는 신성성을 간직한 입체적인 인물들이다. 시인은 신성성을 드러내기 위해 또한 질마재 이야기를 신화의 세계로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인물들을 창조해내지 않는다. 『질마재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은 시인 자신의 유년 체험에 기반을 둔 인물들로 평범하고 비속하기 까지 한 인물들의 전형이다. 이러한 인물들은 구비전승되던 시기에는 중요한 인물들로 작품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지만 기록문학의 시대를 넘어오고 근대화를 거쳐가는 과정에서 잊혀지

고 소외받는 인물들이었다. 시인은 이러한 인물들에 시적인 초점을 맞추고 그 인물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창조함으로써 독자들과 소통의 한 방편으로 제시한다. 이름 없는 고향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한숨 소리와 비속한 옥지거리까지 시로서 이야기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질마재신화』의 인물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삶의 영원성과 신비

서정주가 유년의 고향인 질마재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 독자들에게 보여주려 한 것은 삶의 영원성과 신비성이다. 시인에게 있어 질마재는 고향인 동시에 회귀의 공간이며, 우주와 만물이 조화롭게 조화된 신비의 공간이다. 신비로운 공간은 위와 아래의 소통을 자유롭게 시도하고 가능하게 만든다. 때문에 그 공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위와 아래로의 삶을 자유롭게 살게 된다. 신비스러운 공간은 천상으로 열려 있는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엘리아데는 영혼은 신체 - 우주의 또 다른 모습인 집이 부서져 위를 향해 열리게 되면 육체로부터 한 층 쉽게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⁸⁸⁾ 질마재는 하늘로 열려 있고 우주와 맞닿아 있다. 질마재 사람들은 그 하늘로 열려 있는 곳에 우주와 맞닿아 있는 곳에 위치한다. 그들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우주로 통하는 문이며 그 문을 통해 지상의 세계와 천상의 세계는 교류하기도 하며 동일한 원리에 의해 움직이기도 한다. 또한 그들 자신이 우주와 직접 교류하기도 한다.⁸⁹⁾ 때문에 질마재에서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다. 이삼만은 오래 전

88) 엘리아데, 이은봉 역, 『성과 속』 (한길사, 1998) p.162.

89) 인선민, 「서정주의 질마재신화에 대한 연구」,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p.30.

에 죽은 존재이지만 질마재라는 공간에서는 위와 아래로의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하기에 신으로 마을사람들에게 여전히 존재한다. 한물댁은 죽었지만 또한 여신의 모습으로 질마재 사람들에게 여전히 인식되고 있다. 질마재에선 평범한 사람들도 삶의 영원성을 지닌 신비스런 존재가 된다. 질마재라는 공간 자체가 하늘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상가수의 노랫소리는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힘을 지닌다. 그것은 상가수가 지닌 똥오줌 향아리가 위치하고 있는 공간의 특성 때문이다. '지붕도 앓세 작파해 버린' 곳은 엘리야데가 말한 위를 향해 열린 소통의 공간이 되는 것이다. 상가수는 천상과 지상이 교류하는 중심 축이 된다. 즉 상가수는 천상과 지상의 교차점에 위치하게 되고 동시에 지상 또는 일상적 존재가 아닌 우주적 존재가 됨으로써 그가 부르는 노랫소리는 단순한 노랫소리가 아니라 이승과 저승으로 뻗칠 수 있는 신비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공간적인 특성은 마당房에서도 드러난다. 마당房은 닫힌 공간이 아닌 열린 공간이다. 항상 하늘을 향해 열린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잡게 된다. 하늘의 성스러운 능력이 미칠 수 있는 신비한 공간이기에 환자를 치료하는 공간이기도 하며 할머니들이 부정타지 말라고 소금을 뿌리는 소중한 공간으로 존재한다.

질마재 사람들은 공간에서 위와 아래의 자유로운 소통을 즐길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만물들과 자유로운 소통을 즐기며 살아가는 신비한 존재로 등장한다. 질마재에서 하늘과 사람과 자연물은 서로 분리되지 않고 동등한 자격인 등가성을 갖는다. 그렇기에 한물宅은 바람이 되어 질마재 사람들을 웃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 간통사건이 일어난 마을에서는 하늘도 사람처럼 똑 같이 아파해야 하는 것이다. 지상에서 비극적 삶을 꾸려 가는 재꾼이가 신의 자격을 가진 존재로 승화⁹⁰⁾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천상과 지상의 교류가 가능

90) 정효구, 「서정주 시에 나타난 신화성의 양상과 그 의미」, 『20세기 한국시와 비평정신』(새미, 1997) p.45.

한 성스러운 공간에서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만물들이 동등한 자격을 지니며 삶의 영원성과 신비성을 획득하게 된다.

시인이 『질마재신화』를 통해 독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은 멀리 떨어진 위대한 존재인 신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가까운 곳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만물과 우주와 조화를 이루며 사는 삶을 통해 삶의 영원성과 신비성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신비스럽지 않는, 영웅들도 아닌 평범한 인물, 아니 그 이하의 인물들을 통해서도 시인이 새로운 시각으로 열린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얼마든지 신비성을 획득하고 영원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함이다.

III. 상상력 교수법의 실제

1. 신화적 상상력의 교육적 가치

1) 상상력의 개념

상상력과 시 교육을 함께 놓고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시 교육에 대한 상상력 개념이다. 상상력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시 교육 전반에 관한 설계가 새롭게 조절되고 통제되기 때문이다. 이는 상상력이 문학의 본질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상상의 힘이 문학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상상력의 개념은 상상력의 범주에 대한 논의와 거의 일치해 왔다. 따라서 상상력의 범주에 대한 논의의 추이를 통시적으로 살펴보면 문학 교육의 기저로서의 상상력 개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본다.⁹¹⁾ 상상력은 원래 정의적 요소가 강하게 내재되어 있고 인간의 정신 영역 중에서도 매우 복합적인 작용을 수반하는 것이어서 과학적 설명이 쉽지 않은 영역이다. 즉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논의하는 상상력은 자체로서는 객관적 관찰이 불가능한 것이다. 다만 경험자료를 통해 유추된 인간능력으로서의 상상력만을 살펴보는 것이 가능할 뿐이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상상력이라는 용어는 각기 다른 맥락에서 사용되었는데, 예술 창조에 수반되는 내면적 정신작용의 측면에서 처음으로 상상력을 거론한 사람은 플라톤이다. 그는 시의 창작원리와 감상 심리에 관해 이야기하면

91) R. L Brett, 심명호 역, 『공상과 상상력』(서울대출판부, 1982) pp.102~104.

서 시적 영감을 자석에 비유했다. 마치 자석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쇠고리들을 연속적으로 연결시키듯이 뮤즈의 여신은 시인과 그의 청중을 모종의 신비로운 흡인력에 의해 연결시킨다는 것이다.⁹²⁾ 이 경우 시란 결국 배워질 수 있는 기술이나 기법, 즉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입신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신성한 무아경이었으며 상상력은 비합리적인 영혼의 기능으로 파악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상상력을 지각을 통해 대상들의 이미지와 그 관계를 형성하는 힘, 곧 이성이 이미지로부터 이데아를 추상하는 힘으로 파악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인 설명을 시도했다.⁹³⁾ 아리스토텔레스는 상상력이 단지 허상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을 감각과 지각을 매개하는 능력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사전적으로 '지성의 창조적인 능력, 정서와 지성, 때로는 감상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체험의 요소들을 종합하고 조직해서 새로운 초월적 가치를 창조하는 능력'⁹⁴⁾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상상력(imagination)이란 용어는 라틴어의 imago(모방하다)에서 연유한 말이다.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상상력이란 용어는 사실이나 진실과는 다르다거나 이성이나 인지와 상대되는 뜻을 지닌 것으로써, 헛된 것, 공허한 것, 미친 것, 사악한 것, 해로운 것, 가짜의 것 등과 거의 동의어로 생각할 정도로 별로 좋지 않은 뜻⁹⁵⁾으로 쓰였다.

그러던 것이 흠스에 오면서 기존의 문학이론에 심리학적인 방향이 제시되기 시작한다. 그는 경험주의적 관점에서 우리의 모든 지식 바로 감각적 경험에서 얻어지는 것이라 믿어, 우리가 지각하는 대상은 우리의 감각 기관에 충격을 주어 정신 내에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고 했다. 그는 판단력이 상이성을 분별

92) Osborne, Aesthetics and Art Theory, 노양진 역, 『마음속의 몸』(철학과 현실사, 2000) p.268.

93) Osborne, Aesthetics and Art Theory, 노양진 역, 앞의 책, p.270.

94)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국어교육학사전』(대교출판, 1999) p.396.

95) 김은진, 『한국 현대시의 탐구』(태학사, 1996) p.38.

해 내는 능력인 반면에 상상력은 유사성을 발견해내는 능력이라고 하면서 상상력은 판단력에 의해 엄밀히 구속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⁹⁶⁾ 이로써 상상력은 더 이상 플라톤주의적 발상에서처럼 광기나 황홀경으로 여겨질 필요가 없게 되었다. 어느 정도 실제 경험이라는 제한에서 벗어난 기억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억의 한 형태로 여겨지게 되었다.

정신이 어떠한 방법으로 창조의 대상이며 지각의 대상인 대상 세계를 포용하는 가의 문제와 더불어 지각과 관련된 상상력 이론을 정교하게 다듬고 체계화한 사람은 코올리지이다. 그는 상상력을 이성에 대립되는 정신작용으로 설정하고, 저급한 가치에 속하는 공상과 구별하고 있다. 그는 시인의 시세계가 기계적으로 기억된 자료들의 종합이 아니며, 공상의 한계를 넘어서는 창조적 정신 능력의 산물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상상력을 서로 필연적인 대립 관계에 있는 수동적인 사물과 능동적인 정신을 결합하는 매개적 정신 능력으로 위치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상력은 인간의 직관적 인식 능력과 관련된 일차적 상상력과 인간의 대상에 대한 인식을 언어로 창조하는 능력인 이차적 상상력으로 나뉘며, 이 중에서 이차적 상상력은 시인의 체험을 자각적으로 언어화하는 과정에 작용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상력은 인간의 직관과 자각에 주로 의존하는 차이 때문에 작용면에서 정도의 차이나 방식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⁹⁷⁾ 코올리지는 시인의 내적 자아와 세계⁹⁸⁾ 사이의 본질적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을 상상력으로 보았기 때문에, 언어는 구속일 뿐만 아니라 형성력의 근원이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 사이의 대립과 합일이 일차적 상상력과 관련된 것이고, 이런 초언어적 인식과 언어 사이의 대립과 합일에는 이차적 상상력이

96) R. L Brett, 심명호 역, 앞의 책, p.17.

97) 장경렬 진형준 정재서 편역, 『상상력이란 무엇인가』 (살림, 1997) pp.19~55.

98) 여기에서 의미하는 세계는 물리적의미의 세계가 아니라 관념적 실체로서의 세계이다.

작용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중세 이후부터는 예술이 모방의 기술이 아니라 창조의 산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상상력은 예술적 창조에 작용하여 주로 이미지를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하는 정신 작용을 간주하게 된다. 즉 예술의 창조성이 강조되었던 낭만주의 문학관에 이르러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보다는 감성적인 능력이 중시되면서 상상력이 문학 창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들의 논의를 정리하면, 상상은 현존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이미지를 마음에 갖게 되는 사고 작용을 일컫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전제에서 상상은 사물에 대한 직접적 지각과 구분될 뿐 아니라 추상적인 사고 작용과도 구분된다. 상상은 대상이 눈앞에 있지 않아야 하고, 개념적 추상적이라기보다는 구성적 구체적이기 때문이다.⁹⁹⁾

상상력은 이미지와 어원상에서 비슷한 의미 영역을 가지기 때문에 그 것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바슐라르는 어떤 특별한 물질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동인의로서의 상상력을 설명하여, 대상에 대한 인간의 가치 부여 작용으로서의 상상력과 이미지를 추동하는 힘으로서의 상상력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상상력은 예술적 창조의 원동력으로 교육적인 국면에서는 인간의 창의성이나 지능, 감성 등을 계발하는 정신 작용으로 그 의미 역을 확장하고 있다.¹⁰⁰⁾

2) 신화적 상상력의 중요성

시는 주관적 체험과 상상을 바탕으로 이를 여러 표현기법으로 함축적으로

99) 김창원 정재찬 최지현, 「문학교육과 상상력」, 『한국교원대학교 교과교육공동연구소 연구보고서』, 1999. p.3.

100) 유영희, 「이미지 형상화를 통한 시 창작교육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9. pp.23~32.

표현한 글이다. 때문에 시 교육을 통하여 함축된 언어 속에 숨겨진 의미를 발견해내고 학생들은 상상력을 동원하여 정서적 체험을 하게 된다. 때문에 시를 읽음으로서 인생에 대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되며, 상상력이 풍부해짐에 따라 자신과 사물과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길러진 풍부한 감성은 삶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해주며 인간을 더욱더 인간답게 만들게 한다. 이러한 시교육의 방향은 문학적 상상력을 세련하고, 삶에 대한 총체적 체험을 가능토록 하며, 문학적 문화를 교양한다는 문학교육의 의미와도 부합된다.

상상력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보이는 세계로 재구성해 내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보았을 때 상상력은 개인적 독자성을 요구하면서 그것은 동시에 시대적, 사회적인 보편성을 지닌다.¹⁰¹⁾ 이 점에서 상상력은 인간의 삶의 사회성과 역사성을 반영하고 있다. 횡적인 사회적 관계 맺음과 종적인 역사적 관계 맺음에 의해 인간의 사고방식은 형성되어 가며, 그 사고방식에 기반하여 상상력이 표출되는 것이다. 횡적 종적 사고방식에 기반한 인간의 삶의 양식이 바로 문화이며, 따라서 상상력은 문화적 개념이 된다. 즉 우리는 상상력을 어떤 문화가 형성될 때 그 뿌리가 되는 마음으로 이해해야 하며, 상상력이란 또한 어떤 자연적 대상을 바라보고 그 대상을 문화적 산물로 만들 때 작용하는 마음¹⁰²⁾으로 파악해야 한다. 상상력이 사고방식에 기반하여 표출되는 것이며, 문화적 개념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음을 인식 할 때 시교육에서의 상상력 계발은 그 기저가 되는 사고방식으로서의 문화적 범주를 넘어설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된다.

상상력이 경험을 추상화하는 과정¹⁰³⁾이라고 보았을 때 경험은 전통을 의미하게 된다. 말하자면 시인의 상상력이 경험에 충실하고 전통에 충실한 상상력

101)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삼지원, 1999) p.74.

102) 경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상상력의 자리 찾기 : 한국문화의 상상력」, 1999. p.7.

103) 김종철, 『시와 역사적 상상력』(문학과 지성사, 1978) p.13.

을 보였을 때 그 상상력은 개인적 동일성과 동시에 원형적 동일성을 획득하게 된다. 김준오는 '그 원형에 우리 자신을 동화시킴으로써 우리는 통시적 동일성의 감각을 가질 뿐 아니라 자아를 더욱 심화 확대 하게 된다'¹⁰⁴⁾고 말한다. 문화를 형성하는 상상력의 원형으로 신화, 종교, 설화 등이 있다. 상상력을 어떤 문화가 형성 될 때 그 뿌리가 되는 마음이라 하든, 자기 문화의 원천에 대한 인식이라 하든 상상력은 문화와 결코 이질적인 개념이 될 수 없으며 나아가 민족성의 또 다른 표현이 된다. 그렇기에 구인환은 '우리 문학에 반영된 집단 무의식을 찾아내고 그로부터 현대를 사는 우리의 생존 방식을 되돌아보는 것은 문학을 통한 민족 주체성의 탐색'¹⁰⁵⁾이라는 교육적 의의를 갖는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신화적 상상력의 중요성이 요구된다.

작가는 창작 과정 속에서 상상과 감정을 다각적으로 조명하여 변화와 발전의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상상력을 통하여 의미 있는 자신의 예술세계를 창조해 나간다. 그러므로 상상력은 작품을 형성시키는 데 있어 하나의 열쇠이며, 작품의 내적 구조적 힘을 이룬다. 이러한 상상력을 토대로 작품을 창조해 내는 작가는 개인의 역사를 만들어낸다. 한 개인은 역사 속에서 존재함과 동시에 역사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된다. 예이츠가 신화적 상상력을 통해 다룬 인간이 추구하는 실재와 역사는 이러한 점에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신화 역시 인간의 삶에 한 원형을 제시하며 개인과 사회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예이츠가 그의 작품 속에서 보여주는 개인의 삶과 죽음, 역사의 흥망성쇠, 그리고 순환과 재생의 과정은 풍부한 신화적 상상력¹⁰⁶⁾에 근거를

104) 김준오, 앞의 책, p.58.

105) 구인환, 앞의 책, p.196.

106) 예이츠의 신화적 상상력은 인간의 삶과 역사의 수용을 갈등과 순환이라는 피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수동 적으로 받아들이는 듯 하면서도, 삶과 역사의 주체를 운명이라는 차원을 넘어 인간의 창조적 기능에 역점을 두고 현실의 비극적 상황에서 낙관론적 환시를 제시하려는 자세를 견지한다. 예이츠는 돌고 도는 인간의 삶 과 역사의 순환 속에서 생성과 성장과 사멸을 반복하는 가운데 전수된 전통의 질서에 의해서만 삶과 역사는 재창조의 근원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비극

두고 있는데 이는 서정주의 『질마재신화』와도 맥락이 닿아 있다. 『질마재신화』에서 보여주는 순환과 재생의 원리, 비극을 통한 희화화, 풍부한 원형 상징은 우리 문학의 신화적 상상력의 세계이다.

신화적 상상력은 유토피아의 공간이나 낙원의식을 동반한 우주적 상상력으로 변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화적 상상력이 현대시에 노출되는 과정은 치열한 현실인식과 자아의 이상적 세계와의 갈등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실의 암울한 시대적 상황이 실존적 자각과 반성을 불러일으키고 이에 대한 해결책의 모색으로 신화적 과정에서 신화적 상상력의 세계가 열리게 된다.¹⁰⁷⁾

서정주는 1960년대의 가난한 고향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유토피아를 모색하고 평범한 신비하지 않는 인물들의 신비화를 통해 이 땅의 새로운 신화를 이야기 하고 있다. 어린 시절의 세계는 이미 경험 했으나 다시 되돌아 갈 수 없는 신비로운 영역으로 존재한다. 때문에 유년기에 체험한 모든 사물은 나름대로 신비로움을 간직하며 순결하고 성스럽게 존재한다. 어린 눈으로 바라본 세상은 때문에 때문지 않은 순수한 생명력과 동시에 성스러움을 간직하게 된다. 서정주가 경험한 질마재는 어린 시절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장소이다. 따라서 시인에게 질마재는 신비로움을 최초로 경험한 공간이며 순수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던 순수하고 근원적인 공간이 된다. 당연히 시인에게 질마재는 단순한 고향의 의미 이상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질마재신화』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힘인 신비하고 성스러운 신화 그 자체의 공간으로 작용한다. 『질마재신화』에서는 유토피아적 공간을 천상과 지상의 대비를 통해 드러낸다. 신비스럽고 성스러운 공간은 하늘로 열려있게 된다. 천

적 환희와 창조적 기쁨을 향유하면서, 비극적 현실과 암흑의 시대에 살지라도 인생의 환희와 영광에 대한 신념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신념을 견지하는 일이 예술가의 창조적 책임임을 예이츠는 확신한다. 신현호, 「W. B. Yeats의 신화적 상상력」, 한국외국어대 박사논문, 1998. p.198.

107) 이명희,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신화적 상상력 연구 - 서정주, 박재삼, 김춘수, 전봉건을 중심으로」, 건국대 박사논문, 2001. pp.2~3.

상은 우주와 연결된 공간이기 때문에 이 성스러운 유토피아적 공간에서 인간은 신비로운 우주를 체험함과 동시에 새로운 신화를 경험하게 된다.

新婦는 초록 저고리 다홍치마로 겨우 귀밑머리만 풀리운 채 新郎하고 첫날밤을 아직 앉아 있었는데, 新郎이 그만 오줌이 급해져서 냉큼 일어나 달려가는 바람에 옷자락이 문 돌쩌귀에 걸렸습니다. 그것을 新郎은 생각이 또 급해서 제 新婦가 음탕해서 그 새를 못 참아서 뒤에서 손으로 잡아다리는 거라고, 그렇게만 알곤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 버렸습니다. 문 돌쩌귀에 걸린 옷자락이 찢어진 채로 오줌 누곤 못 쓰겠다며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四十年인가 五十年이 지나간 뒤에 뜻밖에 판 불일이 생겨 이 新婦네 집 옆을 지나가다가 그래도 잠시 궁금해서 新婦방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新婦는 귀밑머리만 풀린 첫날밤 모양 그대로 초록 저고리 다홍치마로 아직도 고스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안스러운 생각이 들어 그 어깨를 가서 어루만지니 그때서야 매운재가 되어 폭삭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초록 재와 다홍 재로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新婦〉 전문¹⁰⁸⁾

이 작품은 ‘신방’과 ‘문밖’이라는 두 개의 공간을 보여주고 있다. ‘신방’은 성스러운 공간으로 남아있다. ‘신방’은 남녀의 결합을 통해 세속화된 공간으로 나아가는 곳이지만 작품 속에서의 ‘신방’은 남녀의 결합이라는 통과 의례를 거치지 못하였기에 신비스러움을 간직한 공간으로 남아 있게 된다. 그렇기에 ‘신방’안의 질서는 변함이 없이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항구성을 지닌다. ‘신방’은 질마재의 신성성과 맥락이 닿아 있는 동시에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천상의 공간을 획득한다. 성스러운 공간의 신부는 그렇기에 세속과는 단절된 채로 신랑을 기다리는 기다림만으로 존재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세속의 ‘문밖’의 공간은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 떠남과 돌아옴이라는

108) 서정주, 앞의 책, p.342.

과정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신비성을 획득하지 못한다. 정효구는 '신랑은 성스러운 공간을 뛰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 신부와 자신 사이에 놓여 있던 성스러운 논리를 파괴하고 만다'¹⁰⁹⁾고 한다. 즉 천상의 공간이 지상의 공간과의 만남을 통해 성스러움은 파괴되는 것이다. <新婦>에서 천상의 공간이 지상의 공간으로 인해 파괴되는 것은 인간의 세속적인 논리 때문이다. 인간은 세속적인 논리 때문에 성스러운 공간을 떠나게 되지만 결국은 다시 성스러운 공간으로의 회귀를 꿈꾼다. 그러나 완벽하게 세속적인 모습으로 변한 인간은 그 세속성으로 인해 성스러운 공간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성스러운 공간은 우주로 열려 있게 된다. 때문에 인간은 지상에서 천상으로, 천상에서 다시 우주를 경험하게 된다. <新婦>에서 천상의 공간이 우주화가 되지 못한 이유는 하늘로 열려있는 공간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上歌手의 소리>, <마당房>, <내가 여름 학질에 여러직 앓아 영 못쓰게 되면>, <海濼> 등은 모두 천상으로 열려있는 공간을 획득한다. 그렇기에 지상과 천상은 합일되고 시인과 독자들은 시를 통한 신화를 경험하게 된다.

질마재 上歌手의 노랫소리는 답답하면 열두 발 상무를 짓고, 따분하면 어깨에 고깔 쓴 중을 세우고, 또 喪輿면 喪輿머리에 띄약벌 같은 낯쇠 요령 흔들며, 이승과 저승에 뺨쳤읍니다...왜, 거, 있지 않아, 하늘의 별과 달도 언제나 잘 비치는 우리네 똥오줌 향아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붕도 앓세 작파해 버린 우리네 그 참 재미있는 똥오줌 향아리...

<上歌手의 소리> 일부¹¹⁰⁾

주인공 상가수의 노랫소리가 이승과 저승을 넘나들 수 있는 이유는 지상에

109) 정효구, 「서정주 시에 나타난 신화성의 양상과 그 의미」, 『20세기 한국시와 비평정신』(새미, 1997) p. 63.

110) 서정주, 앞의 책, p.344.

서 천상으로 열려있는 공간에 위치한 똥오줌 항아리 덕분이다. 명경으로 비유되는 특별하고 기름진 똥오줌항아리는 '지붕도 앓세 작파해버린' 곳에 위치한 덕분으로 '하늘의 별과 달'도 언제나 잘 비치는 지상에서 천상으로의 합일을 이끌어내게 된다. 지상에서 가장 속되고 더러운 곳에서 누구나 건드리기 싫은 가장 속된 똥오줌 항아리를 시인이 상상력을 통해 성스러운 존재로 신비화할 수 있는 이유는 똥오줌 항아리가 비록 가장 속된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 이면은 새로운 생명을 키워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자양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시인은 이 소중한 생명력의 밑거름에 주목하고 천상으로 열린 공간에 똥오줌 항아리를 위치해 지상에서 천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비성을 추구한다.

질마재는 지상에서 천상으로 천상에서 다시 우주로 수직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공간인 동시에 수직적인 공간과 수평적인 공간의 소통이 가능한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적인 특성은 질마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에 성스러움을 간직하게 한다. 이 마을 사람들은 삶의 끊임없는 되풀이 속에서 우주의 신성한 의미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생리적,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그들이 다루었고, 느꼈고 접촉했고 사랑했던 모든 것이 신성성으로 변할 수 있다.¹¹¹⁾ 때문에 일상적인 공간인 질마재는 신비성을 획득해 신화가 탄생하는 공간으로 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일상적인 공간이 하나의 신화가 되고 시가 될 수 있는 것은 시인이 신화적인 상상력을 통해 열린 눈으로 대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문학교육 특히 시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계발시켜주어야 할 상상력은 우리 민족의 원형적 상징에 뿌리내린 것이었을 때 더 가치가 크다. 원형(Areche Type)이란 상상력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이미지다. 김창근은 '원형

111) 김옥순, 「서정주 시에 나타난 우주적 신비체험 - 화사집과 『질마재신화』의 공간 구조를 중심으로 -」, 『이화어문논집』 12, 1992. p.231.

은 보편적 인간 상황에 대한 전형적인 반응이 집적이요, 어둡고 원시적인 심리가 가지는 본능적 데이터, 즉 실재하나 보이지 않는 의식의 뿌리를 나타내거나 의인화하기 때문에 이의 해명은 바로 본능과 실체의 해명이라는 말이 된다'¹¹²⁾고 하였다. 때문에 원형적 상상력은 신화적 상상력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이를 통해 시적 변용을 확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원형이 하나의 모티브를 어떠한 표상으로 형성시키는 경향이라고 한다면 원형을 통해서 보편적인 이미지를 유출하고 그것을 우주적 차원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하나의 신화적 상상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습자는 익숙한 원형이미지를 통해 쉽게 신화적 상상력에 접근할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시적변용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다시 한번 신화적 상상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게 된다.

『질마재신화』는 신비성과 영원성을 원형상징을 통해 드러낸다. 『질마재신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원형상징은 물을 통해 드러난다. 물은 생산과 풍요의 원동력으로서의 원형을 가진다. 신화학에서 물은 필연적으로 달과 여자와 의미의 관련을 지닌다. 달은 차고 이지러짐을 반복하며 여자에게는 거기에 상응한 생리현상이 존재하고 이 현상이 있을 때에만 생명의 창조가 이루어진다. 달과 여자와 물은 생산력과 풍요의 삼위일체가 되는 것이다.¹¹³⁾ 물의 풍요한 생명력으로서의 원형이미지는 『질마재신화』에서도 동일하게 보이는 이미지다. 『질마재신화』에서는 물, 바다, 우물, 오줌이 이 모두 물의 원형이미지로 작용한다.

....마을 사람들은 아픈 하늘을 데불고 家畜 오양간으로 가서 家畜用의 여물을 날라 마을의 우물들에 모조리 뿌려 메꾸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한 해

112) 김창근, 「한국 현대시의 원형적 상상력에 관한 연구」, 부산대 박사논문, 1992, p.10.

113) 김열규, 『한국의 신화』(일조각, 1976) p.14

동안 우물물을 어느 것도 길어 마지시 못하고, 山 골에 들판에 따로 따로 生水 구멍을 찾아서 渴症을 달래어 마실 물을 대어 갔습니다.

〈姦通事件과 우물〉 일부¹¹⁴⁾

〈姦通事件과 우물〉에서 질마재 마을 사람들은 마을의 우물에 가축용 여물을 부어 우물을 마지시 못하게 한다. 이는 우물의 물이 생명의 창조를 상징하는 원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물이 좋지 않아 마을에 간통 사건이 생겼으니 그 우물을 폐쇄해야 한다는 생각은 신화 시대의 사건과 맞물려 있다. 삼국유사는 혁거세의 비인 알영(閼英)이 알영정이라는 우물 태생임을 밝히고 있다.¹¹⁵⁾ 마을사람들이 생명의 상징인 우물을 폐쇄하는 것은 일정한 시기만큼 생명의 창조를 막아버림으로써 잘못된 생명의 탄생을 막고자 함이다. 그와 더불어 한 개인의 잘못을 집단 전체로 까지 확대해서 개인과 집단의 동질성을 꺾하고 있다. 광재구는 이를 ‘신화가 지닌 고요하고 평화로운 관용의 힘이 마을 사람들의 우물 폐쇄에 있다’¹¹⁶⁾고 한다. 집단과 개인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함께 보내며 새로운 깨끗한 생명의 상징인 ‘生水’로 갈증을 달랠과 동시에 더러운 것은 버리고 깨끗한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려는 질마재 마을 사람들의 염원이 담겨있다. 이는 비극을 비극적인 사건으로 치부해버리지 않고 긍정적으로 회화하해서 바라보려는 신화의 힘과도 부합된다.

물의 이미지와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원형은 달이다. 달도 물과 마찬가지로 생명을 상징하게 된다. 달이 풍요한 생명력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은 여성과 달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달이 차고 이지러짐에 따라 달과 같은 속성을 지닌 여성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생리현상을 갖게 된다. 이는 곧 풍요한 생명을 상징할 수 있는 힘을 마련한다.

114) 서정주, 앞의 책, p.352.

115) 김열규, 앞의 책, p.114.

116) 광재구, 「질마재신화의 서사구조연구」, 숭실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p.48.

알뫼라는 마을에서 시집 와서 아무것도 없는 홀어미가 되어 버린 알뫼택은 보름사리 그득한 바닷물 위에 보름달이 뜰 무렵이면 행실이 꺾어져서 서방질을 한다는 소문이 퍼져, 마을 사람들은 그네에게서 외면을 하고 지냈습니다만, 하늘에 달이 없는 그믐께에는 사정은 그와 아주 판관이 되었습니다.

陰 스무날 무렵부터 다음 달 열흘까지 그네가 만든 개피떡 광주리를 안고 마을을 돌며 팔러 다닐 때에는 「떡맛하고 떡 땀시사 역시 알뫼집네를 당할 사람이 없지」 모두 다 흠족해서, 기름기로 번즈레한 그네 눈망울과 머리털과 손 끝을 보며 찬양하였습니다. 손가락을 식칼로 잘라 흐르는 피로 죽어가는 남편의 목을 추기었다는 이 마을 제일의 烈女 할머니도 그건 그랬었습니다. 달 좋은 보름 동안은 外面당했다가도 달 안좋은 보름 동안은 또 그렇게 理解되는 것이었지요.

앞니가 분명히 한 개 빠져서까지 그네는 달 안 좋은 보름 동안을 떡 장사를 다녔는데, 그 동안엔 어떻게나 이빨을 희게 잘 닦는 것인지, 앞니 한 개 없는 것도 아무 상관없이 달 좋은 보름 동안의 愛의 소문은 여전히 마을에 파다하였습니다.

〈알뫼집 개피떡〉 일부¹¹⁷⁾

알뫼택의 바람기는 달의 차고 이지러지는 속성을 그대로 반영한다. 달이 차는 보름달이 되면 알뫼택은 서방질을 하러 다니고 달이 이지러지는 그믐이 되면 개피떡을 팔러 다닌다. 알뫼택은 달이 차는 동안 자연과 합일하는 자연적 신비체험 즉 심미적 신비체험이 그녀의 서방질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알뫼택은 그냥 지상적인 존재만은 아니다 수직적으로 천상을 향해 한껏 들어올려지고 부풀어 오른 신비체험의 주인공인 것이다.¹¹⁸⁾ 달의 생과 멸은 돌고 도는 영원한 회귀적 성격을 지닌다. 달의 주기와 맞물린 알뫼택도 영원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는 영원한 생명력의 상징이다. 현실적으로 생산을 할

117) 서정주, 앞의 책, p.366~367.

118) 이경희, 「서정주의 시 알뫼집 개피떡에 나타난 신비체험과 공간 달-바다(물)-여성 원형론」, 『이화어문논집』 12, 1992. p.198.

수 없는 그녀는 달과의 합일 이라는 신비한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력을 획득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한물덥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닌 신화적인 세계를 사는 신화적 인물이 된다. 그렇기에 질마재 마을 사람들은 보름과 그믐 동안의 대립을 통해 갈등을 풀고 화해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달의 상승적 분위기는 마을 사람들의 정서의 하강과 이어지고 달의 하강적 분위기는 마을 사람들의 정서적 상승과 맞물리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천상과 지상이 하나의 우주적인 신화의 원리 안에서 전개되고 순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질마재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력을 상징함 과 동시에 하나의 신화적 세계 안에서 우주적인 질서를 지키며 살고 있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정주는 시집 『화사집』에서부터 신화지향성이 강한 시편들을 보이고 있다. 이후 시집 『신라초』, 『동천』, 『질마재신화』는 물론 최근의 시집인 『산시』에 이르기까지 신화는 서정주 시의 원천이 되며 그의 시적 성숙의 과정이 된다.¹¹⁹⁾ 『질마재신화』 속의 인간, 자연, 사물들은 극히 세속적인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들에게서 추출해 낼 수 있는 어떤 정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인의 교감을 매개로 하여 곧바로 신성을 획득하고 신화가 된다. 김열규¹²⁰⁾는 『질마재신화』에서의 신화적인 요소는 개인들의 일화 속에서 드러나는 신비체험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질마재신화』에서의 신화는 일반적인 신들의 이야기로서의 신화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 시인의 상상력을 통해 시적으로 변용된 신화이기 때문이다. 시인이 질마재 이야기를 신화를 통해 하는 것은 시인이 창조해낸 그리고 새롭게 발견해낸 신화적 요소들이 신화가 추구하는 우주와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위해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에 주목

119) 인선민, 「서정주 질마재신화에 대한 연구」,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p.45.

120) 김열규, 「속신과 신화의 서정주론」, 『미당연구』(민음사, 1994) p.52.

하기 때문이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신성을 부여하고 그 신성에 맞는 역할을 시인의 상상력을 통해 부여함으로써 소박하고 단순한 고향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는 신화가 되고 시가 된다.

나보고 명절날 신이라고 아버지가 사다 주신 내 신발을 나는 먼 바다로
흘러내리는 개울물에서 장난하고 놀다가 그만 떠내려 보내 버리고 말았습니
다. 아마 내 이 신발은 벌써 邊山 窠등 밑의 개 안을 벗어나서 이 세상의 온
갖 바닷가를 내 대신 굶이치며 돌아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신발> 일부¹²¹⁾

‘신발’은 시적 화자가 어린 시절 잃어버린 사물이다. 신발을 잃어버리는 일은 누구나 겪게 되는 보통의 평범한 일이다. 하나도 신비스러운 것이 없는 이러한 일이 『질마재신화』에서는 시집의 이름에 걸맞게도 시적 변용을 통해 신화가 되는 것이다. ‘신발’은 원래 시적 화자의 것이었는데 ‘그만 떠내려 보내 버리고’ 만 후로는 주인을 벗어나 어디든 갈 수 있는 신성이 부여된 주체가 되어 버린다. 그렇기에 ‘벌써 변산 窠등 밑의 개 안을 벗어나서 이 세상의 온갖 바닷가’를 ‘내 대신’ 굶이치며 돌아다니고 있을 ‘신발’은 진정한 자아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다른 신발은 그에게는 언제나 ‘대용품’에 지나지 않는다.¹²²⁾이렇게 자아의 상징이 되어버린 ‘신발’은 신성이 부여되어 시적 자아 대신 세상을 체험하고 다니며 우주를 경험하게 된다. 극히 일상적이고도 평범한 소재에서 신성을 부여하고 시를 만드는 탁월한 상상력은 시인에게 있게 된다.

시에 있어서의 상상력은 시적 변용의 중심이다. 따라서 시적 상상력의 문제는 시적 내용물의 뿌리를 밝히는 작업과 동일하다. 시를 상상력의 산물로 볼

121) 서정주, 앞의 책, p.347.

122) 김준오, 『시론』(삼지원, 1995) p.307.

때, 자아와 세계와의 동일성은 이 상상력의 작용에 기인하는 것이며 이는 새로운 하나의 전체를 창조하는 능력으로서의 세계의 자아화에 기여한다는 것이다.¹²³⁾

상상력은 변용 능력을 확대하는 힘을 갖는다. 상상력은 하나의 사물이나 현상에 대하여 새로운 사물이나 현상을 대입할 수 있는 상징적 기능을 갖고 있다. 문자텍스트를 보고 그림 텍스트나 음성 텍스트를 상상하여 나타낼 수 있으며, 문자 텍스트를 다시 그림이나 음성으로 변용하여 나타낼 수 있게 한다. 상상력에 의한 변용은 대상 텍스트에 대한 작품 정보를 재발견 할 수 있게 한다. 변용 텍스트에 대한 2차 변용을 가능하게 하며 재 변용된 텍스트의 평가와 재구성을 가능하게 한다. 즉 상상력은 텍스트를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게 하는 학습자의 능동적 변용 요인이다. 이러한 능동적 변용요인(상상력)이 학습자에게 인식적으로 깊게 뿌리박힌 원형이었을 때 그 변용은 보다 더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일어나 수 있게 하는 힘을 갖는다.

서정주는 질마재 고향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와 마을을 떠도는 설화들에 신화적 상상력을 덧칠하여 시적 변용을 가한다. 기존의 설화 텍스트를 변용하는 것은 자칫하면 단순한 모방이나 흉내내기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뛰어난 시인의 상상력은 이러한 모방이나 흉내내기를 뛰어넘게 된다.

2. 신화적 상상력을 통한 시쓰기 연습

신화는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있는 이야기다. 그 살아있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영감을 불러일으킨다.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은 그것을

123) 김창근, 「한국현대시의 원형적 상상력에 관한 연구」, 부산대 박사논문, 1992. p.3.

통해 새로운 인류의 문화를 창조하는 밑거름으로 삼는다. 박진열은 인간의 단편적일 수밖에 없는 지식들을 뛰어넘어 상징적 체계를 세우고, 삶의 세계를 보다 더 풍부하게 하는 신화는 아득한 과거로부터 현재, 현재에서 다시 영원한 미래로 연결되는 집단 공유의 불가사의적 심상(心傷) 이라고 한다.¹²⁴⁾ 현재는 과거와 단절될 수 없다. 현재는 또한 미래로 이어진다. 이러한 영원한 시간 속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신화는 거부할 수 없는 그리고 잊혀지지 않는 존재로 남아있게 된다. 시 · 공간을 초월한 풍부한 상징성을 가지고 우리들 곁에 존재하는 신화는 순환적인 상상력을 가진 존재다. 그러기에 학습자들에게 상상력을 보다 쉽게 교수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순환적인 상상력은 바슐라르가 말한 역동적 상상력¹²⁵⁾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상상력은 학습자들의 상상력을 발현시키는 주체가 된다. 정신재는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지만 근본적으로는 인간 자체를 위하여 존재하듯이 신화적 구조체계가 창작체계 속에서 얼마든지 승화, 발전시킬 수 있다’¹²⁶⁾고 보았다. 상상력은 시의 가장 강력한 힘이다. 가장 강력한 무기인 상상력은 신화를 감상하고 이해하는 것에서도 작용하지만 신화를 시로 바꾸는 시적 변용에서도 제일 큰 힘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상상력을 통해서 학습자들에게 시를 창작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주고자 한다.

학습자들에게 신화를 새롭게 시로 창작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신화적 상상력을 향상시키려면 상상력을 촉진하는 능력이 교사에게는 요구된다. 학습자는 뛰어난 시인이 아니기에 신화를 시적으로 변용하여 새로운 시를 창작하는 데는 여러 단계의 순차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지도 방안으로 상상력을 개인

124) 박진열, 「신화적 상징체계를 통한 서술적 표현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1996. p.9.

125) 바슐라르는 역동적 상상력이 인간의 정신 활동 가운데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가며 존재의 근본적인 움직임의 동력이 되며, 무의식의 충동과 의식 속에서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126) 정신재, 「한국 현대시의 신화적 원형연구」, 『정신재 문학비평집』(국학자료원, 1995) p.79.

의 경험과 결부시켜 환기 시키고 환기된 상상력을 우주적 차원으로 확장시키고 상상력을 학습자들에게 내면화 시켜 시를 창작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상상력 자체는 학습자의 개별적인 능력이다. 교사가 학습자들의 상상력을 완전무결한 시인의 상상력처럼 풍부하게 이끌어 낼 수는 없을 것이다.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학습자들의 내면에 침잠되어 있는 상상력을 환기시키고 그 작용을 확장시켜 학습자가 지닌 상상의 세계에서 더 폭 넓은 상상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보조자의 역할로서 교육적 임무를 담당할 수밖에 없다.

학습자들의 보다 더 큰 상상력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기존의 익숙한 신화보다 그 동안 접하지 않았던 새로운 신화를 텍스트로 사용한다. 신화를 이해하고 이를 시적으로 변용하여 시를 쓰는 수업을 해야 하므로 신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습자들이어야 한다. 학습자의 대상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선정한다. 학습자들은 본 수업단계에서 신화적 상상력을 환기시키고 개인의 경험과 결부시켜 그 환기된 상상력을 확장한다. 상상력 유발단계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학습자들의 수준별로 제시한다. 이를 통해 생성된 신화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시를 창작한다. 이 단계에서 교사는 수행평가로 학습자들의 시를 평가한다.

1) 상상력 환기와 확장

(1) 상상력 환기

이 단계는 신화를 처음 접하는 단계이다. 학습자들의 스키마(배경지식)에 의해 신화가 이해되고 감상되는 첫 단계이다. 신화가 원형적인 보편성을 띤 이야기라고 해도 처음 접하는 신화는 학습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텍스트이므

로 학습자들의 스키마가 가장 크게 요구되는 부분이다. 학습자들이 신화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 교사는 먼저 학습자들의 경험과 체험에서 적절한 스키마를 유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 방법으로 제목으로만 상상하기, 맥락 파악하기, 분위기 상상하기를 설정한다.

① 제목으로만 상상하기

학습자들이 신화를 읽기 전에 신화의 내용과 상관없이 학습자들의 느낌이나 체험들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상상하도록 하는 단계이다. 교사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 아무런 의도 없이 학습자들 스스로가 신화의 제목에서 자유롭게 상상 활동을 펼치는 것을 관찰한다. 이 활동은 반드시 학습자들이 신화를 텍스트로 먼저 파악하기 전에 해야 한다. 이야기 속의 내용에 학습자들의 상상력이 묻히기 전에 그들의 상상력을 이끌어내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목에서만 신화를 맛보는 활동을 함으로써 신화에 대한 학습자들의 흥미와 관심이 높아지고 그들이 가진 상상력은 슬슬 일어나 기지개를 켤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중학생 학습자들에게 처음 접하는 익숙하지 않은 신화는 흥미 있는 이야기거리 이다. 교사가 의도하지 않아도 학습자들은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그 학습자들의 흥미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제목으로만 상상하기 단계에서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다만 너무 거칠거나 엉뚱한 상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학습자들이 순수하게 내뿜는 느낌에 교사는 집중하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훼손되지 않도록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학습자들이 적절한 느낌을 제시했을 때 그 느낌을 확장할 수 있도록 유도 한다.

고등학생 학습자들은 이 단계에서 순수하게 직관만을 가지고 신화에 접근한

다. 학습자들은 제목에서 연상되는 느낌을 자유롭게 내뱉는다. 이때 교사는 그 느낌이 거칠고 투박하다 해도 자유롭게 느낌이 생성되도록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있어야 한다. 학습자들은 자신들이 표현한 느낌에 제재를 가할 때 더 이상의 느낌을 말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거칠면 거친 대로 투박하면 투박한 대로 내뱉는 느낌 그대로를 교사는 수용한다. 교사는 학습자들이 내뱉는 느낌에 집중하고 적절한 느낌이라고 생각될 때 그 느낌을 크게 확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제목에서 오는 모호함이 학습자들 스스로가 자유롭게 내뱉는 느낌과 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상상력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교사는 지켜보게 된다. 이때 형성된 상상력은 하나의 고정적 위치를 차지하여 맥락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허물어지지 않고 유지하게 된다.

② 맥락 파악하기

맥락을 파악하는 과정은 신화를 텍스트로 접하여 학습자들이 읽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언어적 문자적 이해 과정이 수반된다. 신화를 읽는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자신들이 제목으로만 상상했던 모호했던 상상력이 구체화되는 것을 경험한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신화에 등장하는 역사, 인물, 사건, 배경 등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학습자들이 가진 순수한 스키마에 기반하여 상상력을 한 차원 더 높게 이끌어낼 수 있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학생 학습자는 지금까지 학습 하지 않았던 신화에 대해서는 배경지식이 거의 없다. 그러므로 그만큼 순수한 상상력을 유발할 수 있다. 그 때가 묻지 않은 깨끗한 상상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교사는 학습자들이 모르는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다. 그 빈 공간을 학습자들 스스로가 상상력으로 채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다.

고등학생 학습자는 중학생 학습자와는 달리 이미 학습된 지식들을 기반으로 한 배경지식이 풍부하다. 그렇기에 신화의 역사, 인물, 사건, 배경에 대해 어느 정도 기본 스키마가 있어서 순수한 상상력을 유발하는 것이 힘들다. 교사는 학습자들이 신화의 역사, 인물, 사건, 배경에 얽매이지 않도록 지도한다.

빈 공간이 없는 완벽한 이야기는 학습자들의 상상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이미 완벽해진 이야기는 학습자들의 상상력을 끌어내는데 장애요소가 된다. 신화가 이야기라고는 해도,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학습자들의 수준이라고 해도, 익숙하지 않는 새로운 신화는 학습자들에게 많은 빈 공간을 갖게 한다. 그 빈 공간만큼 학습자들은 순수한 때문지 않은 상상력을 통해 채워 넣게 된다.

한 편의 신화를 읽는 동안에 학습자들의 이해수준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교사는 학습자들과 역할을 달리하여 읽기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이 활동은 고등학생 학습자보다는 중학생 학습자에게 더 적절한 방법이다. 학습자들이 직접 신화 속의 인물이 되어서 그들이 낼 수 있는 다양한 목소리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활동을 통해 보다 정확한 맥락을 파악할 수 있고 신화 속의 '인물'과 '나'는 다르지 않은 동일하다는 등가성을 갖는다. 상상력은 창조된 상상물과 현실에 존재하는 사물 또는 인물이 등가성을 가질 때 더 잘 발휘할 수 있다.

③ 분위기 상상하기

신화 읽기를 통해 학습자들은 일차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 기반을 시 창작 할 수 있는 곳 까지 상상 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교사는 신화를 읽은 느낌을 글로써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제목에서 상상하기, 맥락 파악하기 활동을 통해 얻어진 느낌이 다른 느낌에 덧칠 되지 않도록 하기 위

해서 글로 쓰는 활동은 반드시 신화를 처음 읽은 후에 해야 한다. 이 활동은 노창수가 제시한 ‘첫 느낌 발표하기’와 비슷한 활동이다. 그는 첫 느낌에 대해 일정한 가설의 역할을 하지만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며 첫 느낌은 그야말로 순수하면서도 다양한 내용으로 표현되는 자연발생적인 것이어서 어떤 제약이나 형식적 틀로 얽매어져서는 안 된다고 한다.¹²⁷⁾

상상력의 확장이 일어나기 바로 전 단계에 시작되는 이 활동은 오로지 학습자들의 직관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말하자면 어떠한 사물이나 인물을 보고 느끼는 ‘첫 느낌’ 그대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 발생적인 그 느낌 그대로를 표현한다고 했을 때 신화의 내용과 너무 동떨어진 느낌이라면 교사의 개입에 의해 그 느낌이 수정될 수도 있다. 때문에 이 활동에서는 교사의 소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중학생 학습자는 쓰기를 두려워한다. 언어(말)로는 다양하게 느낌을 표현하던 것도 문자(글)로 나타내라고 하면 손을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교사는 이때 학습자들이 내뱉는 느낌을 직접 써보는 시범을 보인다. 느낌을 그대로 문자로 써보는 활동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시범으로 보이고 그 느낌을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짧은 단어에서 긴 문장으로 확대된 느낌을 통해 학습자들은 스스로 느낌을 표현하는데 자신감을 갖게 된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학습자들의 생생한 느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교사는 의도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도록 한다.

고등학생 학습자 또한 이야기를 통해 얻어진 느낌을 문자(글)로 서술하는 것은 언어(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어려워한다. 언어로는 다양하게 표현했던 느낌도 문자로 적어보라고 하면 무엇을 써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는 학습자들을

127) 노창수가 이야기한 ‘첫 느낌 발표하기’는 시 수업단계에서 설명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신화 읽기에 적용하였다. 노창수, 「현대시 교재의 수용적 이해를 위한 전체적 접근 단계의 수업 전개 방법」, 『미원우인집 박사 회갑기념 논문집』(집문당, 1986) p.655.

경험하게 된다. 이때 교사는 될 수 있으면 짧은 느낌을 먼저 글로 나열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그 느낌을 확장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 활동에서 교사가 강요한다는 느낌을 학습자들에게 주지 않아야 한다.

문자로 서술하는 활동을 통해 즉흥적이고 즉각적인 느낌은 한 단계 다듬어진 순화된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때 교사는 즉흥적이고 즉각적인 느낌에서 오는 생동감 있는 느낌을 학습자들이 놓치지 않고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독자는 문학적 의미공간에 비교적 자유로운 주관(상상력)성을 행사하며, 그러기에 그 의미공간의 한계를 어떤 원칙에 따라 제한하려고 하지 않는다. 작품의 각 요소, 또는 그 전체를 해석하고 평가를 내리지만 그 행위가 전제로 하는 자신의 사회적 · 문화적 · 심리적 요소의 유입을 어떤 원칙에 따라 관리하지 않으므로 독서 공간의 넓이는 어느 부분에서는 무제한 넓어지고 어느 부분에서는 거의 무시되기도 한다.¹²⁸⁾ 때문에 문학에 대해 정당한 반응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을 안내하고 지도하는 것이 문학교육이 해야 할 일이다.

(2) 상상력 확장

학습자들의 경험과 체험은 상상력의 확장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스키마로 자리 잡는다. 경험과 체험이 결부되지 않은 상상력은 '공상'이나 '망상'에 불과할 뿐이다. 문학작품은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 만들어진 '허구'의 산물이다. 그러나 그 '허구'에는 작가의 삶과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학습자들에게 삶과 관련된 의미 있는 상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 교사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다.

상상력의 환기 단계에서 이미 학습자들은 상상의 기반을 다져놓았다. 그 기

128) 성희정, 「상상력 계발을 위한 시교육 방법 연구」,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p.21.

반을 무너뜨리지 않고 차근차근 계단을 완성해 가야 하는 것이 학습자들과 교사가 해야 할 역할이다. 상상의 기반에서 상상의 계단으로 확장해나가려면 교사는 학습자들의 경험을 기반이 다져진 상상력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학습자들은 의미 있는 경험과 그렇지 않은 경험을 구별해 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교사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된다. 상상력의 환기 단계에서 소극적이고 방관자적인 입장에 머물러 있던 교사는 적극적으로 학습자들의 활동에 참여하여 학습자들이 상상력의 계단을 완성하도록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학습자들은 자신들의 의미 있는 경험이 새롭게 확장되도록 교사의 도움 하에 머릿속의 스키마를 적절하게 유출한다.

상상력의 확장단계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신화의 주인공 되기, 주인공에게 말 걸기, 긴장하기이다.

① 신화의 주인공 되기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이므로 학습자들에게 신비하고 기이하게 다가온다. 그렇기에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로 여겨질 수도 있다. 현실과 유리되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구체화된 상상력은 더 이상 발휘되지 못한다. ‘나’의 삶과 ‘신화’의 삶이 다르지 않은 ‘등가성’이 있다고 인지할 때 구체적이고도 살아있는 상상력은 발휘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질마재신화』의 비범한 신들은 서정주 시인의 고향마을 질마재 사람들이다. 그들은 우리들과 똑 같은 삶을 살다가 간 보통 사람들이다. 그들을 ‘신’으로 승격화 시킴으로 해서 보통사람들은 ‘신’이 되었고 그 보통사람들을 ‘신’으로 승격시킨 시인의 상상력은 그렇기에 우리들에게 더 크게 다가오게 된다. 『질마재신화』에서는 보통사람들이 신화의 주인공이다. 시인은 아마도 신화

속 주인공과 질마재 마을 사람들이 다르지 않고 똑 같다고 인식하고 『질마재신화』를 노래했을 것이다. 신화의 주인공 되기는 그렇기 때문에 상상력 확장의 중요한 한 활동이다.

교사는 학습자들이 신화의 주인공이 되는 활동들을 통해 학습자들의 경험과 결합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질문들을 던진다. 이 활동에서는 소집단 협동학습모형이 적절하다. 소집단 협동학습모형을 통해 학습자들은 소집단원들 끼리 다양한 의사를 교환하여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생각들의 장'을 경험하게 된다.

㉞ 중학생 학습자

중학생 학습자는 상황을 연상하거나 상상하는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 그렇기에 좀더 구체적인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들을 제시한다. 질문에 대해 학습자들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힘들다면 그림으로 표현해도 좋다. 다양한 방법으로 상상력의 확장이 일어나게 교사는 유도한다.

㉟ 여기에 신화의 주인공이 ○○가 있습니다.

- ○○이 어떻게 보이나요?
- ○○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해 봅시다.
- ○○에게 느껴지는 모습은 어떠한가요?
- 그 모습과 나를 비교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 ○○와 '나(학습자)'는 공감되는 점이 있나요?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㊱ ○○와 동일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신'이 될 수 있습니다.

- '나(학습자)'는 '신'입니다.
- 이번엔 '신'의 입장에서 처한 상황을 이야기해봅시다.
- 느낌이 다르지요?

- 앞에서 말했던 때와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그림으로 그려도 좋고 이야기를 해도 좋고 글로 써도 좋습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 번 표현해보세요

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무엇인가 초월적인 힘을 구사하고 우주적인 시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듯이 '신'도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고 인간의 생활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능력만 여러분들과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의 시각을 한 차원 높게 바라본다면 여러분도 '신'이 될 수 있습니다.

㉕ 고등학생 학습자

고등학생 학습자는 머릿속으로 상황을 상상하는 능력이 중학생 학습자보다 뛰어나다. 그렇기에 구체적인 질문을 제시하지 말고 간단한 질문들을 통해 자유스런 생각들을 끌어낼 수 있게 유도한다.

㉖ 여러 분들은 지금 신화의 주인공을 보고 있습니다.

- 주인공이 처한 상황은 어떠한가요?
- 주인공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 해봅시다.
- 주인공의 마음에 공감되는 점이 있다면 이야기 해봅시다.

㉗ 주인공과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신'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네요.

- '나(학습자)'는 이미 '신'입니다.
- '신'의 입장에서 상황에 대해 이야기 해봅시다.
- 인간의 입장에서 말할 때와 '신'의 입장에서 말할 때 의 차이점이 있나요?

- 무엇이 같고 무엇이 틀린가요?

㉘ 신화가 신들의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고 인간의 생활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인간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니 여러분들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여러분들과 다른 점은 초월적이고 우

주적인 시간과 공간에 살고 있다는 점만이 다르겠지요.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을 초월적이고 우주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삶은 신화의 주인공과 같은 '신'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질문들을 통해 학습자들은 신화의 삶이 평범한 우리들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세상과 삶을 '신'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 활동에서 일차적으로 우주적인 차원에서의 상상력의 확장이 일어나게 된다.

② 주인공에게 말 걸기

'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학습자들은 '신'이 되어서 주인공에게 말을 걸게 된다. 이 활동은 학습자들이 '신'의 눈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것을 되새기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신'을 신비하게 여기는 수직적인 눈으로의 활동이 아니라 '신'과 '나'는 동일하다는 수평적인 시각으로의 '신'과의 마주침이다. 이 때 교사는 주인공을 학습자들의 경험 속에 위치한 현실 속의 인물로 바꾸는 활동을 하게 한다. 이렇게 역할 바꾸기를 통한 말 걸기 활동에서 학습자들은 경험과 상상력의 결합을 피하게 된다.

단순하게 역할 바꾸기는 모방에 불과할 것이다. 모방과 상상력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물론 모방을 통해 상상력의 확장을 이끌어 내는 것이지만 모방의 단계에만 머무르는 것은 교사와 학습자 모두 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에게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상황까지 묘사하여 주인공에게 말 걸기를 시도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 중학생 학습자

구체적인 상황까지 교사가 질문으로 제시해주는 것이 좋다. 학습자들이 가

장 흥미 있어 하는 신화의 한 대목을 선정하여 주인공에게 말걸기를 유도한다.

- ㉠ 말을 건네 봅시다. 하고 싶은 말은 어떤 것입니까?
- ㉡ 왜 주인공에게 그런 말을 했나요?
- ㉢ 주인공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 ㉣ 그 반응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볼까요?

㉤ 고등학생 학습자

전 단계에서 간단한 생각을 이끌어내기를 유도했다면 이 단계에서는 좀더 구체적인 생각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교사는 시간을 재촉하지 말고 학습자들이 자유스럽게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도한다.

- ㉠ 왜 상대방에게 그런 말을 했지요?
- ㉡ 상대방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 ㉢ 그 때 나의 맘속의 상황을 이야기해 볼까요?

위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신'과 '나'는 하나가 된다. 이미 학습자들의 현실은 '신'들이 살고 있는 '신'의 세계가 된다. 교사는 학습자들 사고의 세계가 초월적이고 우주적인 시각이 될 수 있도록 상상력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때 원형적인 상상력은 신화적 상상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한 방법이다. 보편적인 원형이미지를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중학생 학습자

학습자들은 보편적인 원형이미지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는 수준이다. 이

수준의 학습자들에게 보편적인 원형이미지를 인식하게 하려면 교사는 먼저 자연물이나 사물이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질문들을 통해 제시한다. 그 이미지들과 학습자들의 이미지에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파악하게 한다.

- ㉠ 자연물 중에서 생각해 봅시다. 물, 해, 바람 등등은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나요?
- ㉡ 여러분들을 자연물이라고 가정 한다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일까요?
- ㉢ 앞에서 말걸기를 시도 했던 신화의 주인공들은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요?
- ㉣ 주인공을 표현할 수 있는 독창적인 이미지가 있을 까요? 한 이미지로 표현해도 좋고 여러 이미지를 복합적으로 제시해도 좋습니다.
- ㉤ 그 이미지들을 그림으로 그려 표현해 봅시다.

㉬ 고등학생 학습자

학습자들은 보편적인 원형 이미지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 그래도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교사는 자연물이나 사물에서 학습자들의 이미지와 유사한 것을 찾아낼 수 있게 질문들을 제시한다.

- ㉠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까?
- ㉡ 그 이미지가 상징하고 있는 것을 자유롭게 이야기 해봅시다.
- ㉢ 그러면 그러한 이미지외에 여러분들을 특징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미지가 또 있을까요?
- ㉣ 그 이미지들을 그림으로 표현해봅시다.

위의 질문과 활동들을 통해 보편적인 원형이미지에 새로운 이미지 즉 독창적인 이미지를 끌어내는 것이 가능하다. 학습자들은 누구나 보편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다. 그러한 이미지가 상상력의 확장을

을 통하여 창의적인 이미지로 탈바꿈될 수 있다는 것을 학습자들은 알게 된다. 이미지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추상적인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체험을 하게 된다. 글로 써서 나타내는 것보다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 하는 것이 추상적인 상상력을 확장하고 구체화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③ 긴장하기

신화는 이야기다. 이야기의 산문성은 시와는 다른 긴 호흡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긴 호흡을 끊어내는 과정이 시를 창작하는 전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다. 학습자들은 이 활동을 통해 시와 이야기는 호흡이 다른 장르라는 것을 직접 인식하게 된다. 물론 지금까지의 학습활동을 통해 시와 산문은 다른 장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체험되지 않은 의도적으로 주입된 지식이다. 이 활동을 통해 시의 특성을 학습자들 스스로가 터득하게 되고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살아있는 지식을 교수할 수 있게 된다.

상상력의 확장으로 '신'이 되고 '신'의 세계에서 사는 학습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단계를 통하여 자신들만의 새로운 짧은 신화를 창작하게 함으로써 시를 창작할 수 있는 밑바탕이 마련된다.

㉞ 중학생 학습자

전체 신화를 짧은 신화로 만드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신화의 가장 흥미 있는 한 대목을 학습자 스스로 선정해서 그 이야기를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지도한다.

㉟ 흥미 있는 이야기 부분 선정하기

㊱ 장면 구체화하기

- ㉔ 대화 삽입하기
- ㉕ 대상 상징화하기

㉖ 고등학생 학습자

전체 신화를 대상으로 새로운 짧은 이야기 신화 만들기를 제시한다.

- ㉗ 불필요한 이야기 삭제하기
- ㉘ 장면 구체화하기
- ㉙ 대화 삽입하기
- ㉚ 대상 상징화 하기

2) 시쓰기의 실제

상상력의 확장 단계가 학습자들의 상상력을 밖으로 유출시키는 단계였다면 시를 직접 창작하는 단계는 밖으로 유출된 상상력을 학습자들의 내면으로 이입하여 자신들만의 고유한 상상력을 발현하게 하는 상상력 내면화 단계라 할 수 있다.

내면화는 지금까지 교사와 함께 수행해 왔던 여러 전략들을 자신의 내면에서 다시 수행하며 재구성함으로써 독립적인 감상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¹²⁹⁾ 이 때 교사는 학습자들의 체험이 확장된 상상력과 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상력이 멀리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학습자들 곁에서 항상 살아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자각하게 하고 전 단계에서 짧게 다듬어진 신화를 통해 시를 창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 때 교사는 학습자들이 창작한 시를 평가하기 위한 수행평가 목표 - 수행평가 목적 - 수행평가 계획 - 수행평가 내용 - 구체적인 수행평가 기준을 제

129) 최지현, 「문학감상교육의 교수학습모형 탐구」, 『선청어문』, 제 26집, 1998. p.27.

시하여야 한다. 수행평가는 학습자들의 수행에 대한 작품평가가 가능하다. 시를 쓰는 것은 그 자체가 학습자들의 수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행평가 위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 단계에서는 교사가 수행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마음자세가 필요하다. 좋은 수행평가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내용을 형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관찰평가, 학생의 자기평가나 상호평가, 포트폴리오 등을 적극 활용한다. 그래야만 시를 창작함으로써 발휘된 추상화된 상상력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또한 수행평가를 적용함에 있어 점수를 주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수업의 질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평가라는 것을 학습자들에게 주지 시켜야 한다. 문학작품을 창작한다는 자체를 학습자들은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 그것을 점수화하여 평가받겠다고 학습자들이 인식하는 것은 자칫하면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교사는 생각하고 통합적인 사고력과 창의력에 중점을 두어 평가해야 한다.

(1) 수행평가 목표

- ① 문학에 대한 기본 지식을 익혀, 이를 다양한 문학 창작 활동에 활용하는 능력을 이룬다.
- ② 시를 창작하는 활동을 통해 사상과 정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 ③ 문학 창작 활동에 흥미를 기르고 이를 통한 국어세계에 흥미를 느껴 국어의 발전과 국어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2) 수행평가 목적

학생 개개인의 성취수준 및 발달 정도를 고려한 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통

해 자율적으로 시를 창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바른 학습태도와 창의성과 상상력을 신장시킬 수 있게 한다.

(3) 수행평가 계획

1학기 지필과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

		지필평가 점수	수행평가 점수
1학기	중간	100	100
	기말	100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비율은 50 : 50 으로 한다. 2학기는 지필평가의 비율을 100으로 한다.)

지필평가는 언어 · 문학 · 독해 중심으로 한다. 사고의 폭을 넓히고 창의력을 기르는 수행평가와 동일한 연계성을 갖기 위하여 교과서에 있는 문학작품 뿐 아니라 교과서 바깥의 문학작품 까지도 평가에 포함한다. 이를 위해서 사전에 학습자들에게 예고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사전 예고제를 도입한다.

수행평가는 신화를 짧은 이야기로 다듬기, 신화를 통한 시쓰기, 평소의 학습태도 소집단 활동 및 협동학습을 통해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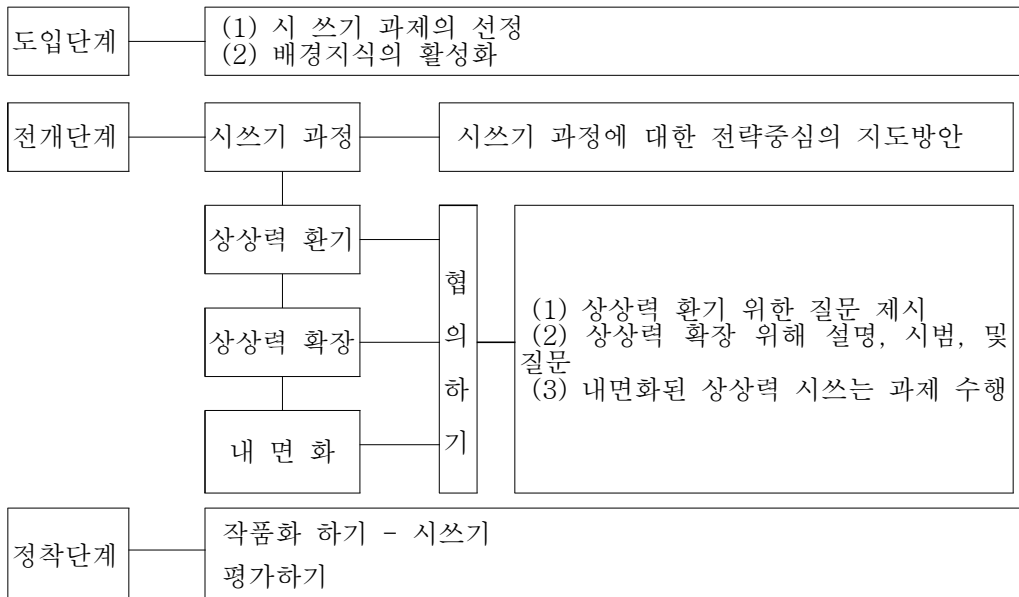
(4) 수행평가 내용

시기	수행평가 과제	배점	평가 방법	대상
1학기	짧은 이야기 신화 만들기	30	포트폴리오	개인
	신화를 통한 시쓰기	30	포트폴리오	개인
	수업시간 참여도 (발표력, 수업 태도, 과제 이행, 참여도)	20	작품 검사	개인
	소집단 활동 및 협동 학습	20	작품 검사	소집단

(5) 구체적인 평가 기준

점수	평가 기준	신화를 통한 시 쓰기 (개인별 평가)
상 (30)		창의적인 상상력이 잘 드러난다. 이야기와 서술시의 차이에 대해 안다. 시적 변용이 잘 드러난다. 경험과 체험을 통한 시 쓰기이다. 표현이 매끄럽고 참신하다.
중 (27)		창의적인 상상력이 다소 부족하다. 이야기와 서술시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하다. 시적 변용이 다소 부족하다. 경험과 체험을 통한 시 쓰기가 다소 부족하다. 표현이 평이하며 참신성이 다소 떨어진다.
하 (24)		창의적인 상상력이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야기와 서술시의 차이에 대해 거의 모른다. 시적 변용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 경험과 체험을 통한 시 쓰기가 거의 없다. 표현이 진부하고 거칠다.

(6) 수업지도 모형



수업지도 모형은 도입단계 - 전개단계 - 정착단계 세 단계이다. 이 모형은 1차시에 시쓰는 활동까지 수행해야 하므로 대상은 고등학생으로 선정한다. 도입단계에서 시쓰기 과제를 제시할 것을 학습자들에게 제안하고 그들의 배경 지식을 점검하고 활성화한다. 전개단계에서 시쓰기 과정으로 상상력 환기, 상상력 확장, 상상력 내면화 단계를 점차적으로 제시한다. 각 단계의 전략중심 지도방안으로 교사는 상상력 환기를 위한 질문을 하여 학습자들의 상상력을 환기 시킬 수 있도록 유도한다. 상상력 확장을 위해 교사는 간단한 설명을 하고 시범을 보이며 구체적인 질문을 제시한다. 긴 호흡의 이야기를 짧은 호흡의 시로 만들어 내기 위한 전개의 마지막 단계에서 상상력 환기와 확장이 이루어진 학습자들에게 상상력의 내면화를 위해 상상력을 통한 짧은 이야기 신화 만들기를 한다. 마지막 정착 단계에서 학습자들은 시쓰는 수행활동을 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한다.

(7) 학생 작품

① <창세가>

학생들은 노원지역 고등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했다. 수업의 실시는 2005년 5월 1일 노원 월계지역에서 이루어 졌다. 위에 제시한 수업지도 모형에 따라 신화를 통한 상상력 유발 수업과 짧은 이야기 신화 만들기 과정 까지 1차에서 50분 동안 수업은 이루어 졌고 직접 시를 창작하는 활동은 학습자들의 수행활동 과제물로 제시했다. 수업자료인 신화는 한국 창세신화인 <창세가>¹³⁰⁾를 선정했다. 다음의 학생 작품들은 시쓰기 수행평가를 위한 학생들의 포트폴리오이고 상, 중, 하로 나누어 세 작품들을 선별해서 제시해 놓았다.

130) 심치열 · 박정혜 엮음, <창세가>, 『신화의 세계』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5) p.20~24

㉔ 학생 작품 및 수행평가

㉑ 학생 작품 1 - <미륵님 덕분에> (상)

하늘과 땅이 생길 때에 미륵님이 탄생하였습니다. 하늘과 땅이 한 몸으로 사랑을 나눈 후에 미륵님이 탄생하였습니다.

미륵님 백성 위하여 온 밤 하늘 비추는 별 만들고 백성 추위 걱정하여 옷 마련하였습니다. 더 큰 추위 걱정하여 불도 만드셨습니다. 생명의 근본 물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미륵님 덕분이랍니다.

옛날옛날 하늘과 땅이 지금의 모양이 아니었을 때 미륵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땅도 하늘도 하나가 아니랍니다. 해도 달도 두 개가 아니랍니다. 살기는 예전보다 편해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엔 사랑이 없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해도 둘 달도 둘 그 시절엔 오히려 불편함을 몰랐었는데 사람들 마음에 사랑만 가득하였는데 미륵님 덕분에 해도 하나 달도 하나 지금 이 시절엔 미움만 가득합니다. 사랑은 간혹가다 뉴스에나 나오는 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옛날 미륵님 탄생하실 적에 가득했던 사랑을 이제는 그리워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도 미륵님 덕분이겠지요?

<이대부속 고등학교 2학년 한소희>

<미륵님 덕분에>는 ‘사랑’을 주제로 시를 서술하고 있다. <창세가>에서 ‘사랑’을 주제로 이끌어낸 것은 참신한 발상이다. 반복되는 어구 ‘~습니다’ 와 ‘~랍니다’같은 구어체 표현은 이야기를 시로 변용하는데 하나의 리듬을 형성한다. 표현면에서도 <창세가>에 나오지 않는 새로운 표현을 사용하여 시의 참신성을 높이고 있다. ‘사랑’이라는 주제를 신화에서 새롭게 찾아냈을 뿐만 아니라 현실세계와 결부시켜 표현한 점이 뛰어난 작품이다.

평가항목	점수(28)
창의적 상상력 (8)	8
이야기와 서술시의 차이에 대해 안다 (5)	5
시적 변용의 유창성 (5)	4
경험과 체험을 통한 시쓰기 (5)	5
표현의 유창성 (7)	6

㉔ 학생 작품 2 - <욕심의 유래> (중)

하늘과 땅이 생겨 미륵님이 탄생했지. 그때는 하늘과 땅이 서로부터 떨어지지 아니해서 하늘은 가마솥 손잡이 모양으로 맹글고 땅에는 기둥을 세워 하늘과 땅이 떨어지게 만들었대. 미륵님이 집이 필요 했던 거야 욕심 부려 그리웠지. 그 때는 해도 둘, 달도 둘이 었다더라.

달하나 띄어내여 큰 별 마련하고

잔 별은 백성 일 알아보는 직성 별 마련하고

오늘의 별들 그 때 모두 맹글었어.

하늘과 땅이 하나일 땐 별이 필요 없었겠지. 욕심부려 집 만들고 떨어지게 맹그니 알게 됐을 거야. 빛이 너무 소중한 걸.

어둠은... 어둠은... 어둠은...

미륵님이 별 맹근후 미력님이 태어났지. 미력님이 탄생때는 생화식을 잡사시와 불 안이 너코 생나달을 잡사시와

“이래서는 못하겠다. 물의 근본 불의 근본 내 밖에는 없다. 내여야 쓰겠다.”

말하고는 풀맷독에게 물어봤대

“여봐라, 풀맷독아 물의 근본, 불이 근본 아니?”

풀맷독이 말했다지

“밤이면 이슬 바다 먹고 나지면 햇발 받아먹고 사는 짐승 어찌 알아?”

미력님이 물어 물어 생쥐에게 물어봤다지. 생쥐 그때부터 욕심 많아 공 세
워주지 아니하면 말 안한다고 했다. 미력님이 생쥐에게 “너는 천하의 뒤주를
차지하라.” 공치세를 하고 물의 근본 불이 근본 알아냈다. 그때부터 우리들
은 인간말을 하였다지.

그런데 이상하다. 미력님이 천하의 뒤주를 쥐에게 내려주셨는데, 어찌해서
오늘은 쓰레기 뒤주만 차지한거야?

그때에도 욕심 많던 생쥐 욕심 부려 그리됐나?

별을 받아 그리됐나?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늘과 땅이 하나일땐 빛이 필요 없었어 불도 필요 없었어

하늘과 땅 서로 나너 어둠생겨 빛 필요해 생명생겨, 불도 필요 물도 필요

그러느라 욕심도 생겨났지.

인간욕심 그때부터 생명생긴 그때부터 오래도 되었구나

욕심은...욕심은... 욕심은...

<영신여자 고등학교 2학년 이이슬>

<욕심의 유래>는 <창세가>에서 인간의 욕심을 참신하게 잘 끌어내고 있다.
그러나 이야기를 시로 변용하는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점을 보이고 있다.
'~다지', '~구나' 같은 구어체 표현과 대사를 삽입하여 이야기를 시로 변용하
려고 시도하였으나, 표현 면에서 <창세가>의 내용을 그대로 모방한 것에 지나
지 않아서 아쉬움을 남긴 작품이다. <창세가>는 이미 노래 형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된 신화이므로 구어체 표현만 가지고는 이야기가 '시'가 되었다고 하기에
는 조금 부족하다. 또한 <창세가>에서 인간의 욕심을 끌어내었을 때 학생 개
인의 경험과 결부시켜 표현했다더라면 더 뛰어난 작품이 되었을 작품이다. 학생
의 창의성은 뛰어나나 경험과 체험을 통한 시 쓰기가 되지 않았고, 시적 변용
면에 있어서도 미흡함을 보이기에 높은 평가를 받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평가항목	점수(25)
창의적 상상력 (8)	8
이야기와 서술시의 차이에 대해 안다 (5)	4
시적 변용의 유창성 (5)	3
경험과 체험을 통한 시쓰기 (5)	4
표현의 유창성 (7)	6

㉔ 학생 작품 3 - <고마운 미륵님> (하)

미륵님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했다네.
하늘과 땅 떨어지게 한 사람
해와 달 하나로 만든 사람
하늘의 별도 만들어 준 사람
우리들의 옷도 지어준 사람
생각해보니 참 고마운 사람이야 그렇지?
그리고 또 무엇을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았다네.
물과 불도 만들어 주었어.
인간에게 말도 가르쳐 주었구나.
생각해보니 참 고마운 사람이야 그렇지?
<영신여자 고등학교 2학년 박희순>

<고마운 미륵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험과 체험을 통한 시쓰기가 되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경험과 체험을 통한 시쓰기는 상상력이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 곁에서 살아 숨쉬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시쓰기의 가장 기본인 상상력이 발현되지 않고 있으므로 뛰어난 시가 되지 않는 것이다. 표현면에서도 '~다네', '~이야', '~구나'를 사용하여 일관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시의 리듬을 형성하는데 장애가 된다. 이야기를 시로 바꾸기

위해서 행을 바꾸어 나열했는데 이것은 오히려 억지스런 시쓰기가 되고 말았다. 학습자가 시의 형식에 너무 얽매인 결과라 생각된다. 상상력이 제대로 발휘되고 그를 통한 시쓰기가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작품이다.

평가항목	점수(15)
창의적 상상력 (8)	4
이야기와 서술시의 차이에 대해 안다 (5)	2
시적 변용의 유창성 (5)	3
경험과 체험을 통한 시쓰기 (5)	2
표현의 유창성 (7)	4

㉔ 학생 상호평가

	창의성이 돋보이는가 (8)	시적 변용이 뛰어난가 (5)	경험과 체험을 통한 시쓰기인가 (5)	표현이 뛰어난가 (7)	시와 이야기의 차이가 드러나는가 (5)	합계 (30)
박수우						
박희순	이)5	4	3	4	3	19
	한)4	4	3	4	3	18
이이슬	박)7	4	5	5	4	25
	한)7	4	5	6	4	26
한소희	박)8	5	5	6	4	28
	한)8	5	5	6	4	28

학습자들에게 다른 학습자들의 시를 평가 할 수 있는 상호평가 활동을 실시한 이유는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학생 상호 평가는

학생 스스로가 평가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주체가 된다. 그러므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수업에 흥미를 갖게 하는 도구가 된다. 무엇보다 학생 상호평가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은 평가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는데 있다. 교사의 수행평가와 더불어 학생 상호평가를 실시한 결과 학습자들은 교사의 평가 점수에 신뢰성을 갖고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스스로 확인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② <황천국을 찾아간 이자나기>

노원지역 고등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2005년 5월 5일 노원 월계지역에서 수업을 실시했다. 위에 제시한 수업지도 모형에 따라 일본신화인 <황천국을 찾아간 이자나기>¹³¹⁾ 신화 수업을 실시해, 상상력 유발과 짧은 이야기 신화 만들기 과정을 10시부터 50분 동안 학생들의 참여로 완성했다. 직접 시를 창작하는 활동은 학습자들의 수행활동 과제물로 제시했다. 다음의 학생 작품들은 시쓰기 수행평가를 위한 학생들의 포트폴리오이고 상, 중, 하로 나누어 세 작품을 선별해서 제시해 놓았다.

㉠ 학생 작품 및 수행평가

㉠ 학생 작품 1 - <할아버지 마을 천인석> (상)

우리 할아버지 살던 곳에는 사람이 죽으면 꼭 사람이 태나곤 했습니다. 사람이 태난 만큼 꼭 그만큼 또 사람이 죽곤 했습니다. 이자나기와 이자나미의 싸움으로 생명의 탄생과 죽음이 생겨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탄생과 죽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일이 우리 할아버지 마을 에서도 있었습니다.

131) 심치열·박정혜 엮음, 앞의 책, pp.361~363

할아버지 마을 언덕에 야트마한 언덕에 큰 바위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가 본 지가 오래되어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큰 바위가 있었는데요 그 바위가 할아버지 살던 마을 지켜주는 천인석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때는 몰랐는데요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바위에 물 떠놓고 빌기도 하고 정성스레 닦았던 것이겠지요. 삶과 죽음 경계 생긴 그때부터 할아버지 마을은 그 바위가 천인석이었던 모양입니다.

가끔씩 그 바위가 잠이 들어 힘이 약해지면 그 틈으로 이자나미가 마을 사람들을 유혹하며 마을 사람들을 데려가고 했던 것이겠지요. 그 곳으로 우리 할아버지도 끌려갔던 것인가 봅니다. 마을 사람들 슬퍼하면 그 때서야 그 바위 잠을 깨어 마을 사람들에게 미안해서 아이를 내려 주었습니다. 내 사춘기 정도 그렇게 태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바위틈으로 새어나온 이자나미 유혹에 끌려가던 그 해 경태는 태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경태는 할아버지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얼굴 생김새도, 걸음걸이도, 먹는 버릇도 꼭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살던 마을 천인석의 힘으로 태난 경태는 그 힘을 보여주듯 꼭 할아버지 그 모습입니다.

<염광 고등학교 2학년 박수우>

<할아버지 마을 천인석>에서는 반복적인 종결어미를 사용함으로써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담담히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어조도 이야기를 시로 변용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과거의 학생의 경험과 결부된 창의적인 상상력이 충분히 시 속에 잘 발휘된 작품이다. 학생은 어린 시절 전주 근처의 할아버지 고향에서 살던 경험이 있다. 그 곳에서 삶과 죽음을 경험한 학생의 무의식에는 그 때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을 것이다. 또한 7살 이전의 기억이기에 조금 신비하게 남아있었을 것이다. 그 기억이 <황천국을 찾아간 이자나미>이야기에서의 '천인석' 과 할아버지 고향 마을에 학생이 놀이 공간으로 삼았던 '바위'가 동일성을 획득하여 하나의 참신한 표현을 획득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 큰 바위를 신성시 여겨 마을의 큰 일이 있다거나 할 때는

음식도 가져다 놓고 했던 모양인데 학생의 어린 눈으로 보았을 때는 바위에 음식을 차려놓고 하는 마을 사람들 행위가 그저 이상하기만 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이번 신화 수업을 통해 잊혀졌던 그 기억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고 한다. 이처럼 경험을 통해서 상상력이 유발되었을 때 작품은 어느 것 보다도 뛰어나게 된다.

평가항목	점수(28)
창의적 상상력 (8)	8
이야기와 서술시의 차이에 대해 안다 (5)	4
시적 변용의 유창성 (5)	5
경험과 체험을 통한 시쓰기 (5)	5
표현의 유창성 (7)	6

㉞ 학생 작품 2 - <주술의 힘> (중)

“주술의 힘이 언제부터 생겨난 것인지 알아?”
 “인간이 음식의 유혹에 저버린 그 때부터 생겨났다고 해”
 사람들이 먹기 위해 살고 먹기 위해 죽게 된 건 그 때부터야.
 아득한 예날 이자나기가 음식의 유혹에 눈 감아버린 그때부터야.
 그 때부터 넝쿨풀도, 죽순도, 복숭아 열매도 주술의 힘을 갖게 되었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던 고모는 복숭아를 가장 좋아했어. 그 복숭아의 힘으로
 무척 아름답고 향기로왔어. 그래서 이자나미의 미움을 받아버렸나봐.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답던 모습 그대로 사진 속에서만 예쁘게 미소 짓고 있
 어. 가끔가다 사진 보면 복숭아 향기가 밀려오곤해. 그러면 이렇게 소리치지.
 “고모야?”
 하지만 이자나미 미움받은 고모는 아무 말이 없어. 복숭아를 가장 좋아하

던 나의 고모. 주술의 힘으로 사진에만 존재하는 기억속의 사람이 되어버렸어. 이자나기에게 이자나미가 기억속의 존재가 돼 버린 처럼...

<이대 부속고등학교 2학년 한소희>

<주술의 힘>은 대화를 삽입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학생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던 복숭아를 좋아하던 고모는 <황천국을 찾아간 이자나기>를 통해 새로운 시의 소재로 작용하여 학생의 경험과 상상력이 잘 조화된 맛깔스런 시로 태어났다. 고모가 좋아하던 복숭아는 이자나기가 던진 복숭아와 등가성을 형성하여 주술의 힘을 가진 새로운 열매가 된다. 지금도 학생은 사진에서 복숭아 향기를 맡곤 한다고 표현했는데 기억에 각인된 고모의 존재는 현실세계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 경험과 상상력이 잘 조화된 <주술의 힘>은 그러나 시적 변용면에 있어서 부족한 면이 엿보인다. 대화를 삽입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나봐’, ‘~어’, ‘~해’ 같은 구어체 표현을 사용한 것은 좋으나 “대화체”를 삽입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표현상에 차이가 없다. 이에 뛰어난 창의성을 발휘하고도 높은 평가를 받기에 조금 부족하다.

평가항목	점수(26)
창의적 상상력 (8)	8
이야기와 서술시의 차이에 대해 안다 (5)	4
시적 변용의 유창성 (5)	4
경험과 체험을 통한 시쓰기 (5)	4
표현의 유창성 (7)	6

㉔ 학생 작품 3 - <증오와 복수> (하)

이자나기의 사랑은 증오만을 남겼다. 약속 하나도 지키지 못한 이자나기의

사랑.

이자나미의 사랑은 복수만을 남겼다. 사랑하는 사람 용서하지도 못한 이자나미의 사랑.

옛날부터 사랑은 증오와 복수만을 남겼다. 그런 사랑을 우리는 지금도 경험한다.

부부간에도 증오와 복수를 꿈꾸고

부모와 자식간에도 증오와 복수를 꿈꾼다.

사랑했다는 이름 아래 꿈꾸는 증오와 복수.

그 질긴 인연. 그 인연은 멀고 먼 옛날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때부터 있어왔다.

<영신여자 고등학교 2학년 박희순>

<황천국을 찾아간 이자나기>신화를 통해 학생은 '증오'와 '복수'를 이끌어냈다. 주제를 일관되게 잘 서술하였는데 경험과 체험을 통한 시쓰기가 아니어서 높은 평가를 받기 힘들다. 참신한 표현이 눈에 띄지 않는 다는 것도 높은 평가를 받는데 장애가 된다. 일관된 주제를 잘 살리는 표현에 좀더 신경을 썼더라면 좋은 작품이 되었을 것이다.

평가항목	점수(20)
창의적 상상력 (8)	6
이야기와 서술시의 차이에 대해 안다 (5)	3
시적 변용의 유창성 (5)	3
경험과 체험을 통한 시쓰기 (5)	3
표현의 유창성 (7)	5

㉔ 학생 상호 평가

	창의성이 돋보이는가 (8)	시적 변용이 뛰어난가 (5)	경험과 체험을 통한 시쓰기인가 (5)	표현이 뛰어난가 (7)	시와 이야기의 차이가 드러나는가 (5)	합계 (30)
박수우	박희)8	4	5	6	5	28
	한)7	4	5	7	5	28
박희순	박수)5	3	4	4	4	20
	한)5	4	4	5	4	22
이이슬						
한소희	박수)7	4	4	6	4	25
	박희)6	4	5	6	5	26

학생 상호평가는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수업 결점 보완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학습자들은 다른 학습자의 작품을 스스로 평가 함으로써 자신의 취약점을 발견하고 그 취약한 부분을 고치려고 노력한다. 그 결과 한 학생의 평가는 5월 1일 <창세기>신화 수업 때 보다 <황천국을 찾아간 이자나기> 신화 수업이 높은 평가를 받는 결과를 가져왔다. 학습자 스스로가 상호 평가를 통해 자신의 결점을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에 수행평가 시에 학생 상호평가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학습자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고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상상력을 유발할 수 있는 각 단계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교사들의 일방적인 해석에 의한 시 수업에 비해 학생 자신의 잠재적 정신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학습자 활동이 언어표현으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학습자들에게는 자신의 상상을 포착하고 정돈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교사에게는 학습자들의 상상내용을 살펴보고 지도해 줄 수 있는 단서가 마련되었다.

학습자들에게서 신화적 상상력을 이끌어내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다. 보통의 학습자들은 획일적인 상상력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학습자들의 상상력이 열리지 않고 닫힌 채로 존재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진정한 자신들만의 목소리를 가진 상상력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학습자들을 육성하려면 교사는 획일적인 상상력의 범위를 넘어선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상상의 실마리를 그때그때 잘 던져주어야 할 것이다.

IV. 결론

『질마재신화』를 통해서 한 개인의 경험만을 포착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질마재 마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엿보게 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이 시집이 보여주는 우주와 만물의 조화에 있다. 『질마재신화』에서 드러내는 세계는 인간과 자연이, 무생물과 생물이, 성스러움과 속물스러움이 동일성을 획득하여 질마재라는 하나의 세계 안에 어우러져 함께 있는 세계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인간이 우주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그 구성원인 것을 보여줄 수 있고, 마을에서 전해오는 이야기들을 통하여 실제로 그 마을에서 살았던 비범하지 않은 평범한 인물들의 신화적 삶을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질마재신화』가 이야기나 신화가 아닌 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시인에 의해서 시인 자신의 개성으로 신비스럽고 신격화된 인물들을 재창조하고 여러 시적 변용을 통해 드러내기 때문이다.

서정주가 독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시도한 서술에 의한 형상화 방식은 전래 설화의 도입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질마재신화』에서처럼 시인이 작가적 상상력을 매개로 이야기의 진행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기존에 전해오던 내용을 새롭게 재구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는, 독자들이 우리 삶의 진정성과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고 이는 시에 생동감과 역동성을 부여할 수 있는 힘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 설화 안에 숨겨진 의미들을 새롭게 재구술하여 그것을 시인 자신이 어린 시절에 살았던 마을의 삶의 이야기들과 결합시킴으로써 독자들에게 상상력의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 공간은 또한 독자들 스스로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남아있게 된다. 시인은 이러한 재구술을 투박하면서도 거친 지역 방언으로 보여준다. 『질마재신

화』에서 드러나는 소박한 사람들의 삶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그들의 긍정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전략으로 시인은 가장 질마재 사람들다운 언어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새롭게 덧칠해 재구술하는 것이다. 바흐친의 카니발언어를 『질마재신화』에서도 엿볼 수 있다.

『질마재신화』에는 설화 속의 인물들도 등장하지만 그들은 『질마재신화』의 주류가 아니다. 『질마재신화』에서의 주류는 어디까지나 지극히 평범한 질마재 라는 공간에서 살고 있는 마을사람들이다. 이들은 『질마재신화』에서 주류로 등장하여 빛을 발하게 된다. 시인에게 있어 질마재는 고향인 동시에 회귀의 공간이며, 우주와 만물이 조화롭게 조화된 신비의 공간이다. 신비로운 공간은 천상으로 열려 있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위와 아래의 소통을 자유롭게 시도하고 가능하게 만든다. 『질마재신화』의 이야기들이 제한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동일성을 획득함과 동시에 항구성을 갖게 되는 것은 여기에 있다.

서정주는 1960년대의 가난한 고향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유토피아를 모색하고 평범한 신비하지 않는 인물들의 신비화를 통해 이 땅의 새로운 신화를 이야기 하고 있다. 일상적인 공간인 질마재는 시인에 의해 신비성을 획득해 신화가 탄생하는 공간으로 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시인이 신화적 상상력을 통해 열린 눈으로 대상을 바라보면 일상적인 공간도 하나의 신비성을 획득하여 신비한 공간이 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이야기도 시로서 역할을 다하게 된다. 서정주는 질마재 고향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와 마을을 떠도는 설화들에 신화적 상상력을 덧칠하여 시적 변용을 가한다. 기존의 설화 텍스트를 변용하는 것은 자칫하면 단순한 모방이나 흉내내기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뛰어난 시인의 상상력은 이러한 모방이나 흉내내기를 뛰어넘게 된다. 서정주가 『질마재신화』에서 보여준 상상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가까운 곳에서 시인과 같이 살아 숨쉬는 상상력이다. 상상력은 추상적인 존재로 손에 잡힐 것 같지 않게 여겨진다. 이러한 상상력이 가치를 가지려면 구체적인 존재로 등가성을 가질 때에 가능하다. 서정주는 이러한 상상력을 기존의 자신의 어린 시절에 살아 숨쉬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준다. 이러한 가치에 우리는 주목하게 된다. 7차 교육과정은 학습자 개개인의 개성과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학습자 주도적인 교육으로의 전환을 모색케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노력인 창의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창의력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가 바로 상상력이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문학 교육 특히 시 교육에서 창의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상상력 계발이 가장 핵심적이고 필수적이며 중요하다. 문학교육 특히 시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계발시켜주어야 할 상상력은 우리 민족의 원형적 상징에 뿌리내린 것이었을 때 더 가치가 크다. 원형적 상상력은 학습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온다. 우리 민족 가슴 밑바닥에 뿌리를 내리고 보편성을 획득한 것이 원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다 더 학습자들이 쉽게 상상력에 접근 할 수 있다.

시에 있어서의 상상력은 시적 변용의 중심이다. 시적 상상력의 문제는 시적 내용물의 뿌리를 밝히는 작업과 동일하다. 시를 상상력의 산물로 볼 때, 자아와 세계와의 동일성은 이 상상력의 작용에 기인하는 것이며 이는 새로운 하나의 전체를 창조하는 능력으로서의 세계의 자아화에 기여한다. 학습자들에게 시를 창작하게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상상력을 통하여 자아와 세계를 동일시 여기면 자연스럽게 우주와 만물과 조화되는 삶을 살게 되고 세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습자들에게 신화를 새롭게 시로 창작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신화적 상상력을 향상시키려면 상상력을 촉진하는 능력이 교사에게는 요구된다. 그러나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학습자들의 내면에 침잠되어 있는 상상력을 환기시키고 그 작용을 확장시켜 학습자가 지닌 상상의 세계에서 더 폭 넓은 상상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보조자의 역할로서 교육적 임무를 담당할 수밖에 없다. 상상력 자체가 학습자의 개별적인 능력이므로 교사가 학습자들의 상상력을 완전무결한 시인의 상상력처럼 풍부하게 이끌어 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상력의 환기, 확장, 내면화를 통해 학습자들의 상상력을 통한 시쓰기를 시도했다. 미흡한 상상력 유발 단계를 통해 그래도 학습자들 나름대로 한 단계 더 나아간 시쓰기를 시도 했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과 이다. 더불어 신화를 통한 시 쓰기를 통해 지금 까지 학습자들이 시쓰기를 두렵게 여겼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 되었다는 점도 본 연구를 시도하면서 얻은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열려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 열린 시각을 교사들은 달을 수도 있고 더 큰 눈으로 키워 줄 수도 있다. 문학교육은 학습자들의 열린 눈을 한 층 더 크게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장점을 교사들 스스로가 활용하지 못한다면 무한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학습자들의 잠재력을 교사들 스스로가 도태시켜버리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미흡한 연구를 통해서도 조금의 가능성을 가지게 된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 학습자들의 뛰어난 상상력을 계발시킬 수 있는 연구물들이 가득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연구를 마친다.

참고문헌

1. 자료

서정주, 『未堂 徐廷柱 詩全集 1』, 민음사, 1991.

심치열 · 박정혜 엮음, 『신화의 세계』,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5.

2. 정기간행물

강희근, 「서정주시의 서술성에 대하여」, 『월간문학』, 1984. 1월.

경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상상력의 자리 찾기 : 한국문화의 상상력」,
1999.

고형진, 「서정주의 『질마재신화』의 ‘이야기 시’적 특성 연구」, 『예술논
문집』, 예술원, 1995. 12.

교육부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1997 15호, 1997.

김선학, 「설화의 시적 수용 : 『질마재신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
구』, 제 3집.

김옥순, 「서정주 시에 나타난 우주적 신비체험 - 화사집과 『질마재신화』
의 공간 구조를 중심으로 -」, 『이화어문논집』 12, 1992.

김윤식, 「서정주의 『질마재신화』 고 - 거울화의 두 양상」, 『현대문학』
255호, 1976. 3월.

김창원 정재찬 최지현, 「문학교육과 상상력」, 『한국교원대학교 교과교육
공동연구소 연구보고서』, 1999.

- 유종호, 「소리지향과 산문지향」, 『작가세계』, 1994. 봄호.
- 이경희, 「서정주의 시 알뒀집 개피떡에 나타난 신비체험과 공간 달-바다 (물)-여성 원형론」, 『이화어문논집』 12, 1992.
- 정구향, 「제7차교육과정에서 국어과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방안 및 교수 학습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세미나 자료집』, 1998. 12.
- 정신재, 「미당신화에 나타난 신화적 의미」, 『시문학』, 1983. 1월.
- 정신재, 「시의 신화적 구조와 상상력」, 『시문학』, 1994. 2월.
- 정효구, 「서정주 시의 거울 이미지 고찰」, 『충북대 인문학지』, 1994.12.
- 조창환, 「산문시의 양상」, 『현대시학』, 1975. 2월.
- 최지현, 「문학감상교육의 교수학습모형 탐구」, 『선청어문』, 제 26집, 1998.
- 황동규, 「두 시인의 시선」, 『문학과 지성』, 1975. 겨울호.

3. 단행본

- 강진호, 『한국문학의 현장을 찾아서』, 문학사상사, 2002.
-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1999.
- 김열규, 『한국의 신화』, 일조각, 1976.
- 김열규, 『韓國의 傳說』, 三省印刷株式會社, 1980.
- 김열규, 「속신과 신화의 서정주론」, 『미당연구』, 민음사, 1994.
- 김옥동, 『대화적 상상력』, 문학과 지성사, 1999.
- 김은전, 『한국 현대시의 탐구』, 태학사, 1996.
- 김종철, 『시와 역사적 상상력』, 문학과 지성사, 1978.
- 김준오, 『시론』, 문장사, 1982.

- 김준오, 『시론』, 삼지원, 1995.
- 김홍규, 『한국문학의 이해』, 민음사, 1992.
- 노창수, 「현대시 교재의 수용적 이해를 위한 전체적 접근 단계의 수업 전개 방법」, 『미원 우인섭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집문당, 1986.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국어교육학사전』, 대교출판, 1999.
- 서정주, 『내 영원은 물빛 라일락』, 갑인 출판사, 1997.
- 양왕용, 『현대시교육론』, 삼지원, 1997.
- 우한용, 「문학교육과 문화론」, 서울대출판부, 1999.
- 이부영, 『분석 심리학』, 일조각, 1998.
- 이상섭, 『비평용어사전』, 민음사, 1995.
- 이승원, 『한국현대시 감상론』, 집문당, 1996.
- 장경렬 진형준 정재서 편역, 『상상력이란 무엇인가』, 살림, 1997.
- 정신재, 「한국 현대시의 신화적 원형연구」, 『정신재 문학비평집』, 국학자료원, 1995.
- 정효구, 「이야기시의 가능성 존재의 전환을 위하여」, 청하, 1980.
- 정효구, 「서정주 시에 나타난 신화성의 양상과 그 의미」, 『20세기 한국시와 비평정신』, 새미, 1997.
- 한영옥, 『한국현대시의 의식 탐구』, 새미, 1999.

4. 논문

- 강우식, 「서정주 시의 상징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1984.
- 곽재구, 「질마재신화의 서사구조연구」, 숭실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 김경희, 「미당시에 나타난 설화적 모티브 연구」, 동아대 석사논문, 1981.

- 김미숙, 「『질마재신화』에 나타난 신화적 삶의 양상 연구」, 원광대 석사
논문, 1995.
- 김선학, 「한국 현대시의 시적 공간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1990.
- 김은자, 「한국 현대시의 공간의식에 관한 연구 : 김소월·이상·서정주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논문, 1986.
- 김주향, 「시교육 방법 연구」, 서울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1.
- 김창근, 「한국현대시의 원형적 상상력에 관한 연구」, 부산대 박사논문,
1992.
- 김홍진, 「서정주 시의 원형 이미지 연구」, 한남대 석사논문, 1993.
- 나희덕, 「서정주의 『질마재신화』 연구 서술시적 특성을 중심으로」, 연세
대 석사논문.
- 박진열, 「신화적 상징체계를 통한 서술적 표현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
논문, 1996.
- 서정주, 「시의 설화 수용양상 연구」, 서강대 석사논문, 1982.
- 성희정, 「상상력 계발을 위한 시교육 방법 연구」,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
사논문, 2004.
- 손진은, 「서정주 시의 시간성 연구」, 경북대 박사 논문, 1996.
- 신현호, 「W. B. Yeats의 신화적 상상력」, 한국 외국어대 박사논문, 1998.
- 유영희, 「이미지 형상화를 통한 시 창작교육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9.
- 유혜숙, 「서정주 시 연구 : 자기실현 과정을 중심으로」, 서강대 박사논문,
1986.
- 윤영선, 「시적 상상력 계발을 위한 학습 지도방안 연구」, 강원대 교육대학
원 석사논문, 1996.

- 윤재용, 「서정주 시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1996.
- 이명희,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신화적 상상력 연구 - 서정주, 박재삼, 김춘수, 전봉건을 중심으로」, 건국대 박사논문, 2001.
- 이순옥, 「서정주의 『질마재신화』 연구」, 영남대 박사논문, 1983.
- 이진홍, 「서정주 시의 심상연구」, 영남대 박사논문, 1989.
- 인선민, 「서정주의 질마재신화에 대한 연구」,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 임문혁, 「한국 현대시의 전통 연구 : 설화의 수용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박사논문, 1993.
- 장창영, 「서정주 시 연구 - 형상화 방식과 의식세계를 중심으로 -」, 전북대 박사논문, 2002.
- 전인석, 「상상력 향상을 위한 시 수업 모형 연구」, 관동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8.
- 정신재, 「미당시의 공간의식」, 동국대 박사논문, 1992.
- 정유화, 「서정주 시의 기호론적 연구」, 중앙대 박사논문, 1997.
- 정형근, 「질마재신화 연구 : 상호텍스트와 텍스트의 충돌」, 서강대 석사논문, 1999.
- 조규미, 「서정주 시의 병렬법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5.
- 주 옥, 「서정주 시의 설화수용양상 연구」, 서강대 석사논문, 1982.
- 차호일, 「미당시에 나타난 여인상 연구」, 경남대 박사논문, 1999.
- 최영란, 「상상력 신장을 위한 시 지도 연구」, 대구교육대 석사논문, 1999.
- 한귀은, 「상상력 신장을 위한 시 교육 연구」,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6.
- 황숙희, 「서정주의 질마재신화 연구 : 패러디 양상을 중심으로」, 강원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1.

5. 역서 및 외서

라캉, 김종주 역, 『정신분석과 문학 평론』, 하나의학사, 1996.

엘리아데, 이동하 역, 『성과 속』, 학민사, 1987.

엘리아데, 이은봉 역, 『성과 속』, 한길사, 1998.

조셉캠벨, 빌 모이어스, 이윤기 역, 『신화의 힘』, 고려원, 1992.

Osborne, *Aesthetics and Art Theory*, 노양진 역, 『마음속의 몸』, 철학과
현실사, 2000.

R. L Brett, 심명호 역, 『공상과 상상력』, 서울대출판부, 1982.

ABSTRACT

A study on a Methodology of Teaching Imagination Using Poetry
- Focusing on the 『Myth of Jilmajae』 -

Shin, Hye Jung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it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point out the value of the poem 『Myth of Jilmajae』 as a narrative poem focusing on its composition and to show the poet's imagination expressed in the poem. In addi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ee how the poet's imagination could be applied to learners' poem writing, and a performance evaluation was carried out to see how learners use their imagination for poem writing.

The imagination is abstract. Therefore, it has been interpreted differently by many scholars. The imagination is still not understood to teachers and learners in a concrete way. In spite of these circumstances, the creative imagination of learners is regarded as most important in the 7th education course. To make learners display their good imagination, literature education would be required. The literature education could be defined as to disclose one's internal imagination by experiencing the imagination of a

writer through literature appreciation and conducting a creative activity.

In poems compared with novels, the breath is short and a work has many different meanings. Therefore, it is far more difficult to meet the poet's imagination and to disclose one's imagination to create a new poem. In reality teachers think that the class on poetry is more difficult. Subsequently learners' poem writing in a school can be seen only in an intramural composition contest.

Until now the poetry education has been focused only on the development of imagination, and has been indefinitely applied without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imagination in most cases.

To observe how a writer's imagination is actually exposed and applied, the description and subject of the poem 『Myth of Jilmajae』 in Chapter II was examined. The mythical imagination shown in Chapter III was applied to the learners' poem writing. In this manner, an imagination process with several steps was proposed.

In this study, the poem 『Myth of Jilmajae』 having a story was used to communicate with learners. The message that the poet intended to show in the poem was mythical imagination having typical generality. This helped learners approach their imagination more easily. They could experience their live imagination by writing their own poem. This process made them think that the imagination is not an intangible existence any more, but a live subsistence. The learners wrote a poem based on a myth according to the imagination process, and a performance evaluation and a peer evaluation were carried out for their works.

The performance evaluation is an essential for the 7th education course. In this study, the peer evaluation was conducted as a means to ensure the objectivity and reliability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As a result, learners came to have a better attitude and interest in the class and tried to correct their own weakness.